

01 일반 표 분석의 패턴

2014. 6. 16번

표는 어느 해의 성별·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교육 수준별 \ 성별	여성	남성
초졸 이하	67.7	63.8
중졸	50.4	51.7
고졸	44.9	32.5
대졸 이상	32.2	16.8

★ 개념 보다 중요한 건
선지의 패턴!

- ㄱ. 초졸 이하인 남성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ㄴ.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77.1%이다.
 ㄷ.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ㄹ.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가 더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 분석의
패턴



✓ 2014. 6. 16번

- ㄱ.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63.8%가 비정규직이므로 과반수가 된다.
 ㄴ. 고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4.9%, 대졸 이상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2%이다. 이 두 수치를 더하여 고졸 이상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77.1%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5%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합하면 15%의 소금물 200g이 되는 것이 아니라 7.5%의 소금물 200g이 된다.
 ㄷ. 여성과 남성 모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ㄹ.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낮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임금 근로자의 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는 비교할 수 없다. ②

1 Pattern **비율 읽기**

<갑국의 시민단체 활동 비율>

(단위: %)

	참여O	참여X	
남자	60	40	
여자	50	50	

기준 찾기

◦ 갑국 시민의 90%는 시민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 []

동일 집단

◦ [] 남자는 시민 단체 참여 비율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다. []

◦ [] 남자는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다. []

다른 집단

◦ [] 남자가 여자보다 시민 단체 참여 비율이 높다. []

◦ [] 남자가 여자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

㉔ 기준 찾기 : 100%

㉕ 비율 읽기 :

	비율	수
동일 집단 내 비교		
다른 집단 간 비교		



패턴 적용

2012. 9. 15번

<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

○ 설문 내용 :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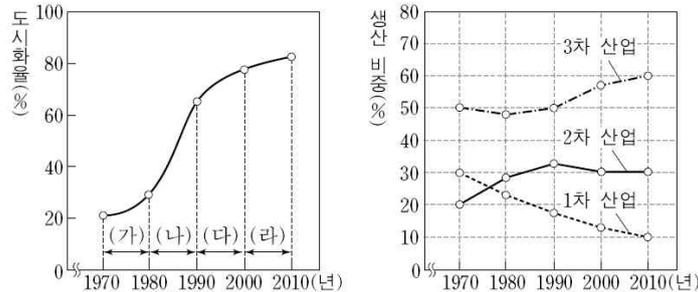
○ 응답 결과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건강 문제	실업	경로 의식 약화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계	
지역	도시	40.2	16.5	22.6	15.0	1.4	4.3	100.0
	농촌	45.2	4.5	30.7	7.3	7.8	4.5	100.0
성별	남	46.9	8.0	23.0	4.8	1.3	16.0	100.0
	여	40.7	12.5	30.4	7.3	1.3	7.8	100.0

- ㄴ. 경로 의식 약화에 답한 응답자 수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
- ㄷ. 농촌 지역에서 소외감과 노인 복지 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같다.

2012. 수능 14번

< 갑국의 도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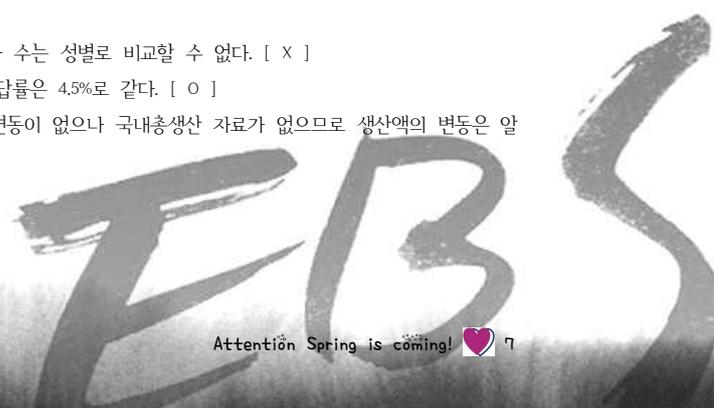


* 도시화율: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생산 비중: 국내 총생산에서 산업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 ② (라) 기간 동안 2차 산업의 생산액은 변동이 없다.



- ✓ 2012. 9. 15번 ㄴ. 남녀 노인 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 수는 성별로 비교할 수 없다. [X]
- ㄷ. 농촌 지역에서 소외감과 노인 복지 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4.5%로 같다. [O]
- ✓ 2012. 수능 14번 ② (라) 기간 동안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은 변동이 없으나 국내총생산 자료가 없으므로 생산액의 변동은 알 수 없다. [X]



2013. 6. 16번

< 갑국의 혼인 형태별 비율의 변화 >

(단위: %)				(단위: %)			
1990년				2010년			
구분		남편		구분		남편	
		초혼	재혼			초혼	재혼
아내	초혼	84	2	아내	초혼	68	9
	재혼	6	8		재혼	14	9

* 갑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혼인 형태는 초혼과 재혼으로만 구분됨.

③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는 2010년보다 1990년에 더 많다.

2013. 9. 10번

< 갑국의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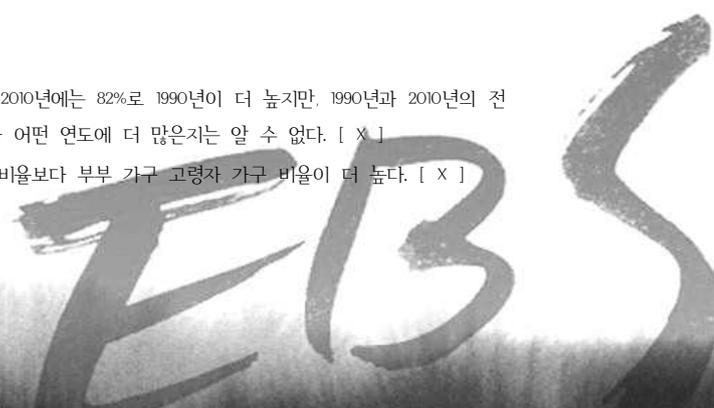
가구 유형	연도	(단위: %)	
		2005년	2010년
부부 가구		28.5	32.7
2세대 가구		23.7	24.6
3세대 이상 가구		30.1	23.2
1인 가구		16.1	17.9
기타 가구*		1.6	1.6
계		100.0	100.0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③ 2005년과 2010년 모두 혼자 사는 고령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많다.



- ✓ 2013. 6. 16번 ③ 남편이 초혼인 혼인 비율은 1990년에는 90%, 2010년에는 82%로 1990년이 더 높지만, 1990년과 2010년의 전체 혼인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가 어떤 연도에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X]
- ✓ 2013. 9. 10번 ③ 2005년과 2010년 모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 비율보다 부부 가구 고령자 가구 비율이 더 높다. [X]



2012. 6. 18번

<갑국 A, B 지역 가구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
A	88.7	6.5	4.8	100.0	95.5	4.5	100.0
B	83.4	11.3	5.3	100.0	98.5	1.5	100.0
전국	87.7	7.4	4.9	100.0	96.1	3.9	100.0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④ B는 A보다 비친족 가구 비율이 더 낮다.

고2, 2014. 9. 10번

< 가사 분담에 대한 갑국 국민의 의견 >

(단위: %)

구분	지역	성별	연령	부인 주도	부인의 전적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 분담	남편 주도	남편의 전적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도시	52.0	5.3	46.7	45.0	3.0	0.5
농·어촌	61.3	6.4	54.9	37.2	1.5	0.3	1.2			
남자	57.0	7.0	50.0	40.5	2.5	0.3	2.2			
여자	47.2	6.9	40.3	50.3	2.5	0.4	2.1			
20대	34.0	2.3	31.7	63.3	2.7	0.4	2.3			
30대	51.7	3.3	48.4	46.9	1.4	0.2	1.2			
40대	61.0	4.8	56.2	36.5	2.5	0.3	2.2			
50대 이상	61.4	6.0	55.4	34.8	3.8	0.8	3.0			

②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④ 가사 분담이 남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도시가 농·어촌보다 2배 더 많다.

⑤ 20대 여자는 40대 남자에 비해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다.

정답
ANSWER

- ✓ 2012. 6. 18번 ④ A와 B의 친족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절대 수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X]
- ✓ 고2 2014. 9. 10번 ②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X]
- ④ 도시와 농·어촌의 응답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의견에 대한 수를 비교할 수 없다. [X]
- 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여자와 40대 남자의 의견에 대한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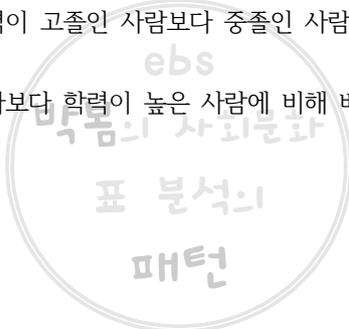
고2, 2013. 11. 20번

< 결혼 이민자의 교육수준별 배우자 교육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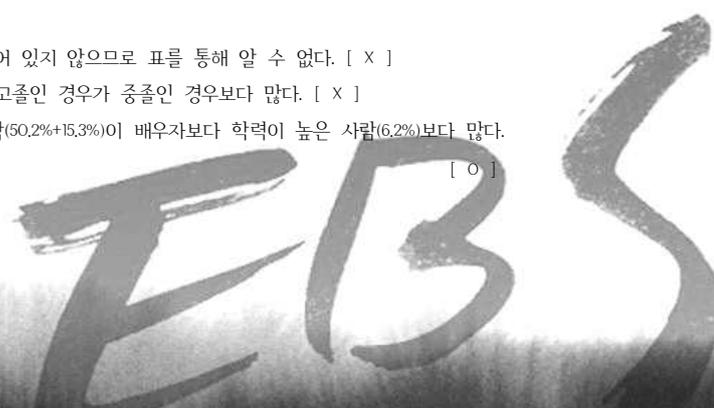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배우자 교육 수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여성 결혼이민자	초졸 이하	26.6	22.4	39.1	11.9	100
	중졸	6.2	28.3	50.2	15.3	100
	고졸	4.9	13.5	62.4	19.2	100
	대졸 이상	3.9	8.4	39.8	47.9	100
남성 결혼이민자	초졸 이하	49.8	15.1	30.0	5.1	100
	중졸	7.5	49.5	37.7	5.3	100
	고졸	3.6	17.4	64.4	14.6	100
	대졸 이상	1.9	4.2	21.9	72.0	100

- ②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결혼이민자의 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 ④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인 사람보다 중졸인 사람 수가 많다.
- ⑤ 중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



- ✓ 고2 2013. 11. 20번
- ②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학력별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를 통해 알 수 없다. [X]
- ④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든 학력 수준에서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중졸인 경우보다 많다. [X]
- ⑤ 중졸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보다 자신의 학력이 낮은 사람(50.2%+15.3%)이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6.2%)보다 많다. [O]



UP **답서** **준비**

<갑국의 시민단체 활동 비율>

(단위: %)

	참여O	참여X
남자	60	40
여자	50	50

단, 갑국 조사 대상 여자는 남자의 두 배이다.

⊗ **집단의 크기!**

기준 찾기

◦ 갑국 시민의 90%는 시민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 []

동일 집단

◦ [] 남자는 시민 단체 참여 비율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다. []

◦ [] 남자는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다. []

다른 집단

◦ [] 남자가 여자보다 시민 단체 참여 비율이 높다. []

◦ [] 여자가 남자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

패턴 적용



2016. 3.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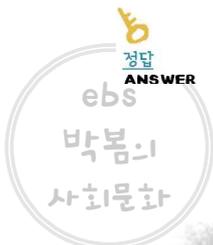
<갑국 남녀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변화>

(단위: %)

성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73.5	26.5	73.4	26.6	73.5	26.5
여자	59.4	40.6	60.1	39.9	59.8	40.2

(단, 남녀 근로자의 수는 2013년 이후 각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ㄱ.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
- ㄴ. 2013년과 2015년의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같다.
- ㄷ. 2013년~2015년 여자 근로자의 과반수는 정규직이다.



- ✓ 2016. 3. 20번 ㄱ. 남녀 근로자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파악할 수 없다. [X]
- ㄴ. 남자 근로자의 수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2013년보다 2015년의 남자 근로자 수가 더 많다. [X]
- ㄷ. 2013년 ~ 2015년 여자 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매년 50%가 넘어 과반수이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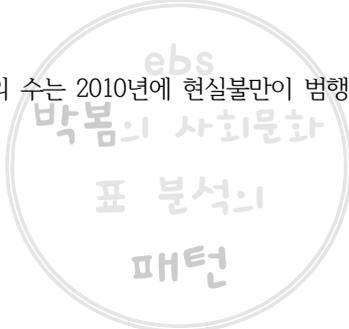
2013. 4. 20번

<학생 범죄자 범행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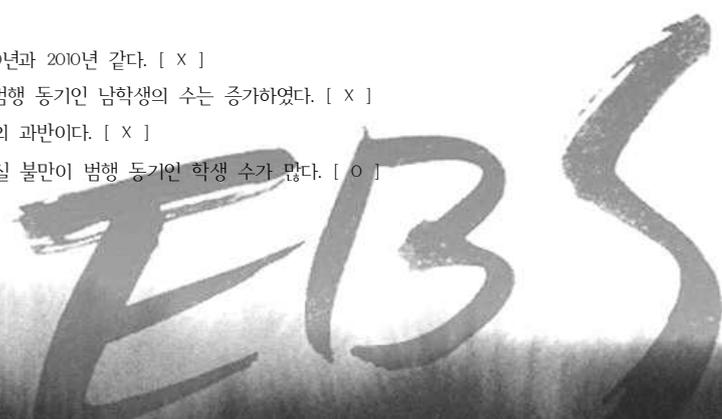
구분		사행심	우발적	호기심	현실불만	기타	계
2000년	여자	6.2	33.4	27.1	25.2	8.1	100
	남자	2.2	51.7	15.0	21.0	10.1	100
2010년	여자	12.4	33.3	23.6	23.8	6.9	100
	남자	6.6	58.3	14.7	10.5	9.9	100

※ A지역에서 2000년과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 A지역에서 2000년 대비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남·여 학생 수는 각각 2배임

- ① 현실불만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2000년이 2010년의 2배이다. X
- ②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감소하였다. X
- ④ 2000년과 2010년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 학생 범죄자의 과반이다. X
- ⑤ 2000년에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수는 2010년에 현실불만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수보다 적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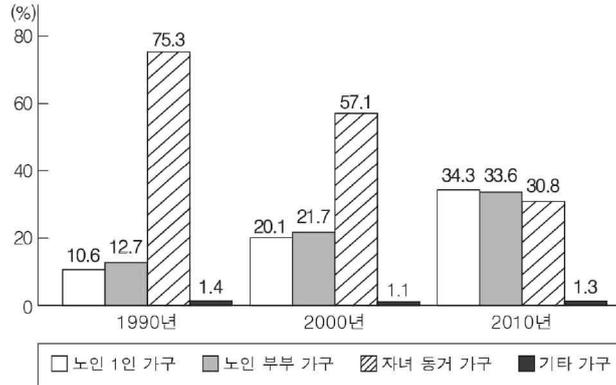
- ✓ 2013. 4. 20번 ① 현실 불만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 수는 2000년과 2010년 같다. [X]
- ②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남학생의 수가 2배이므로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증가하였다. [X]
- ④ 전체 학생 범죄자의 과반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남학생의 과반이다. [X]
- ⑤ 2010년 남녀 학생의 비율이 2000년의 두 배이므로 2010년 현실 불만이 범행 동기인 학생 수가 많다. [O]





고2 2014. 11. 15번

< 노인 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 >



*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ㄷ.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기타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2014. 4. 10번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

(단위: %)

구분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	
			일반 신문	인터넷 신문
2011년	전체	75.6	67.8	77.9
2013년*	남자	79.5	61.9	80.6
	여자	65.8	50.0	82.5

* 2013년 조사 대상 남녀의 수는 동일함.

ㄴ. 2013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2011년에 비해 적다.

ㄷ. 2013년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ㄹ. 2011년과 2013년 모두에서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가 일반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보다 많

다.



정답
ANSWER

✓ 고2 2014. 11. 1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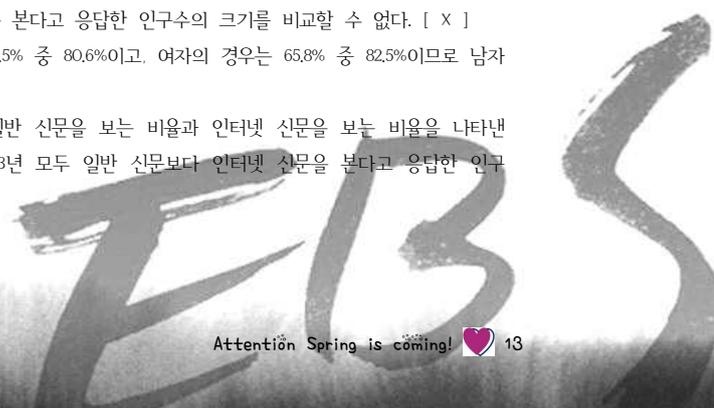
ㄷ.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2010년의 기타 가구 수는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O]

✓ 2014. 4. 10번

ㄴ. 2011년과 2013년의 조사 대상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X]

ㄷ. 2013년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의 경우 79.5% 중 80.6%이고, 여자의 경우는 65.8% 중 82.5%이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O]

ㄹ.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중에서 일반 신문을 보는 비율과 인터넷 신문을 보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비율이 높으면 인구 수도 많다. 따라서 2011년과 2013년 모두 일반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가 더 많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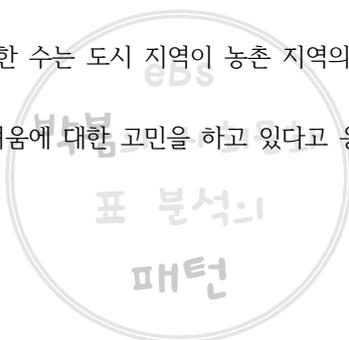
고2 2012. 9. 20번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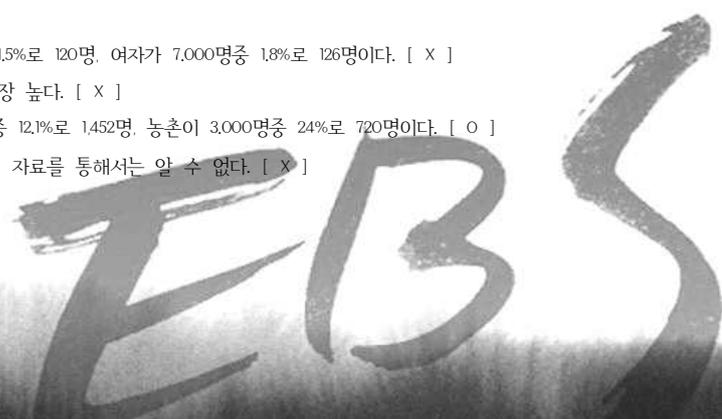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응답 인원	외모	가계경제 어려움	공부	직업	이성 교제	기타
지역	도시	12,000	13.0	6.1	49.1	12.1	1.6	18.1
	농촌	3,000	11.0	7.0	35.3	24.0	1.8	20.9
성별	남자	8,000	9.1	5.8	40.7	23.4	1.5	19.5
	여자	7,000	16.3	6.8	36.4	22.4	1.8	16.3
연령	13~14세	4,000	16.9	2.2	60.6	5.8	0.2	14.3
	15~16세	6,000	11.0	2.4	65.2	6.6	0.3	14.5
	17~18세	5,000	12.3	9.7	59.9	9.1	1.6	7.4

- ②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X
- ③ 연령이 높을수록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X
- ④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의 2배 이상이다. X
- ⑤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경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X



- ✓ 고2. 2012. 9. 20번
- ② 이성 교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남자가 8,000명중 15%로 120명. 여자가 7,000명중 1.8%로 126명이다. [X]
- ③ 15~16세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X]
- ④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도시가 12,000명중 12.1%로 1,452명. 농촌이 3,000명중 24%로 720명이다. [O]
- 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률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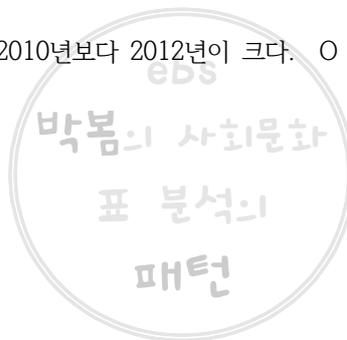
2015. 3. 20번

<갑국의 학력별, 성별 평균 임금 비교>

구분	2010년	2012년
중졸 / 고졸	0.78	0.72
대졸 / 고졸	1.20	1.14
여성 / 남성	0.70	0.60

(단, 고졸 평균 임금은 2010년보다 2012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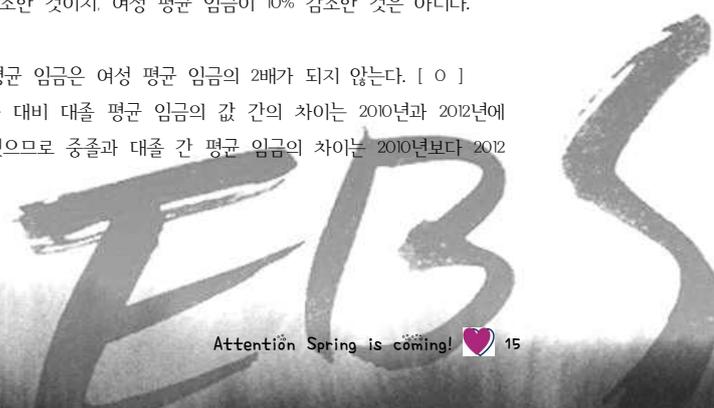
- ㄱ. 2012년 중졸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ㄴ. 2012년 여성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 10% 감소하였다.
- ㄷ. 2012년 남성의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적다.
- ㄹ. 중졸과 대졸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10년보다 2012년이 크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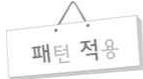
✓ 2015. 3. 20번

- ㄱ. 고졸 대비 상대적 임금이 감소한 것일 뿐 고졸의 임금이 2012년에 많아진 만큼 중졸의 절대적 임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 ㄴ.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상대적 비율이 10% 감소한 것이지, 여성 평균 임금이 10% 감소한 것은 아니다. [X]
- ㄷ. 2012년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60%이므로 남성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의 2배가 되지 않는다. [O]
- ㄹ. 고졸 평균 임금 대비 중졸 평균 임금의 값과 고졸 평균 임금 대비 대졸 평균 임금의 값 간의 차이는 2010년과 2012년에 0.42로 같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인 고졸 평균 임금이 상승하였으므로 중졸과 대졸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10년보다 2012년이 크다. [O]



UP 비율 계산

비율 :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



2013. 6. 16번

<갑국의 혼인 형태별 비율의 변화>

1990년 (단위: %)				2010년 (단위: %)			
구분		남편		구분		남편	
		초혼	재혼			초혼	재혼
아내	초혼	84	2	아내	초혼	68	9
	재혼	6	8		재혼	14	9

* 갑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혼인 형태는 초혼과 재혼으로만 구분됨.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높다.

2012. 9. 8번

<A, B사회의 세대간 이동>

		(단위: %)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5	12	5
중층	16	30	18	64	
하층	4	8	2	14	
계	25	50	25	100	

ㄱ.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세대 간에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은 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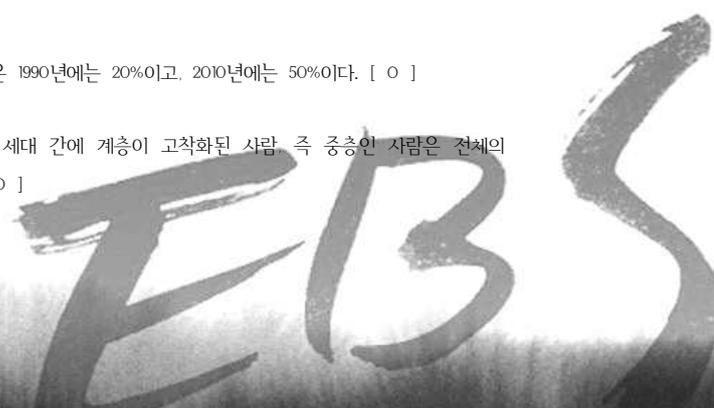


✓ 2013. 6. 16번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에는 20%이고, 2010년에는 50%이다. [O]

✓ 2012. 9. 8번

ㄱ. A사회에서 부모가 중층인 사람은 전체의 50%이며 이 중에서 세대 간에 계층이 고착화된 사람 즉 중층인 사람은 전체의 30%이므로 중층의 계층 고착화 비율은 60%(30/50*100)이다. [O]





2010. 9. 13번

<한부모 가구 현황>

구분 \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한부모 가구 수 (천 가구)	사별	443	498	526	502	501
	이혼	50	79	124	246	399
	미혼	101	85	94	123	142
	합계	594	662	744	871	1,042
한부모 가구 비율(%)	6.2	5.8	5.7	6.1	6.7	

* 한부모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①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로 한부모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 ② 한부모 가구 중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2. 수능 4번

ebs
박봄의 사회문화

<갑국 가구 구성의 변화>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가구 수(천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친족 가구 (%)	부부 가구	10.7	12.8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2	60.8	55.4	49.3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7.0	6.6
1인 가구(%)	9.0	12.7	15.5	20.0	25.1	
기타 가구(%)	1.5	1.3	1.1	1.4	1.6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존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 ㉔.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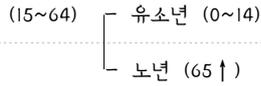
정답
ANSWER

박봄의
사회문화

- ✓ 2010. 9. 13번 ① 한 부모 가구 비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X]
- ② 2005년의 경우, 1,042천 가구 중 501천이므로 50%가 되지 않는다. [X]
- ✓ 2012. 수능 4번
- ㉔. 2세대 가구 비중이 가장 작은 2010년에는 49.3%인데 이 경우에도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이다. [O]

정용 인구부양비

인구부양비 :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의 비율



2015. 10. 14번

표는 A 국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40	33	20
노년 부양비	10	12	20

* 유소년 부양비(%) = $\frac{0 \sim 14\text{세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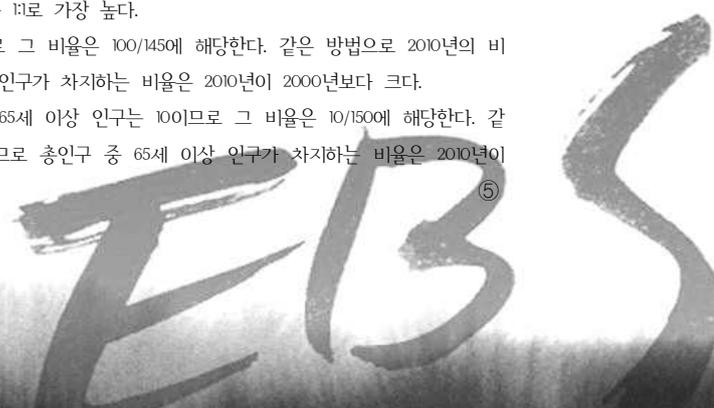
- ① 1990년에는 총인구 중 0 ~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다.
- ② 2000년에는 0 ~ 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 ~ 64세 인구는 33명이 필요하다.
- ③ 0 ~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 중 15 ~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 2015. 10. 14번

- ① 15~64세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면, 1990년의 총인구는 150이고, 0~14세 인구는 40, 65세 이상 인구는 10이므로 그 비율은 50/150에 해당한다.
- ② 2000년에는 15 ~ 64세 인구는 100명이 0 ~ 14세 인구 33명을 부양한다.
- ③ 0 ~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이 20:20, 즉 1:1로 가장 높다.
- ④ 15~64세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면, 2000년의 총인구는 145이므로 그 비율은 100/145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2010년의 비율을 구하면 100/14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총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2000년보다 크다.
- ⑤ 15~64세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면, 1990년의 총인구는 150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0이므로 그 비율은 10/150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2010년의 비율을 구하면 20/14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⑤



패턴 적용

2011 수능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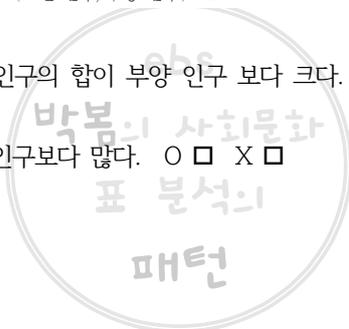
< 갑국의 인구 부양비 >

(단위: %)

구분	연도	1960	1980	2000
총 부양비*	A	77.9	53.8	37.0
	B	89.5	70.4	50.0
	전국	85.9	60.5	39.4
유소년 부양비**	A	74.0	49.9	29.5
	B	82.4	60.8	28.0
	전국	79.9	54.3	29.2
노년 부양비***	A	3.9	3.9	7.5
	B	7.1	9.6	22.0
	전국	6.0	6.2	10.2

* 총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② 1980년 A에서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부양 인구 보다 크다.
- ③ 2000년 B에서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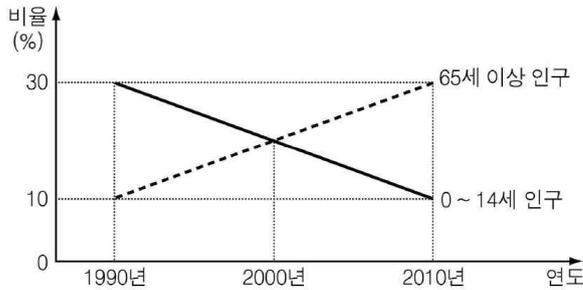
- ✓ 2011. 수능 20번
 ②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49.9%+3.9%=53.8%이므로 부양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부양 인구보다 적다. [X]
 ③ 2000년 B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22.0%이고 유소년 부양비는 28.0%이므로 유소년 인구가 더 많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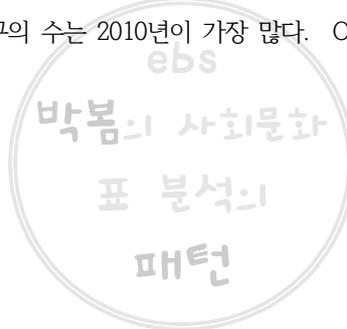
2014. 3. 16번

<그림에 대한 분석>



	1990	2000	2010
0~14			
15~64			
65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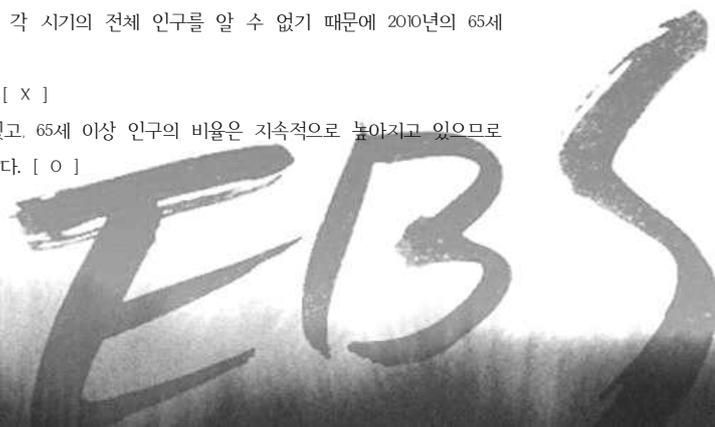
- ① 15 ~ 64세 인구의 비율은 1990년이 가장 높다.
- ②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이 2000년의 2배이다.
- ③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에 비해 3배가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 ④ 0 ~ 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1990년이 가장 많다.
- ⑤ 15 ~ 6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0년이 가장 많다.



✓ 2014. 3. 16번

정답
ANSWER

- ①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다. [X]
- ② 2010년이 30%, 2000년이 20%이다. [X]
- ③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10%이고 2010년에 30%이나, 각 시기의 전체 인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010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의 3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 [X]
- ④ 0~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1990년이 가장 적다. [X]
- ⑤ 제시된 기간 동안 15 ~ 64세 인구의 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15 ~ 6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0년이 가장 많다. [O]





고2 2014. 3. 19번

< A국과 B국의 인구 변동 양상 >

구분	A국		B국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노년층 비율(%)	10	10	10	20
노령화 지수	100	200	100	200

* 노년층 : 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A		B	
	1990	2010	1990	2010
0~14				
15~64				
65세 이상				

① 노령화지수

⇒ 0~14세 vs 65세 이상 상대적 비율

② 노년층 비율 ⇒ 0~14세 비율

- ㄱ. A국에서 15 ~ 64세 인구의 비중은 커졌다.
- ㄴ. A국의 출산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높다.
- ㄷ. B국에서 0 ~ 14세 인구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ㄹ. 2010년의 노년층 인구는 A국보다 B국이 많다.



정답
ANSWER

✓ 고2 2014. 3. 19번

ㄱ. ㄷ. A국은 1990년 10%, 80%, 10%에서 2010년 5%, 85%, 10%로 변동하였다. B국은 1990년 10%, 80%, 10%에서 2010년 10%, 70%, 20%로 변동하였다. [O] [O]

ㄴ. 0~14세 인구의 비중이 감소했을 뿐 출산율 변동은 파악할 수 없다. [X]

ㄹ. 총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3. 9. 10번

< 갑국의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

(단위: %)

가구 유형 \ 연도	2005년	2010년
부부 가구	28.5	32.7
2세대 가구	23.7	24.6
3세대 이상 가구	30.1	23.2
1인 가구	16.1	17.9
기타 가구*	1.6	1.6
계	100.0	100.0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단, 전체 고령자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㉔ 1세대 핵가족 형태의 고령자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㉕ 2005년 대비 2010년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아닌 형태로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 비율은 변화가 없다.



2011. 6. 18번

<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

(단위: %)

연도 및 가구 형태 \ 지역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1인 가구	2.6	2.5	3.0	6.9	6.5	8.8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핵가족 :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기타 가구 :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㉑ 1995년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낮다.



정답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 2013. 9. 10번 ㉔ 1세대 핵가족 형태의 고령자 가구에는 부부 가구가 해당한다. 전체 고령자 가구 수가 증가했으므로 부부 가구의 비율은 늘었다. [X]

㉕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아닌 형태로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로는 1인 가구와 기타 가구를 들 수 있다. 기타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1인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늘어났다. [X]

✓ 2011. 6. 18번 ㉑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부부 가구를 가리키므로 틀린 진술이다. [X]



2014. 9. 10번

갑국과 을국의 가족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갑국의 가구 수는 을국의 두 배이다.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부부	2세대	3세대 이상		
갑국	8.0	69.0 (9.0)	12.0	9.5	1.5
을국	16.0	49.0 (14.0)	7.0	25.0	3.0

* ()는 전체 가구 대비 기혼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의 비율임.
** 기타 가구는 조손 가구 및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등을 포함함.

- ㄱ.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의 합은 을국이 갑국의 두 배이다.
- ㄴ. 갑국은 을국에 비해 친족 가구 중에서 확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ㄷ. 갑국과 을국 모두 핵가족은 전체 가구의 과반수이다.



2012. 수능 4번

ebs
박봄의 사회문화

<갑국 가구 구성의 변화>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가구 수(천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친족 가구 (%)	부부 가구	10.7	12.8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2	60.8	55.4	49.3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7.0	6.6
1인 가구 (%)	9.0	12.7	15.5	20.0	25.1	
기타 가구 (%)	1.5	1.3	1.1	1.4	1.6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 ㄴ. 1995년 이후 확대 가족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이다.



✓ 2014. 9. 10번

- ㄱ.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를 합한 비율은 갑국은 9.5%이고 을국은 19%이다. 그런데 갑국의 가구 수가 을국의 두 배이므로, 두 국가의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를 합한 값은 같다. [X]
- ㄴ. 확대 가족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 모두 2%이다. 그런데 친족 가구의 비율은 갑국이 89%이고 을국이 72%이므로, 친족 가구 중에서 확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을국이 크다. [X]
- ㄷ. 갑국의 핵가족은 68%(8+60), 을국의 핵가족은 51%(16+35)로 전체 가구의 과반수이다. [O]
- ✓ 2012. 수능 4번 ㄴ. 2세대 가구에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혼재한다. 따라서 확대 가족 비중을 판단할 수 없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1. 수능 12번

< A ~ C지역 가구 구성비 >

(단위: %)

가구 구성 지역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기타 가구*	소계
		(한)부모+ 미혼 자녀	(한)부모+ 기혼 자녀			
A	5	65	16	2	12	100
B	16	55	10	6	13	100
C	12	40	25	20	3	100

* 기타 가구: 1인 가구,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이상의 가족

- ①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A이다.
- ③ 확대 가족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C이다.
- ⑤ A, B, C 모두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 가족 가구 수보다 많다.

☑ 사회집단의 유형

고2. 2012. 6. 19번

< 갑국의 20~50대 인구 중에서 5가지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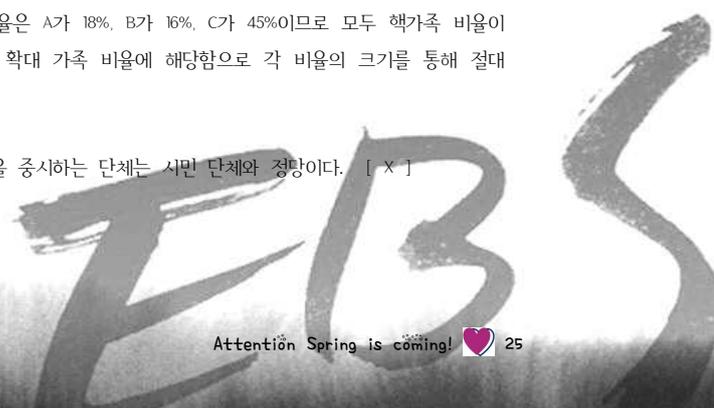
구분	친목 단체	시민 단체	직장 내 동호회	정당	이익 집단
2005년	63.5	10.2	23.6	9.9	7.2
2010년	78.7	21.7	27.9	13.1	8.7
남자	81.0	15.7	33.1	8.3	11.1
여자	76.2	28.1	22.3	11.0	6.1

* 복수 응답 결과임
 * 친목 단체 중에서 '직장 내 동호회'는 제외됨
 (단, 2010년 갑국의 20~50대 인구는 2005년보다 증가하였다.)

- ㄱ. 2005년 친목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다.
- ㄷ. 2010년 비공식 조직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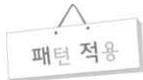
정답
ANSWER

- ✓ 2011. 수능 12번 ① 핵가족의 비율은 B지역이 가장 높다. [X]
- ③ 전체 가구 수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지역별 확대 가족 수는 파악할 수 없다. [X]
- ⑤ 핵가족은 '부부 가구와 (한)부모 + 미혼 자녀'이므로 핵가족 비율은 A가 70%, B는 71%, C는 52%에 해당하고, 확대 가족은 '(한)부모+기혼 자녀와 3세대 이상 가구'이므로 확대 가족의 비율은 A가 18%, B가 16%, C가 45%이므로 모두 핵가족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이 비율은 각각의 지역을 기준으로 핵가족과 확대 가족 비율에 해당하므로 각 비율의 크기를 통해 절대 가구 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O]
- ✓ 고2. 2012. 6. 19번
- ㄱ. 친목을 중시하는 집단은 친목 단체, 직장 내 동호회이고, 공익을 중시하는 단체는 시민 단체와 정당이다. [X]
- ㄷ. 직장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O]



☑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전 예방적	사후 처방적
의무 가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상호 부조	
수혜자 부담의 원칙	
소득 재분배 효과 O	소득 재분배 효과 大



2016. 수능 15번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지역 \ 제도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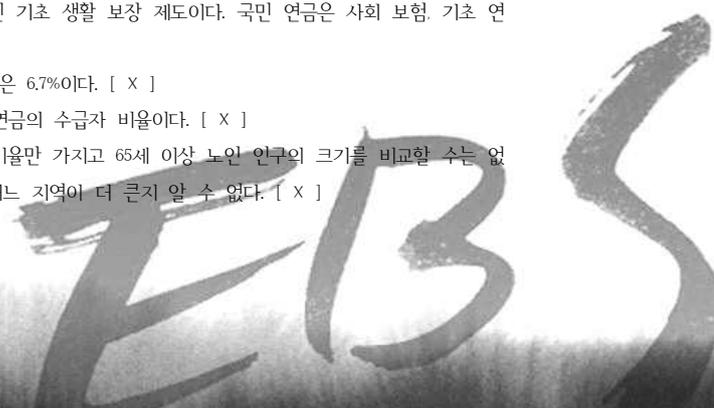
(단, ○○시는 A,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① A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이다. O □ X □
- ② B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O □ X □
- ③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O □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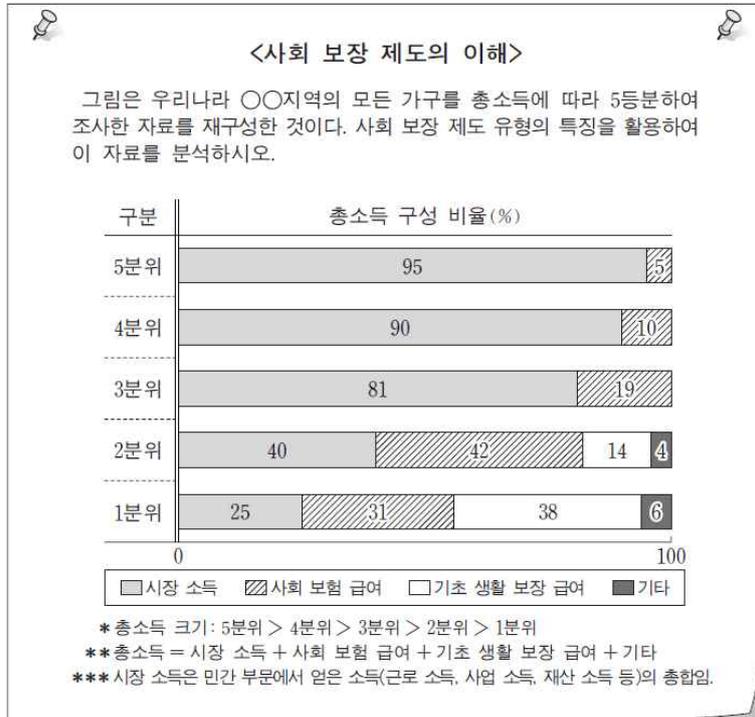
✓ 2016. 수능 15번 (가)는 국민 연금, (나)는 기초 연금, (다)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국민 연금은 사회 보험, 기초 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①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국민 연금이므로,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X]
- ②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6.7%는 국민 연금의 수급자 비율이다. [X]
- ③ 지역별 총인구의 크기는 비교할 수 있으나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만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어느 지역이 더 크지 알 수 없다. [X]





2016. 6. 15번



- ① 갑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는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됩니다.
- ② 을 : 저소득 분위일수록 총소득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높습니다.
- ③ 병 :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의 수혜자는 ○○지역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 ④ 정 : 1분위에서는 총소득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 ⑤ 무 : 총소득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2분위입니다.



✓ 2016. 6. 15번

- 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 보험 급여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모두에서 나타난다. 모든 분위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가 존재한다. [X]
- ②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2분위보다 1분위의 사회 보험 급여의 비율이 낮다. [X]
- ③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1분위와 2분위를 합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이지만, 1분위와 2분위를 합한 인구가 전체의 40%인지는 알 수 없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X]
- ④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1분위에서 기초 생활 보장 급여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다. [O]
- ⑤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장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따라서 2분위를 1분위로 고쳐야 옳은 진술이 된다. [X]

3 Pattern 전체 비율로 집단의 크기 비교

① 비율만 → 다른 집단 간 수 비교 []	〈지역별 대학생 비율〉		
	A	B	전국
② (단서) 집단 크기 → 수 비교 []	6%	10%	

i) $A = B$

ii) $A < B$

iii) $A > B$

if. $A > B$

110 100 ⇨ A지역이 미세하게 크면 B지역 대학생이 많을 수도!

* A지역의 인구 a명	* B지역의 인구 b명	
A지역의 대학생	B지역의 대학생	전국(A+B)의 대학생
6%	10%	7%

$$0.06a + 0.1b = 0.07(a+b)$$

$$0.06a + 0.1b = 0.07a + 0.07b$$

$$0.03b = 0.01a$$

$$3b = a$$

∴ A지역이 B지역보다 3배 크다!



패턴 적용

2012. 6. 18번

< 갑국 A, B지역의 가구 구성 현황 >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
A	88.7	6.5	4.8	100.0	95.5	4.5	100.0
B	83.4	11.3	5.3	100.0	98.5	1.5	100.0
전국	87.7	7.4	4.9	100.0	96.1	3.9	100.0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② A는 B보다 확대 가족 가구 수가 더 많다.

2011. 6. 18번

<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

(단위: %)

연도 및 지역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1인 가구	2.6	2.5	3.0	6.9	6.5	8.8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핵가족: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기타 가구: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단, 전체는 A, B지역으로만 구성됨)

④ 1995년과 2005년 모두 A지역의 가구 수가 B지역의 가구 수 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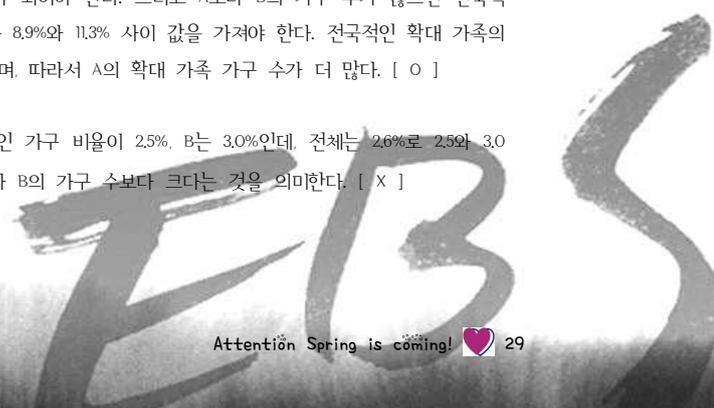
2012. 6. 18번

정답
ANSWER

② 전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A의 확대 가족과 B의 확대 가족을 합하면 전국적으로는 확대 가족의 비율은 7.4%가 된다. 그런데 A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은 6.5%, B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이 11.3%이다. 만약 A, B의 가구 수가 같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가족의 비율은 6.5%와 11.3%의 평균값인 8.9%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A보다 B의 가구 수가 많으면 전국적인 확대 가족의 비율은 B의 확대 가족의 비율에 가까운 값, 즉 8.9%와 11.3% 사이 값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인 확대 가족의 비율이 7.4%라는 점에서 A는 B보다 약 4배 정도 가구 수 많으며, 따라서 A의 확대 가족 가구 수가 더 많다. [X]

2011. 6. 18번

④ 1인 가구를 통해 A와 B 지역의 가구 수를 추론해 보면, A의 1인 가구 비율이 2.5%, B는 3.0%인데, 전체는 2.6%로 2.5와 3.0의 평균값이 2.75보다 A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A의 가구 수가 B의 가구 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X]





2011. 수능 20번

<갑국의 인구 부양비>

(단위: %)

구분	연도	1960	1980	2000
총 부양비*	A	77.9	53.8	37.0
	B	89.5	70.4	50.0
	전국	85.9	60.5	39.4
유소년 부양비**	A	74.0	49.9	29.5
	B	82.4	60.8	28.0
	전국	79.9	54.3	29.2
노년 부양비***	A	3.9	3.9	7.5
	B	7.1	9.6	22.0
	전국	6.0	6.2	10.2

* 총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① 1960년 유소년 인구는 A가 B보다 적다. O □ X □



2016. 3. 20번

<갑국 남녀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변화>

(단위: %)

성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73.5	26.5	73.4	26.6	73.5	26.5
여자	59.4	40.6	60.1	39.9	59.8	40.2

(단, 남녀 근로자의 수는 2013년 이후 각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ㄴ. 2015년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59.8%를 넘는다. O □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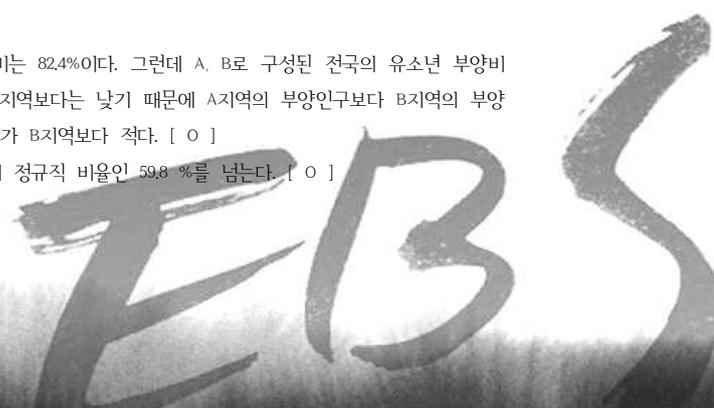


ANSWFR

✓ 2011. 수능 20번

① 1960년 A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74%이고, B지역 유소년 부양비는 82.4%이다. 그런데 A, B로 구성된 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79.9%로서 이는 A지역과 B지역의 평균값 78.2보다는 높고 B지역보다는 낮기 때문에 A지역의 부양인구보다 B지역의 부양인구가 약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유소년 인구는 A가 B지역보다 적다. [O]

✓ 2016. 3. 20번 ㄴ. 2015년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여자의 정규직 비율인 59.8%를 넘는다. [O]





2010. 9. 2번

〈다문화 가구 현황 및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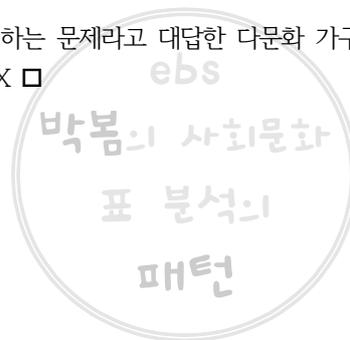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다문화 가구 비율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	한글 교육	편견 없애기	기타	
2006년	도시	0.3	17.7	20.8	25.5	29.5	6.5
	농촌	0.7	9.1	17.7	26.2	33.0	14.0
	전국	0.4	15.1	19.9	25.7	30.6	8.7
2008년	도시	1.6	18.1	15.0	31.1	29.0	6.8
	농촌	2.1	13.0	26.8	39.1	17.3	3.8
	전국	1.7	17.0	17.6	32.8	26.4	6.2

* 전수 조사 결과임.
 ** 다문화 가구 비율은 다문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전체 가구 수는 도시, 농촌 모두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하였음.

ㄱ. 다문화 가구 수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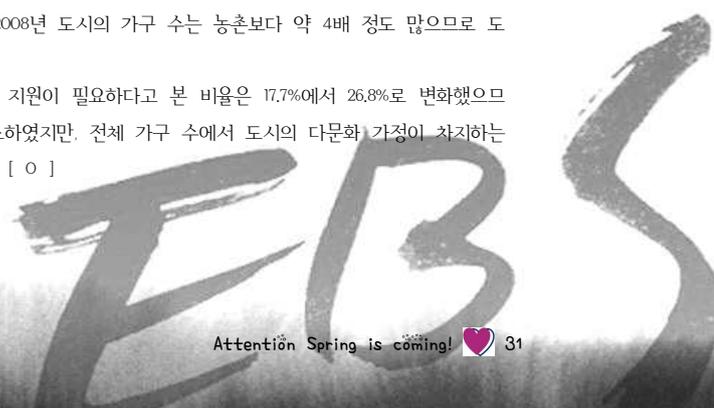
ㄷ.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한 다문화 가구의 수는 농촌과 도시 모두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 2010. 9. 2번

ㄱ. 2006년 도시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3%이고, 농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7%이다. 그런데 전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4%로서 이는 도시의 가구 수가 농촌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역시 도시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6%이고, 농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2.1%이다. 그런데 전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7%로서 이는 도시의 가구 수가 농촌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도시의 가구 수는 농촌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2008년 도시의 가구 수는 농촌보다 약 4배 정도 많으므로 도시의 다문화 가구 수가 농촌보다 더 많다. [X]

ㄷ. 전체 가구 수는 농촌과 도시 모두 증가했고, 농촌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17.7%에서 26.8%로 변화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그리고 도시의 경우 20.8%에서 15.0%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가구 수에서 도시의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0.3%에서 1.6%로 5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O]





2016. 수능 15번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〇〇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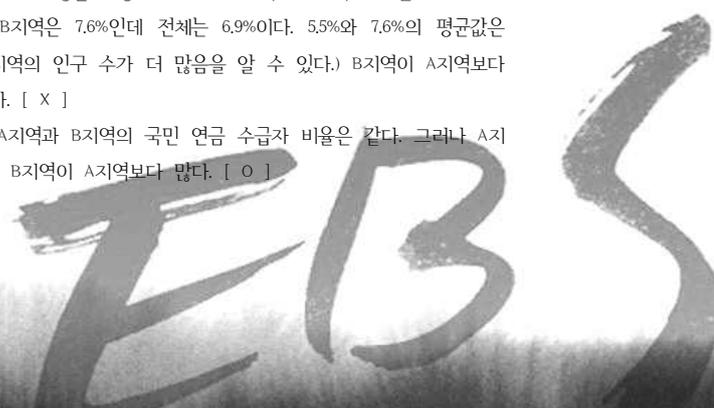
지역 \ 제도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단, 〇〇시는 A,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③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 ④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 ✓ 2016. 수능 15번 (가)는 국민 연금, (나)는 기초 연금, (다)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국민 연금은 사회 보험, 기초 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③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기초 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B지역이 A지역보다 인구 수가 더 많으므로,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의 경우 A지역은 5.5%이고 B지역은 7.6%인데 전체는 6.9%이다. 5.5%와 7.6%의 평균값은 6.55%이고 전체 비율인 6.9%는 6.55%보다 크므로, A지역보다 B지역의 인구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B지역이 A지역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더 많다. [X]
- ④ 가입자 간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A지역과 B지역의 국민 연금 수급자 비율은 같다. 그러나 A지역보다 B지역의 인구 수가 더 많으므로 국민 연금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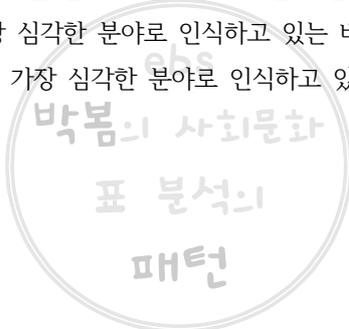
고2 2013, 9, 10번

<직장 내 성차별 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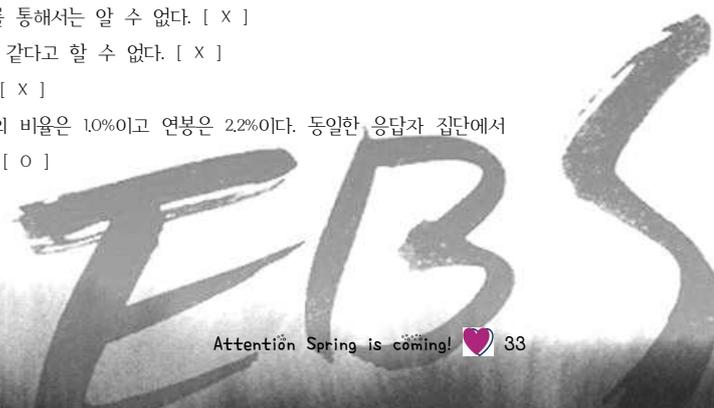
구분	업무 배분	승진 기회	연봉	호칭 문제	직장 복지	기타	계
전 체	47.4	35.9	2.7	12.2	1.6	0.2	100
성 별	남자	49.5	34.4	3.3	11.4	1.1	100
	여자	47.1	36.1	2.6	12.3	1.7	100
연 령	20대	50.4	34.2	2.2	11.8	1.2	100
	30대	45.8	37.0	3.1	12.5	1.4	100
	40대	47.0	37.0	2.3	12.1	1.3	100
	50대 이상	46.2	38.6	2.2	11.8	1.0	100

- ①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람의 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 ② 20대 남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업무 배분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30대와 40대에서 승진 기회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같다.
- ④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호칭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⑤ 50대 이상에서 직장 복지 대비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2배 이상이다.



✓ 고2 2013, 9, 10번

- ①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3.3%, 여자가 2.6%이다. 만약 남자와 여자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면 전체 평균은 2.95%일 것이다. 그런데 전체 평균은 2.7%로, 이는 여자 응답자 수가 남자 응답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X]
- ②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률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X]
- ③ 30대와 40대 응답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비율이 같다고 수가 같다고 할 수 없다. [X]
- ④ 호칭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연령대는 30대이다. [X]
- ⑤ 50대 이상에서 직장복지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이고 연봉은 2.2%이다. 동일한 응답자 집단에서 비율이 2배 이상이므로 사람의 수도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O]



Pattern — 격차, 증가율, 감소율

㉠ 격차 : gap

㉡ 증가율 / 감소율 :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율!

◦ 100 ⇨ 200

◦ 20 ⇨ 60

패턴 적용

2012. 9. 15번

<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

○ 설문 내용 :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고르시오.'

○ 응답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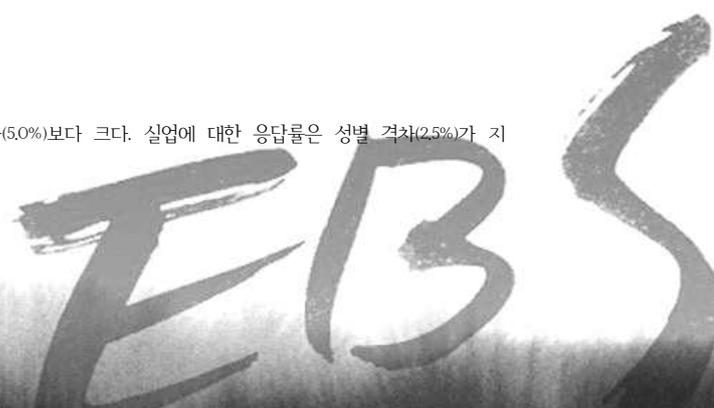
구분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건강 문제	실업	경로 의식 약화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계	
지역	도시	40.2	16.5	22.6	15.0	1.4	4.3	100.0
	농촌	45.2	4.5	30.7	7.3	7.8	4.5	100.0
성별	남	46.9	8.0	23.0	4.8	1.3	16.0	100.0
	여	40.7	12.5	30.4	7.3	1.3	7.8	100.0

ㄹ.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가 지역별 격차보다 크고, 실업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가 지역별 격차보다 작다. O □ X □



✓ 2012. 9. 15번

ㄹ.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6.2%)가 지역별 격차(5.0%)보다 크다. 실업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2.5%)가 지역별 격차(7.7%)보다 작다. [O]



고2 2012. 9. 20번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단위 : 명. %)

구분		응답 인원	외모	가계경제 어려움	공부	직업	이성 교제	기타
지역	도시	12,000	13.0	6.1	49.1	12.1	1.6	18.1
	농촌	3,000	11.0	7.0	35.3	24.0	1.8	20.9
성별	남자	8,000	9.1	5.8	40.7	23.4	1.5	19.5
	여자	7,000	16.3	6.8	36.4	22.4	1.8	16.3
연령	13~14세	4,000	16.9	2.2	60.6	5.8	0.2	14.3
	15~16세	6,000	11.0	2.4	65.2	6.6	0.3	14.5
	17~18세	5,000	12.3	9.7	59.9	9.1	1.6	7.4

① 지역 간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다.



✓ 고2. 2012. 9. 20번 ① 지역 간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이다. [X]



고2 2014. 9. 10번

< 가사 분담에 대한 갑국 국민의 의견 >

(단위: %)

구분	부인 주도	부인의 전적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 분담	남편 주도	남편의 전적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지역	도시	52.0	5.3	46.7	45.0	3.0	2.5
	농·어촌	61.3	6.4	54.9	37.2	1.5	1.2
성별	남자	57.0	7.0	50.0	40.5	2.5	2.2
	여자	47.2	6.9	40.3	50.3	2.5	2.1
연령	20대	34.0	2.3	31.7	63.3	2.7	2.3
	30대	51.7	3.3	48.4	46.9	1.4	1.2
	40대	61.0	4.8	56.2	36.5	2.5	2.2
	50대 이상	61.4	6.0	55.4	34.8	3.8	3.0

③ 가사 분담을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차이보다 지역 간 차이가 더 크다.

고2 2015. 3. 20번

< 갑국의 구성 형태별 가구 수의 변화 >

(단위: 천 가구)

구분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1990년	2,665	6,670	133	1,537	250
2000년	3,703	5,863	95	2,788	331
2010년	4,756	5,065	65	4,025	378

*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ㄷ. 1990년 대비 2010년의 가구 증가율은 1인 가구가 가장 크다.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가구 감소율은 2세대 가구보다 3세대 이상 가구가 크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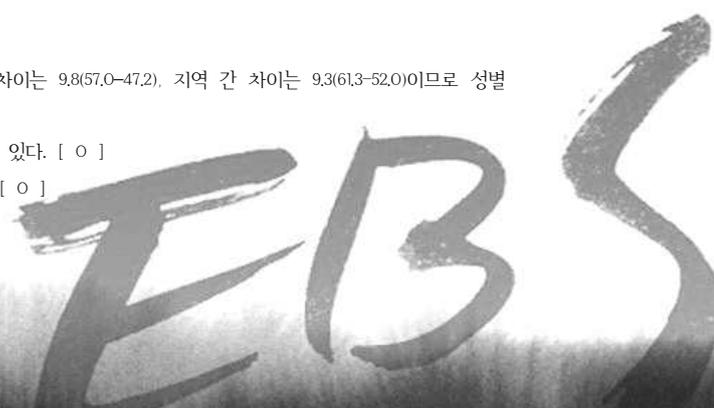
✓ 고2 2014. 9. 10번

③ 가사 분담을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간 차이는 9.8(57.0-47.2), 지역 간 차이는 9.3(61.3-52.0)이므로 성별 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

✓ 고2 2015. 3. 20번 ㄷ. 1인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O]

ㄹ. 3세대 이상 가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고2 2012. 6. 19번

< 갑국의 20~50대 인구 중에서 5가지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 >

(단위 : %)

구분	친목 단체	시민 단체	직장 내 동호회	정당	이익 집단
2005년	63.5	10.2	23.6	9.9	7.2
2010년	78.7	21.7	27.9	13.1	8.7
남자	81.0	15.7	33.1	8.3	11.1
여자	76.2	28.1	22.3	11.0	6.1

* 복수 응답 결과임

* 친목 단체 중에서 '직장 내 동호회'는 제외됨

(단, 2010년 갑국의 20~50대 인구는 2005년보다 증가하였다.)

ㄹ. 2005년 대비 2010년 가입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친목 단체이다.



[소득 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 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76,000 (7.8)	79,000 (7.8)	89,000 (8.2)	85,000 (7.9)	86,000 (7.4)
5분위	382,000 (12.9)	404,000 (12.6)	468,000 (14.1)	535,000 (15.8)	643,000 (16.3)

※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계층, 5분위는 소득 상위 20% 계층임

※ ()는 각 소득 계층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③ 1분위와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는 2009년보다 2008년이 크다.

④ 2006년 대비 2010년 월평균 교육비 증가율은 5분위보다 1분위가 크다.



✓ 고2. 2012. 6. 19번 ㄹ. 시민 단체 가입 비율이 10.2%에서 21.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X]

✓ 2013. 3. 19번 ③ 1분위와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는 2009년이 450,000원, 2008년이 379,000원이다. [X]

④ 1분위는 76,000원에서 10,000원만큼 증가하였지만, 5분위는 382,000원에서 261,000만큼 증가하였다. [X]

2013. 4. 20번

<학생 범죄자 범행 동기> (단위: %)

구분	사행심	우발적	호기심	현실불만	기타	계	
2000년	여자	6.2	33.4	27.1	25.2	8.1	100
	남자	2.2	51.7	15.0	21.0	10.1	100
2010년	여자	12.4	33.3	23.6	23.8	6.9	100
	남자	6.6	58.3	14.7	10.5	9.9	100

- * A지역에서 2000년과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 * A지역에서 2000년 대비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남·여 학생 수는 각각 2배임

③ 2000년 대비 2010년에 사행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증가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

2011. 수능 20번

<각국의 인구 부양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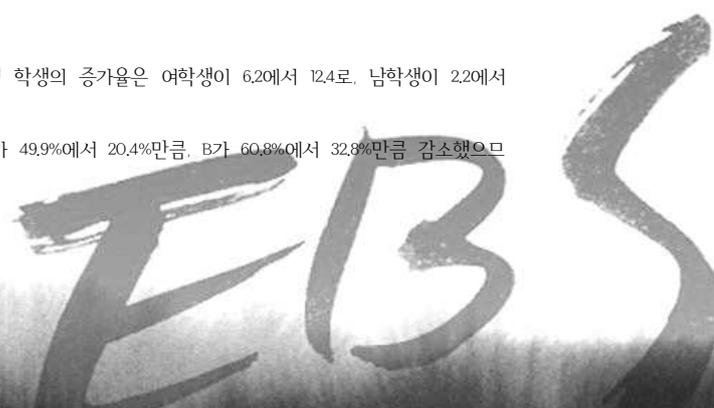
구분	연도	1960	1980	2000
총 부양비*	A	77.9	53.8	37.0
	B	89.5	70.4	50.0
	전국	85.9	60.5	39.4
유소년 부양비**	A	74.0	49.9	29.5
	B	82.4	60.8	28.0
	전국	79.9	54.3	29.2
노년 부양비***	A	3.9	3.9	7.5
	B	7.1	9.6	22.0
	전국	6.0	6.2	10.2

- * 총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⑤ 1980년 대비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A가 B보다 크다.



- ✓ 2013. 4. 20번 ③ 2000년 대비 2010년에 사행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증가율은 여학생이 6.2에서 12.4로, 남학생이 2.2에서 6.6으로 증가했으므로 남학생이 높다. [X]
- ✓ 2011. 수능 20번 ⑤ 1980년 대비 20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A가 49.9%에서 20.4%만큼, B가 60.8%에서 32.8%만큼 감소했으므로 B의 감소율이 더 크다. [X]





2011. 6. 18번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변화>

(단위: %)

연도 및 지역 가구 형태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1인 가구	2.6	2.5	3.0	6.9	6.5	8.8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핵가족 :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기타 가구 :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⑤ 1995년 대비 2005년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2010. 9. 13번

<한부모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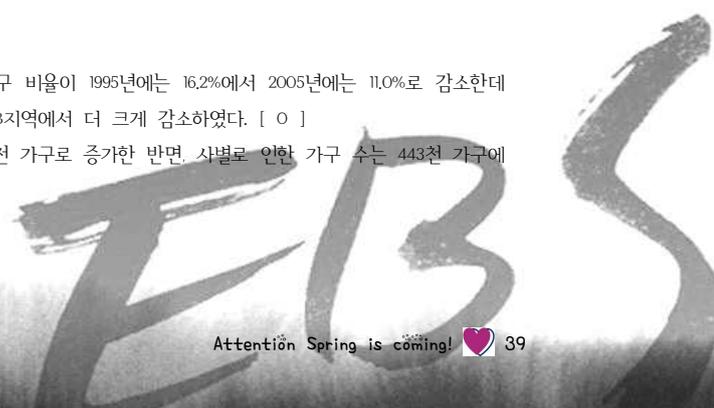
구분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한부모 가구 수 (천 가구)	사별	443	498	526	502	501
	이혼	50	79	124	246	399
	미혼	101	85	94	123	142
	합계	594	662	744	871	1,042
한부모 가구 비율(%)		6.2	5.8	5.7	6.1	6.7

* 한부모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1985년 대비 200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보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 ✓ 2011. 6. 18번 ⑤ A지역에서는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 가구 비율이 1995년에는 16.2%에서 2005년에는 11.0%로 감소한데 비해, B지역에서는 26.3%에서 15.0%로 변화했으므로 A지역보다 B지역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O]
- ✓ 2010. 9. 13번 ⑤ 이혼으로 인한 가구 수는 50천 가구에서 399천 가구로 증가한 반면, 사별로 인한 가구 수는 443천 가구에서 501천 가구로 증가했으므로 틀린 분석이다. [X]





2010. 9.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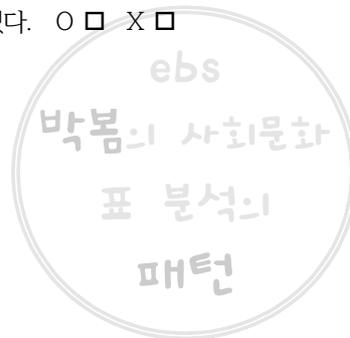
〈다문화 가구 현황 및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다문화 가구 비율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	한글 교육	편견 없애기	기타	
2006년	도시	0.3	17.7	20.8	25.5	29.5	6.5
	농촌	0.7	9.1	17.7	26.2	33.0	14.0
	전국	0.4	15.1	19.9	25.7	30.6	8.7
2008년	도시	1.6	18.1	15.0	31.1	29.0	6.8
	농촌	2.1	13.0	26.8	39.1	17.3	3.8
	전국	1.7	17.0	17.6	32.8	26.4	6.2

- * 전수 조사 결과임.
- ** 다문화 가구 비율은 다문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 전체 가구 수는 도시, 농촌 모두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하였음.

ㄹ. 취업 알선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한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시가 농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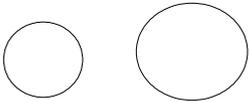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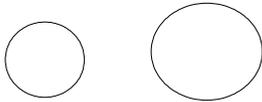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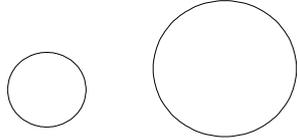
- ✓ 2010. 9. 2번
- ㄹ. 도시는 17.7에서 18.1로 0.4만큼, 농촌은 9.1에서 13.0으로 3.9만큼 증가하였다. [X]



UP 전체와 부분의 증가율

A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단, 전체는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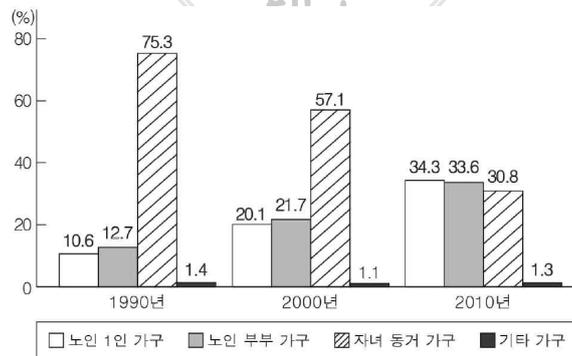
[전체] [부분]

i) 전체 증가율 = 부분 증가율 	ii) 전체 증가율 < 부분 증가율 	iii) 전체 증가율 > 부분 증가율 
---	--	---

패턴 적용

고 2014. 11. 15번

< 노인 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 >



*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ㄴ. 1990년 대비 2000년의 노인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노인 가구 수 증가율보다 크다.



✓ 고2 2014. 11. 15번

ㄴ. 전체 노인 가구에서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높아졌으므로 전체 노인 가구 수 증가율보다 노인 1인 가구 수 증가율이 더 크다. [O]



2013. 9. 10번

<갑국의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단위: %)

가구 유형 \ 연도	2005년	2010년
부부 가구	28.5	32.7
2세대 가구	23.7	24.6
3세대 이상 가구	30.1	23.2
1인 가구	16.1	17.9
기타 가구*	1.6	1.6
계	100.0	100.0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단, 전체 고령자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 2005년 대비 2010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보다 크다.

2012. 수능 4번

ebs
박봄의 사회문화
<갑국 가구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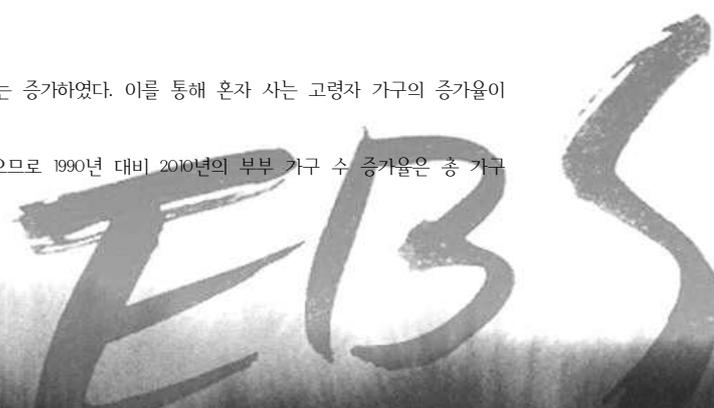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가구 수(천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친족 가구 (%)	부부 가구	10.7	12.8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2	60.8	55.4	49.3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7.0	6.6
1인 가구(%)		9.0	12.7	15.5	20.0	25.1
기타 가구(%)		1.5	1.3	1.1	1.4	1.6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은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더 크다.



- ✓ 2013. 9. 10번 ④ 2005년과 비교하여 2010년 1인 가구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보다 큼을 알 수 있다. [O]
- ✓ 2012. 수능 4번 ㄹ. 2010년의 부부 가구 비율이 1990년보다 높으므로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은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크다. [O]





2011 수능 20번

<갑국의 인구 부양비>

(단위: %)

구분	연도	1960	1980	2000
총 부양비*	A	77.9	53.8	37.0
	B	89.5	70.4	50.0
	전국	85.9	60.5	39.4
유소년 부양비**	A	74.0	49.9	29.5
	B	82.4	60.8	28.0
	전국	79.9	54.3	29.2
노년 부양비***	A	3.9	3.9	7.5
	B	7.1	9.6	22.0
	전국	6.0	6.2	10.2

* 총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④ 1960년 대비 2000년에 A에서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O □ X □



2013. 3. 19번

[소득 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76,000 (7.8)	79,000 (7.8)	89,000 (8.2)	85,000 (7.9)	86,000 (7.4)
5분위	382,000 (12.9)	404,000 (12.6)	468,000 (14.1)	535,000 (15.8)	643,000 (16.3)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계층, 5분위는 소득 상위 20% 계층임

※()는 각 소득 계층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⑤ 2009년 대비 2010년 1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보다 교육비 증가율이 크다. O □ X □

② 2006년 대비 2007년 1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O □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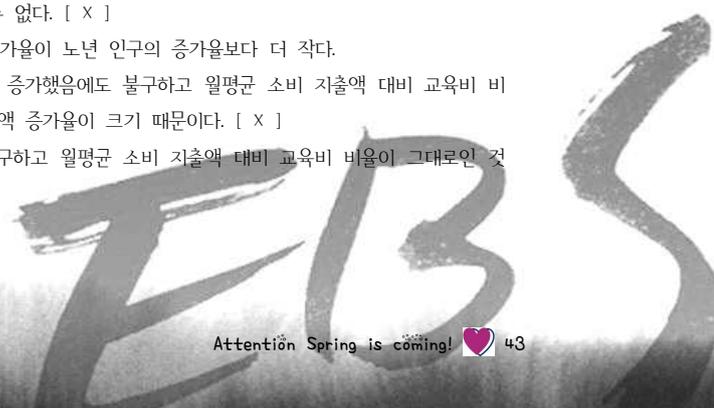
정답 ANSWER

✓ 2011. 수능 20번 ④ 총인구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파악할 수 없다. [X]

만약 부양 인구가 증가한다는 단서가 나왔다면, 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작다.

✓ 2013. 3. 19번 ⑤ 2009년 대비 2010년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이 낮아진 것은 월평균 교육비 증가율보다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X]

② 2006년 대비 2007년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이 그대로인 것은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O]





2014. 7. 15번

<갑국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변화>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성 대비 비율	62.4	62.3	62.6	63.3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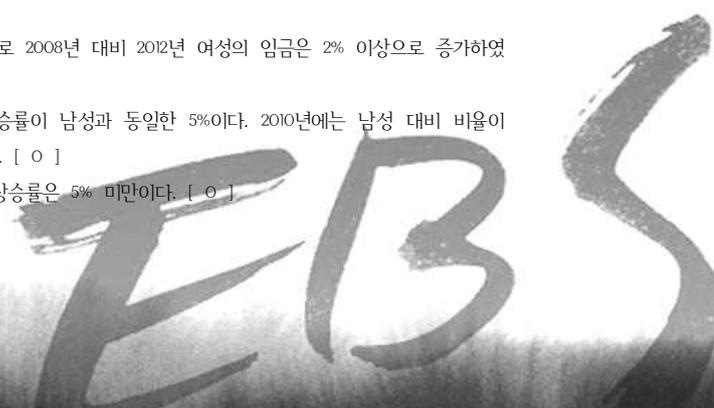
* 남성 대비 비율이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5%씩 증가함.

- ㄱ.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2008년 대비 2012년에 2% 증가하였다.
- ㄷ. 2009년 대비 2010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5%이상이다.
- ㄹ. 2008년 대비 2009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보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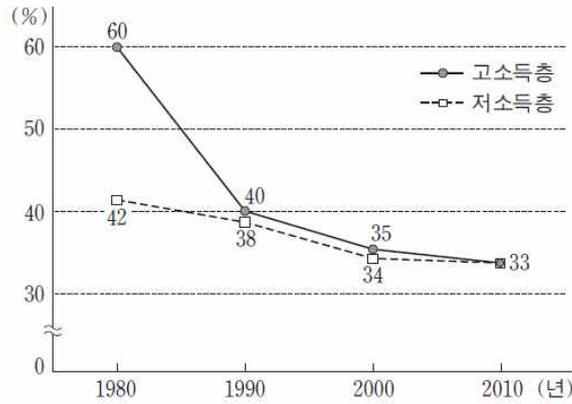
- ✓ 2014. 7. 15번 ㄱ.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남성의 임금은 5% 상승하였고, 남성 대비 비율은 하락하였어도 5%미만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은 증가하였다. [O]
- 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남성의 임금은 5%씩 상승하였으므로 2008년 대비 2012년 여성의 임금은 2%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X]
- ㄷ. 남성 대비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만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과 동일한 5%이다. 2010년에는 남성 대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므로 여성의 임금은 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O]
- ㄹ. 2009년 남성 대비 비율이 62.3%로 감소했으므로 여성의 임금 상승률은 5% 미만이다. [O]





2014. 수능 17번

<갑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



*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남성 평균 임금-여성 평균 임금)÷남성 평균 임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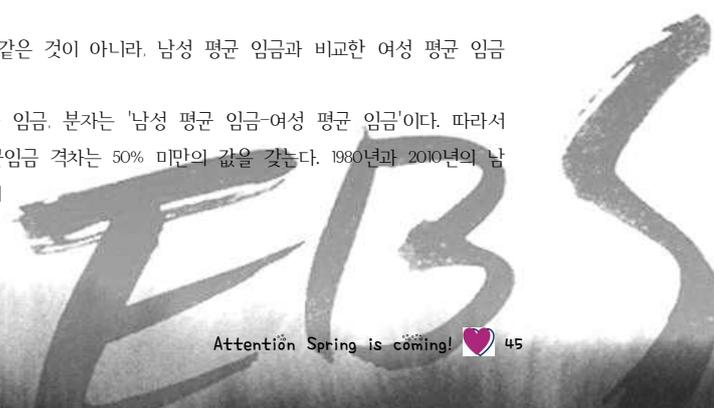
(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① 1980년에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이다.
- ② 1990년에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보다 크다.
-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같다.
- ⑤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 2014. 수능 17번 소득 계층별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의 분석

- ① 1980년 고소득층의 남녀 간 비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X]
- ② 1990년에 저소득층 남녀 평균 간 임금 격차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4%p 감소하였다. 즉, 남성 평균 임금과 비교한 여성 평균 임금의 상대값(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의 값)이 4%p 증가하였다. [X]
-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가 줄었으므로, 여성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남성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더 컸다. [X]
-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남성 평균 임금과 비교한 여성 평균 임금의 상대값이 같을 뿐이다. [X]
- ⑤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를 구하는 공식에서 분모는 남성 평균 임금, 분자는 '남성 평균 임금-여성 평균 임금'이다.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으면 남녀간 평균임금 격차는 50% 미만의 값을 갖는다. 1980년과 2010년의 남녀간 평균임금 격차는 각각 42%와 33%로, 50% 미만이다. [O]



5 Pattern []이 있다!

2012. 9. 15번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설문 내용 :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고르시오.'

○ 응답 결과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건강 문제	실업	경로 의식 약화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계	
지역	도시	40.2	16.5	22.6	15.0	1.4	4.3	100.0
	농촌	45.2	4.5	30.7	7.3	7.8	4.5	100.0
성별	남	46.9	8.0	23.0	4.8	1.3	16.0	100.0
	여	40.7	12.5	30.4	7.3	1.3	7.8	100.0

ㄱ. 도시 거주 노인의 15%는 직업이 없다.

2013. 9. 10번

< 갑국의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

(단위: %)

가구 유형 \ 연도	2005년	2010년
부부 가구	28.5	32.7
2세대 가구	23.7	24.6
3세대 이상 가구	30.1	23.2
1인 가구	16.1	17.9
기타 가구*	1.6	1.6
계	100.0	100.0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① 2세대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2. 9. 1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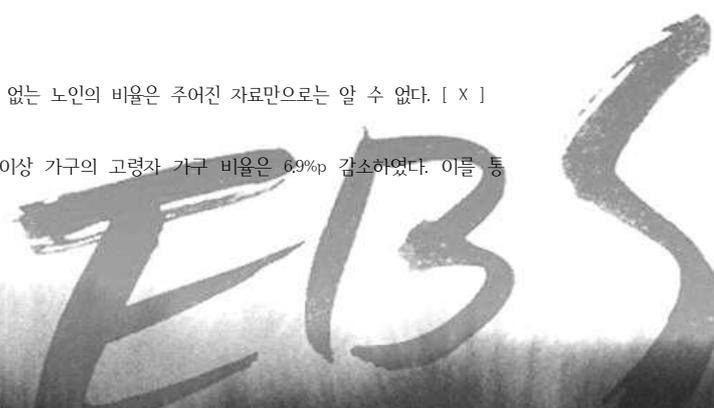
ㄱ. 노인들이 느끼는 문제 중 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일뿐 직업이 없는 노인의 비율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X]

2013. 9. 10번

① 2세대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0.9%p 증가하였지만, 3세대 이상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6.9%p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2세대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6%p 감소하였다. [X]

정답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1. 수능 12번

< A ~ C지역 가구 구성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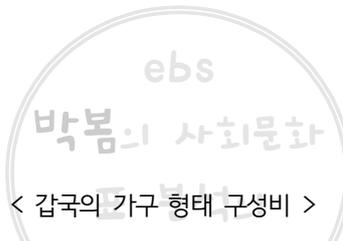
가구 구성 지역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기타 가구*	소계
		(한)부모+ 미혼 자녀	(한)부모+ 기혼 자녀			
A	5	65	16	2	12	100
B	16	55	10	6	13	100
C	12	40	25	20	3	100

- * 기타 가구: 1인 가구,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
-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이상의 가족

- ②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B이다.
- ④ A는 C보다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다.



2011. 6. 18번



<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

(단위: %)

연도 및 가구 형태 지역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 핵가족: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확대 가족: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기타 가구: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 ② 2005년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높다.



- ✓ 2011. 수능 12번 ② 기타 가구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도 포함되므로 알 수 없다. [X]
- ④ A가 83%, C가 85%이므로 C의 2세대 이상 가구 비중이 더 높다. [X]
- ✓ 2011. 6. 18번 ② 표를 통해서만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을 알 수 없다. [X]



2012. 6. 18번

< 갑국 A, B 지역 가구 구성 현황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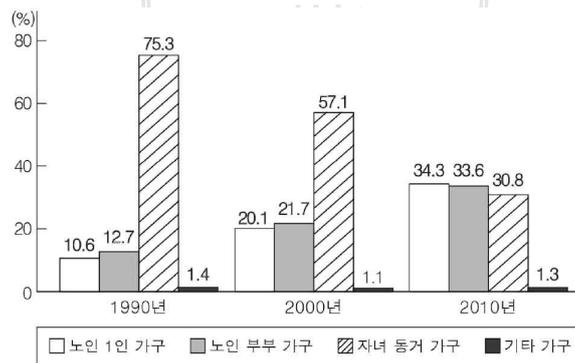
구분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
A	88.7	6.5	4.8	100.0	95.5	4.5	100.0
B	83.4	11.3	5.3	100.0	98.5	1.5	100.0
전국	87.7	7.4	4.9	100.0	96.1	3.9	100.0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① A에서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비는 88.7%이다.
- ⑤ B는 A보다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고2 2014. 11. 15번

< 노인 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 >



*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 ㄱ. 1990년의 노인 부부 가구 인구는 노인 1인 가구 인구의 2배보다 적다.

정답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 2012. 6. 18번

① 핵가족 비율에는 부부 1세대 핵가족과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의 구성비가 합쳐진 것이다. [X]

⑤ 1인 가구가 독거 노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은 알 수 없다. [X]

✓ 고2 2014. 11. 15번 ㄱ. 노인 부부 가구의 가구원 수는 노인 1인 가구의 가구원 수의 2배이다. 1990년의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노인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더 높으므로 인구도 2배보다 많다. [X]

2012. 수능 4번

<갑국 가구 구성의 변화>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가구 수(천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친족 가구 (%)	부부 가구	10.7	12.8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2	60.8	55.4	49.3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7.0	6.6
1인 가구(%)		9.0	12.7	15.5	20.0	25.1
기타 가구(%)		1.5	1.3	1.1	1.4	1.6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ㄱ. 1995년에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2014. 9. 10번

갑국과 을국의 가족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갑국의 가구 수는 을국의 두 배이다.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부부	2세대	3세대 이상		
갑국	8.0	69.0 (9.0)	12.0	9.5	1.5
을국	16.0	49.0 (14.0)	7.0	25.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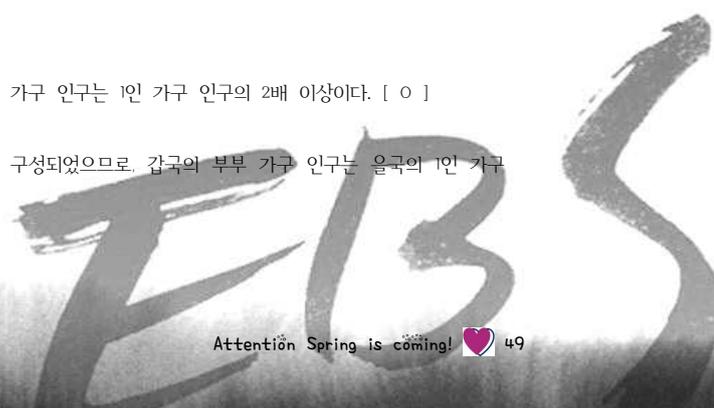
* ()는 전체 가구 대비 기혼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의 비율임.
 ** 기타 가구는 조손 가구 및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등을 포함함.

ㄴ. 갑국의 부부 가구 인구는 을국의 1인 가구 인구보다 더 많다.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 ✓ 2012. 수능 4번
- ㄱ. 1995년 부부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므로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O]
- ✓ 2014. 9. 10번
- ㄴ. 갑국의 가구 수가 을국의 두 배가 되고 부부 가구는 2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갑국의 부부 가구 인구는 을국의 1인 가구 인구보다 더 많다. [O]





고2 2015. 3. 20번

< 갑국의 구성 형태별 가구 수의 변화 >

(단위 : 천 가구)

구분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1990년	2,665	6,670	133	1,537	250
2000년	3,703	5,863	95	2,788	331
2010년	4,756	5,065	65	4,025	378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ㄴ. 1990년 3세대 이상 가구 인구는 2010년의 2배 이상이다.



2009. 수능 3번

<A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의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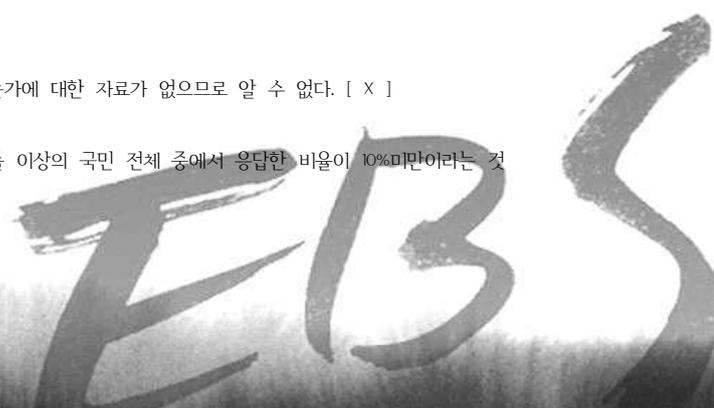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학력 수준	생활이 편리해졌다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			
		그렇다	이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렇다	이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2000년	중졸 이하	78.2	10.1	3.7	8.0	63.6	14.7	8.8	12.9
	고 졸	82.5	11.1	2.7	3.7	71.0	14.1	7.7	7.2
	대졸 이상	86.7	9.6	2.2	1.5	78.1	12.6	5.9	3.4
2007년	중졸 이하	68.2	17.1	7.5	7.2	47.3	25.2	15.3	12.2
	고 졸	73.6	15.3	5.9	5.2	55.9	22.1	12.1	9.9
	대졸 이상	82.8	11.4	3.7	2.1	67.3	18.5	9.8	4.4

ㄷ. 2007년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중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이다.



- ✓ 고2 2015. 3. 20번 ㄴ. 3세대 이상 가구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X]
- ✓ 2009. 수능 3번
- ㄷ.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9.8%라는 것이지, 대졸 이상의 국민 전체 중에서 응답한 비율이 10%미만이라는 것은 아니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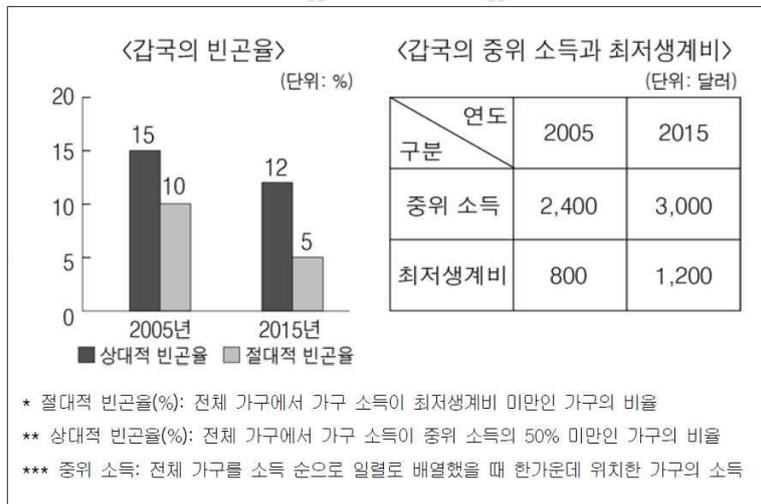
02 빈곤 표 분석의 패턴

개념check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기준 : _____	기준 : _____
_____	_____



고2 2015, 9, 10번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ㄴ. 2005년의 상대적 빈곤선과 2015년의 절대적 빈곤선은 일치한다. O X
- ㄷ. 2005년보다 2015년의 최상위 소득과 최저생계비 간의 격차가 더 크다. O X

✓ 고2 2015, 9, 10번

- ㄴ. 2005년의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2015년의 절대적 빈곤선 1,200달러와 동일하다. [O]
 ㄷ. 각 시기 최상위 소득은 파악할 수 없다. [X]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 소득이란 한 나라의 전체 소득을 가구 수로 나눈 것이라면, [] 소득은 소득 상위 가구부터 하위 가구까지 한 줄로 세운 다음, 그 줄의 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9가구만 존재하는 가상의 A국과 B국을 비교해 보자.

[단위:만원]

구분	가구1	가구2	가구3	가구4	가구5	가구6	가구7	가구8	가구9	합계
A국	2,200	1,450	480	350	200	150	100	50	20	5,000
B국	800	750	700	650	550	500	400	350	300	5,000

이 경우, 두 나라의 중위 소득은 모두 []번째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 소득은 A국과 B국이 동일하지만, [] 소득은 A국은 200만원이고, B국은 550만 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눈에 봐도 A국이 B국보다 소득의 분포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 수완 88p 3번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00년	2006년	2012년
전체 가구	절대 빈곤 가구 비율	8.7	8.3	8.0
	상대 빈곤 가구 비율	8.4	13.5	16.8
여성 가구	절대 빈곤 가구 비율	20.5	22.0	22.3
	상대 빈곤 가구 비율	22.8	27.7	34.5
노인 가구	절대 빈곤 가구 비율	33.2	34.1	35.9
	상대 빈곤 가구 비율	37.9	44.5	50.1

*절대 빈곤 가구 비율(%): 최저 생계비 미만 소득인 가구 비율

**상대 빈곤 가구 비율(%): 중위 소득(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서열 중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의 절반 미만 소득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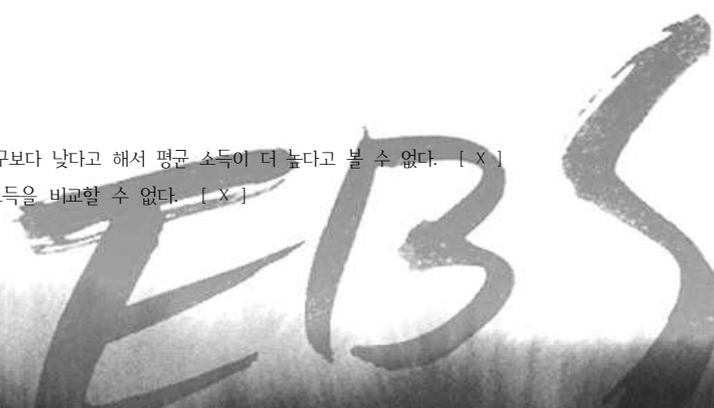
- ③ 2006년 여성 가구의 평균 소득은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높다.
- ⑤ 2012년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분의 1미만이다.



✓ 2014 수능완성 88p 3번

③ 2006년 여성 가구의 절대 빈곤 비율과 상대 빈곤 비율이 노인 가구보다 낮다고 해서 평균 소득이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X]

⑤ 2012년의 전체 가구와 노인 가구의 빈곤 비율을 가지고 평균 소득을 비교할 수 없다. [X]



2015 수능에 모든 패턴이 다 들어있다!

2015. 수능 9번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PATTERN 1 전체 소득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율

ㄱ.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PATTERN 2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포함 관계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PATTERN 3 소득 불평등 적용

ㄷ. 2010년 대비 2011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PATTERN 4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

ㄹ.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 2015. 수능 9번

ㄱ. 2010년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7.5%이다. 따라서 2010년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7.5%가 되지 않는다. [O]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O]

ㄷ. 도시와 농촌 모두 2010년보다 2011년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0년 대비 2011년에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X]

ㄹ.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다. 도시의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3.5%, 2011년에는 5%이고, 도시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4.5%, 2011년에는 4%이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모두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의 2배가 되지 못한다. [X]



2015. 9. 10번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었으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A	5	7	10
B	9	7	5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ㄴ.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의 소득 점유 비중은 1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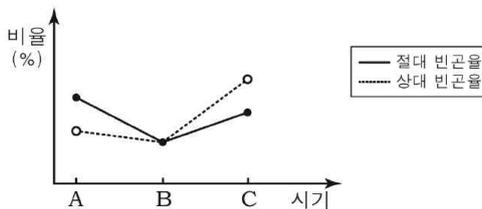


2014. 4. 12번

ebs
박봄의 사회문화

<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 >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다.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㉟ C시점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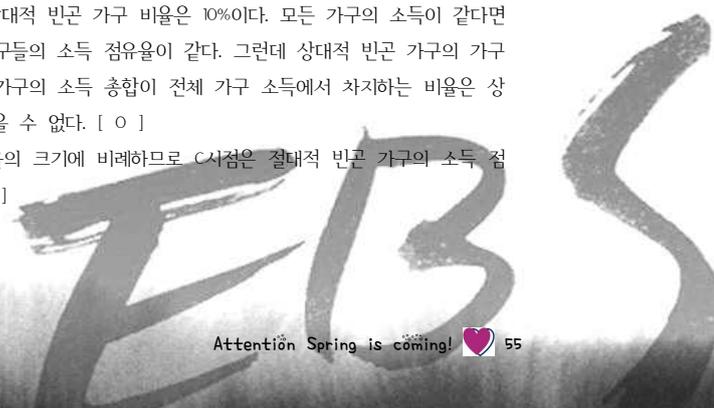


정답
ANSWER

✓ 2015. 9. 10번 ㄴ. 2010년에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10%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같다면 특정 수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특정 가구들의 소득 점유율이 같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 가구의 가구 별 소득은 모두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으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총합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을 수 없다. [O]

✓ 2014. 4. 12번 ㉟ 갑국에서는 소득 점유 비중이 해당 가구 비율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C시점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고2, 2015. 11. 15번

〈 갑국의 빈곤율 〉

구 분		2010년	2014년
절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3	2
	여성 가구주 가구	10	13
상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6	6
	여성 가구주 가구	2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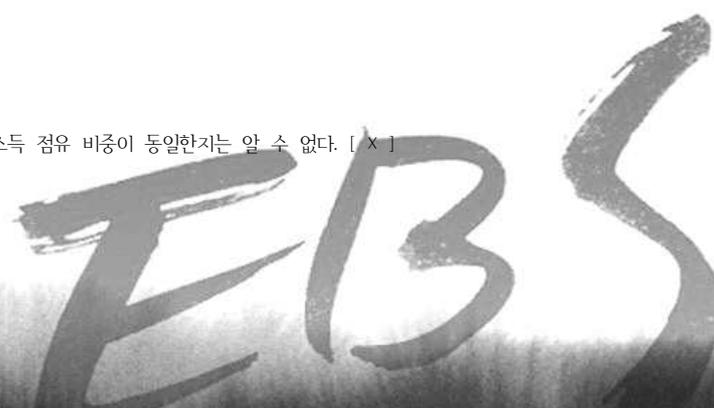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ㄹ.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남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 비중은 2010년과 2014년이 동일하다.



✓ 고2, 2015. 11. 15번
 ㄹ.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6%로 동일한 것이지, 소득 점유 비중이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 [X]



2 Pattern —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포함관계

2015. 수능 9번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1) 단서에 주의한다!
 2) 농촌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구해야 한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농촌 가구	절대적 빈곤율(%)	10.5	12
	상대적 빈곤율(%)	12	15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고2, 2015. 11. 15번

< 갑국의 빈곤율 >

구 분		2010년	2014년
절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3	2
	여성 가구주 가구	10	13
상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6	6
	여성 가구주 가구	2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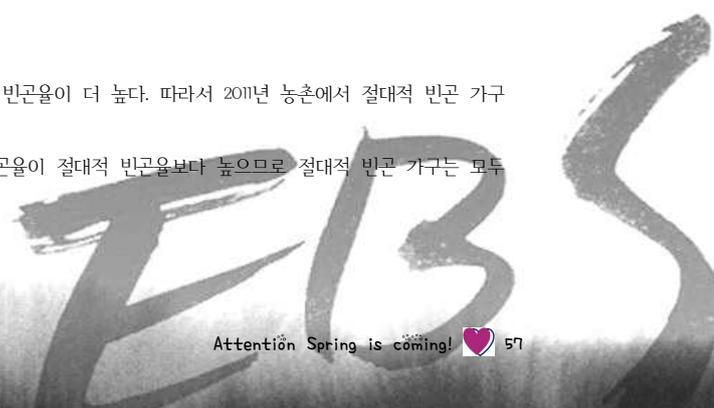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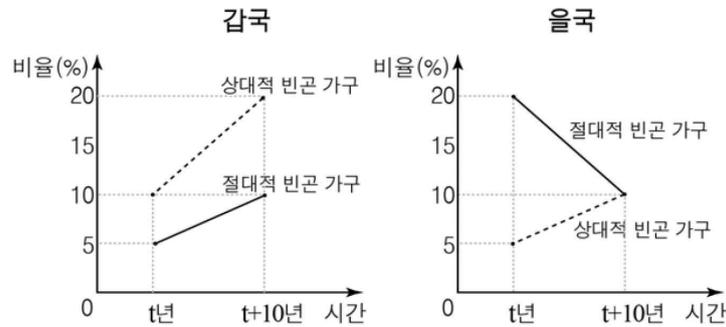
ㄱ. 2010년에 남성 가구주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 2015. 수능 9번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O]
- ✓ 고2 2015. 11. 15번 ㄱ. 2010년에 남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X]



2015. 7.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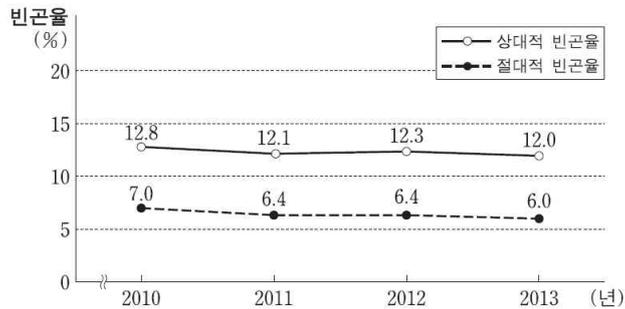
-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7.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2015. 6. 1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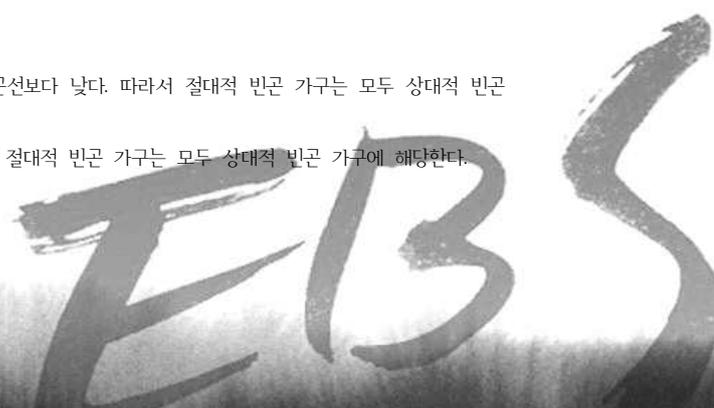
- * 상대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①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 ✓ 2015. 7. 10번 7.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O]
- ✓ 2015. 6. 15번 ①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X]





2015. 9.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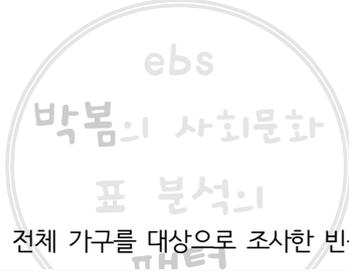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었으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A	5	7	10
B	9	7	5

-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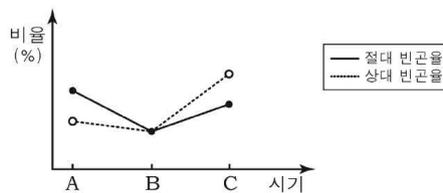
ㄱ. 200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2014. 4. 12번

<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 >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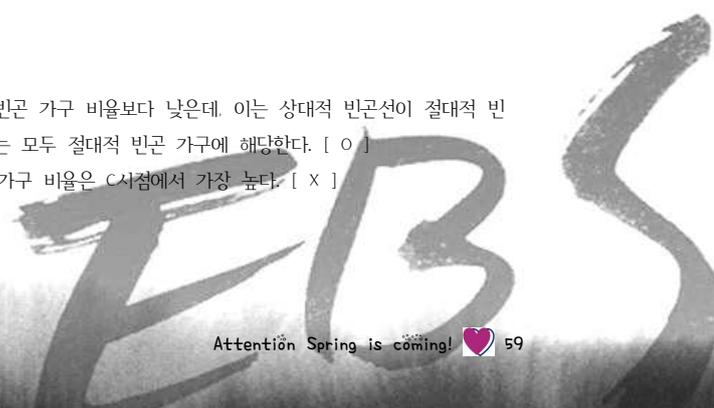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되는 가구 비율은 C시점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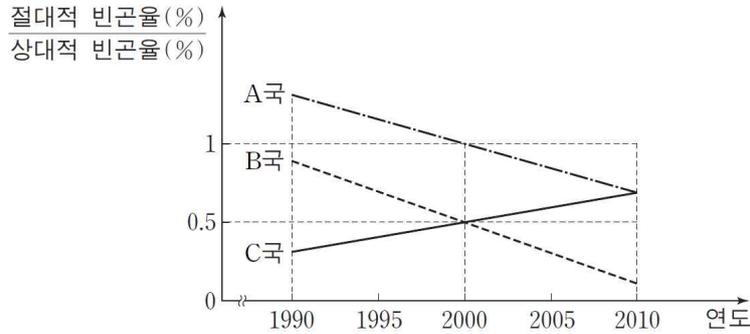


- ✓ 2015. 9. 10번 ㄱ. 200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낮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O]
- ✓ 2014. 4. 12번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은 C시점에서 가장 높다. [X]





2016. 9. 11번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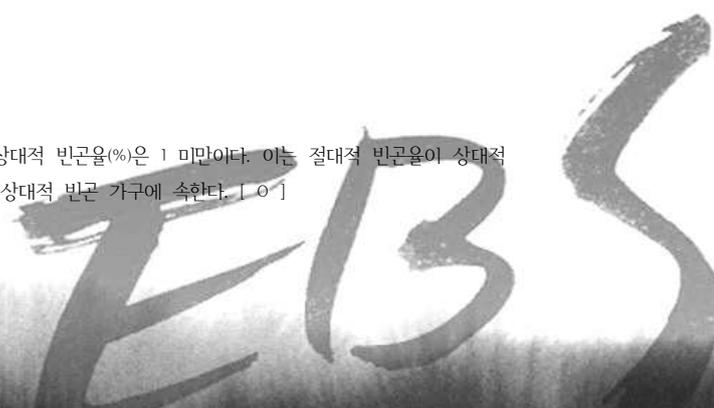
○ □ X □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 2016. 9. 11번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은 1 미만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작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O]





2016. 6. 10번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A) 대비 상대적 빈곤 가구 수(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 모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갑국과 을국 각각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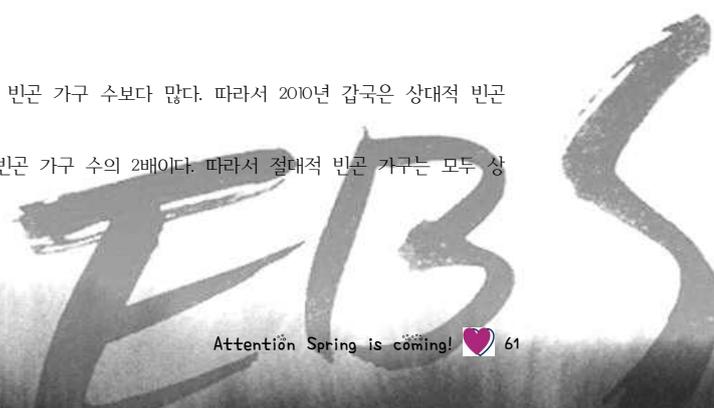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갑국(B/A)	0.25	1	1.5
을국(B/A)	2	1	0.5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⑤ 2010년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낮다.
- ② 2000년에 을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 2016. 6. 10번
- ⑤ 2010년 갑국의 B/A가 1.5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보다 많다. 따라서 2010년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높다. [X]
- ② 2000년 을국의 B/A가 2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X]



3 Pattern 소득 불평등

2015. 수능 9번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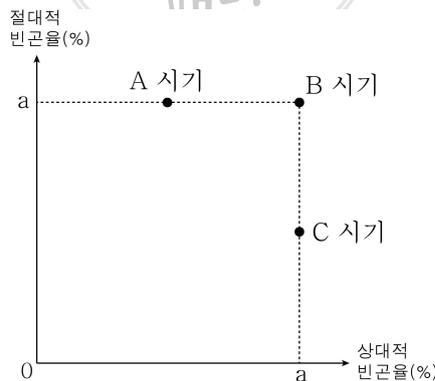
- 1) 단서에 주의한다.
 2) 농촌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구해야 한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농촌 가구	절대적 빈곤율(%)	10.5	12
	상대적 빈곤율(%)	12	15

㉔. 2010년 대비 2011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4. 10. 18번

< 갑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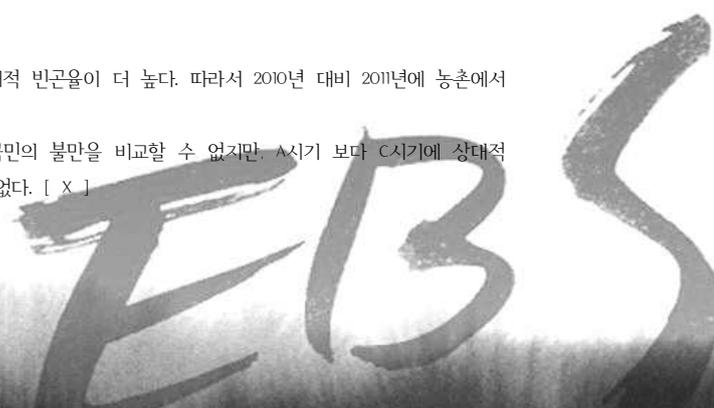
-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A시기가 C시기보다 높다.

정답
ANSWER

- ✓ 2015. 수능 9번 ㉔. 도시와 농촌 모두 2010년보다 2011년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0년 대비 2011년에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X]
- ✓ 2014. 10. 18번 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비교할 수 없지만, A시기 보다 C시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므로 C시기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Pattern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2015. 수능 9번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상대적 빈곤율(%)	10.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상대적 빈곤율(%)	8.0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1) 단서에 주의한다!
- 2) 농촌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구해야 한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농촌 가구	절대적 빈곤율(%)	10.5
	상대적 빈곤율(%)	15

ㄹ.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X



고2, 2015. 11. 15학

< 갑국의 빈곤율 >

구 분		2010년	2014년
절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3	2
	여성 가구주 가구	10	13
상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6	6
	여성 가구주 가구	21	26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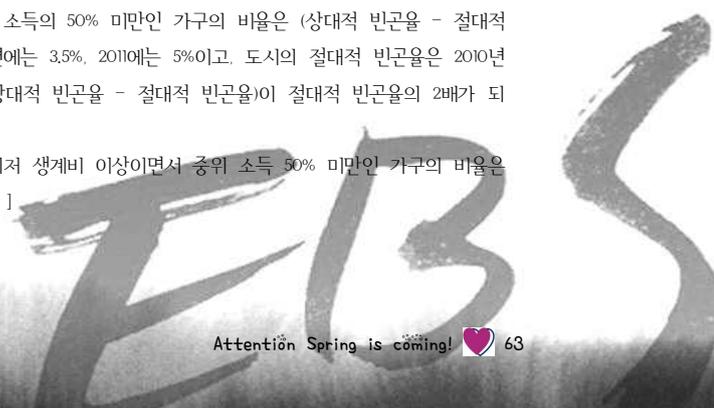
ㄴ. 2010년에 여성 가구주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보다 많다. X



ANSWER

- ✓ 2015. 수능 9번 ㄹ.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다. 도시의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3.5%, 2011년에는 5%이고, 도시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4.5%, 2011년에는 4%이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모두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의 2배가 되지 못한다. [X]
- ✓ 고2 2015. 11. 15학 ㄴ. 2010년의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1%이므로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10%보다 크다. [O]

ebs
 봄봄의
 사회문화



UP 빈곤선과 빈곤율

i) 빈곤선 [같] → 빈곤율 [같]

ii) 빈곤율 [같] → 빈곤선 [] or []

2015. 9. 10번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었으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A	5	7	10
B	9	7	5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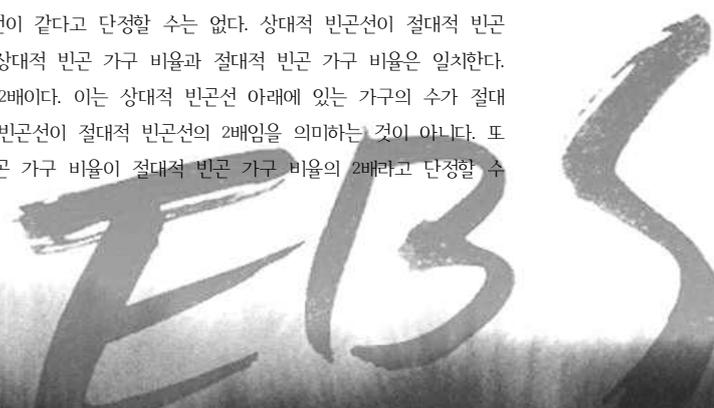
ㄹ. 2005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일치하며, 2010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의 2배이다.

○ □ X □



✓ 2015. 9.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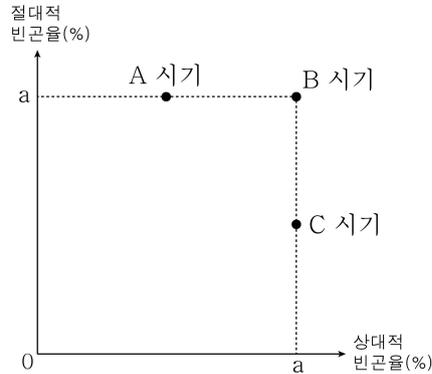
ㄹ.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같으면 표의 2005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같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이 일치하지 않아도 두 선 사이에 위치하는 가구가 없다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일치한다.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2배이다. 이는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의 수가 절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 수의 2배임을 의미할 뿐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의 2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의 2배라고 해도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2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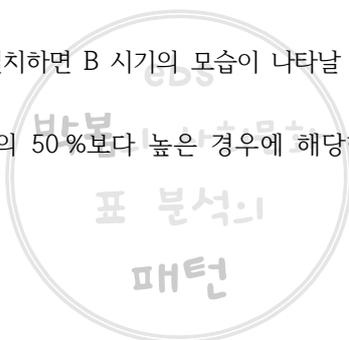
2014. 10. 18번

< 갑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 >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① A 시기와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
- ③ 중위 소득의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B 시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C 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ANSWER

- ✓ 2014. 10. 18번
- ① 빈곤율이 같다고 최저 생계비가 같은 것은 아니다. [X]
- ③ 중위 소득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동일하게 된다. [O]
- ④ C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 50%보다 낮다. [X]

ebs
봄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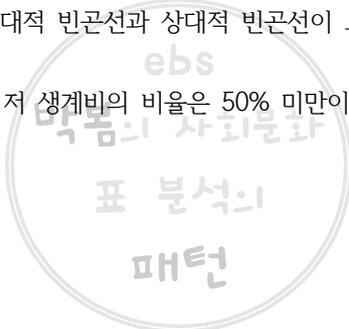
2016. 6. 10번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A) 대비 상대적 빈곤 가구 수(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 모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갑국과 을국 각각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갑국(B/A)	0.25	1	1.5
을국(B/A)	2	1	0.5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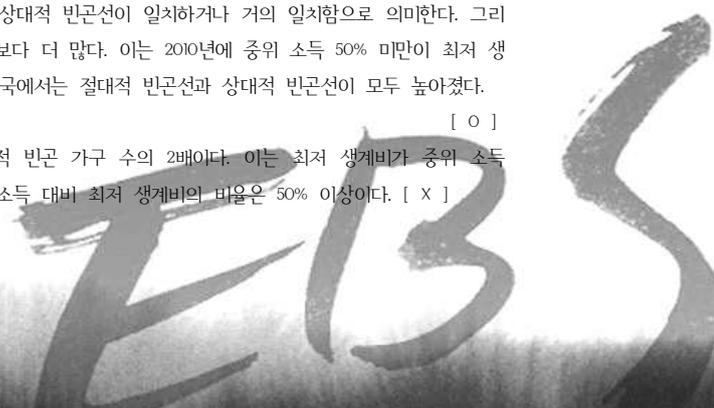
- ① 2000년에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의 4배이다. X
- ③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모두 높아졌다. X
- ④ 2010년에 을국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X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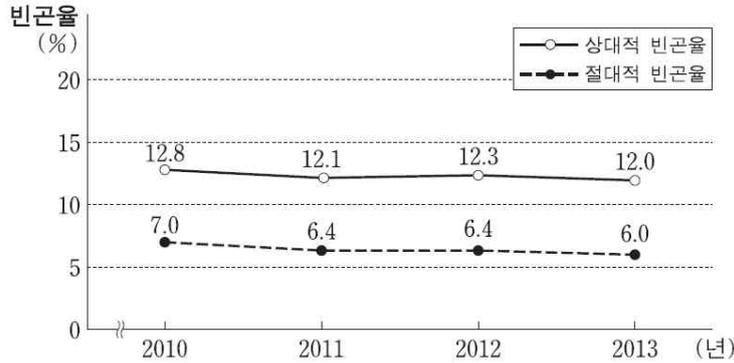
✓ 2016. 6. 10번

- ① B/A가 0.25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4배라는 것을 의미할 뿐,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의 4배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X]
- ③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이며,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다. 제시문의 조건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같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함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갑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보다 더 많다. 이는 2010년에 중위 소득 50% 미만이 최저 생계비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모두 높아졌다. [O]
- ④ 2010년 을국의 B/A가 0.5이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 50%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0년에 을국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X]



2015. 6. 15번

< 갑국의 빈곤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④ 2013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이다.
-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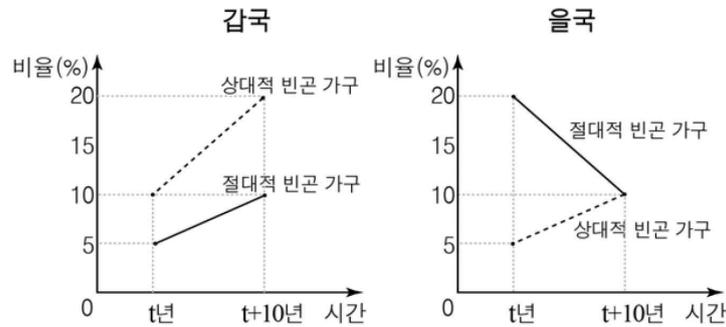
✓ 2015. 6. 15번

- ④ 2013년에 상대적 빈곤 비율이 절대적 빈곤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중위 소득 50%가 최저생계비보다 높을 뿐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라고 할 수 없다. [X]
-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이 절대적 빈곤층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고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이므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5. 7. 10번



-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ㄴ. 갑국에서 t+10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ㄷ. 을국에서 t년에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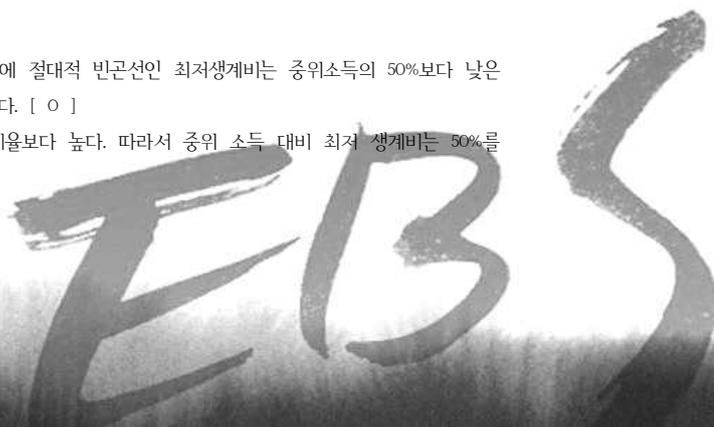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 ✓ 2015. 7. 10번
- ㄴ. t+10년에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수준이 되므로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O]
- ㄷ. 을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는 50%를 초과한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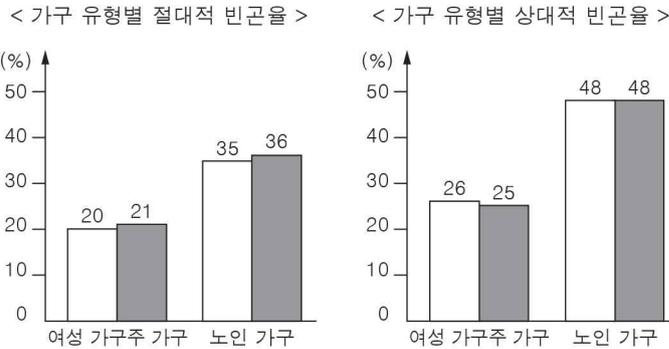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5. 4. 1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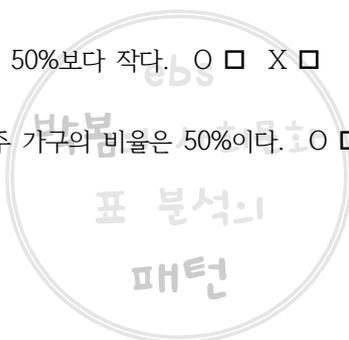
< 갑국의 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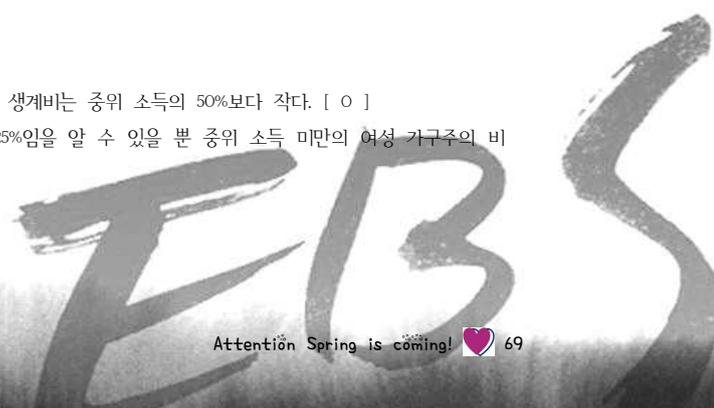
-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당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각 가구 유형별 전체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 ㄱ. 2012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O X
- ㄴ. 2013년 중위 소득 미만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0%이다. O X



- ✓ 2015. 4. 14번
- ㄱ. 2012년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O]
- ㄴ. 자료를 통해 2013년 중위 소득의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이 25%임을 알 수 있을 뿐 중위 소득 미만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알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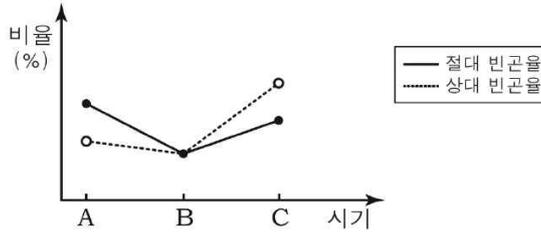




2014. 4. 12번

<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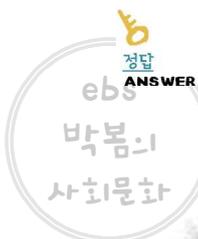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다.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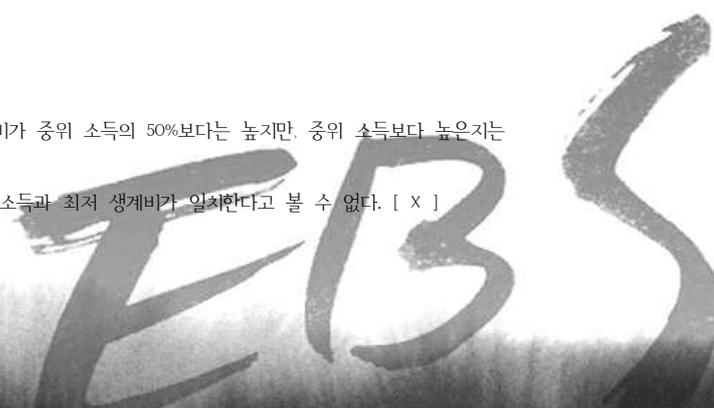
① A시점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보다 높다. O X

② B시점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일치한다. O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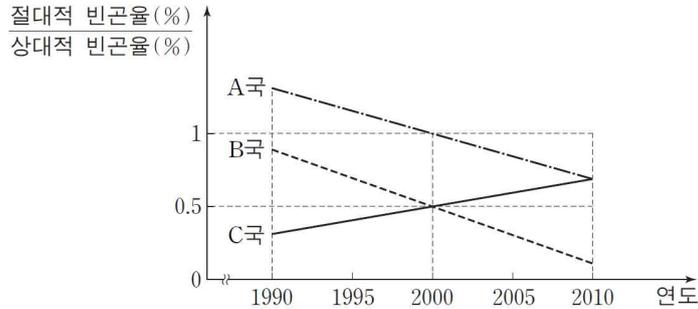


✓ 2014. 4. 12번

- ① A 시점은 절대 빈곤율이 상대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는 높지만, 중위 소득보다 높은지는 알 수 없다. [X]
- ② B 시점에서는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이 같을 뿐 중위 소득과 최저 생계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X]



2016. 9. 1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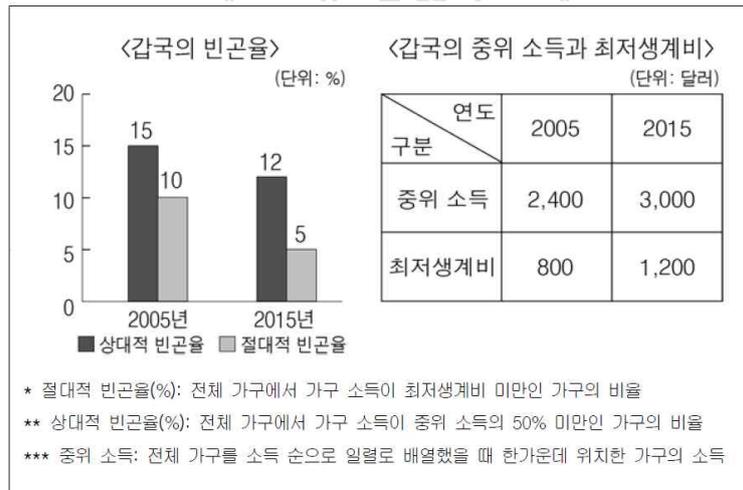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중위 소득의 1/2이 최저생계비보다 크다.

고2 2015. 9. 10번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ㄱ. 2015년 전체 가구 중 소득 1,200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5% 미만이다.

정답
ANSWFR

ebs
박봄의
사회문화

- ✓ 2016. 9. 11번
-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은 1 미만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보다 작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위소득의 1/2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 [O]
- ✓ 고2 2015. 9. 10번
- ㄱ. 주어진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X]

5

Pattern

비율과 수

2015. 3. 12번

갑국의 빈곤 탈출률과 진입률

(단위 : %)

가구주의 연령대	빈곤 탈출률 (2012년 빈곤층 → 2013년 비빈곤층)	빈곤 진입률 (2012년 비빈곤층 → 2013년 빈곤층)
40세 미만	40	10
40세 이상 60세 미만	25	20
60세 이상	10	50
전체	25	25

* 2012년 빈곤층 가구는 총가구의 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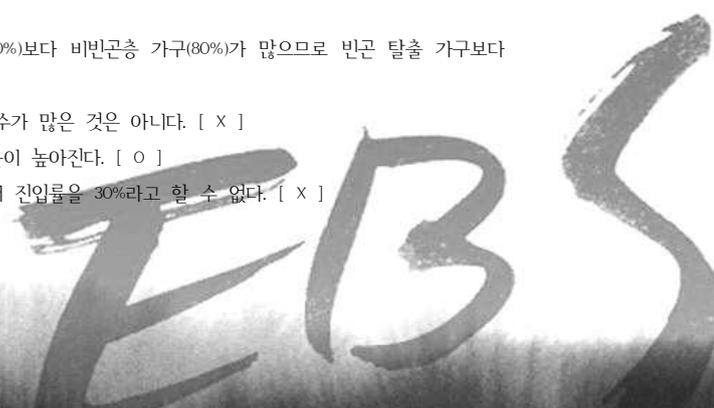
- ㄱ.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X
- ㄴ.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빈곤을 탈출한 가구가 많다. X
- ㄷ.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률은 낮고, 진입률은 높다. X
- ㄹ.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비빈곤층의 빈곤 진입률은 30%이다. X

b
정답
ANSWER

✓ 2015. 3 12번

- ㄱ.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이 같지만 2012년에 빈곤층 가구(20%)보다 비빈곤층 가구(80%)가 많으므로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O]
- ㄴ. 연령대별 가구주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비율이 높다고 가구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X]
- ㄷ.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 비율이 낮아지고, 빈곤 진입 비율이 높아진다. [O]
- ㄹ. 연령대별 가구주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비율을 더해서 진입률을 30%라고 할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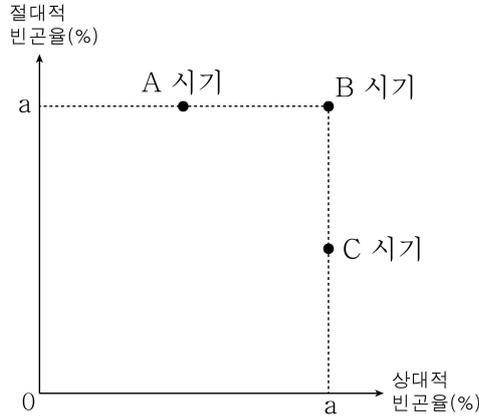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4. 10. 18번

< 갑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 >



-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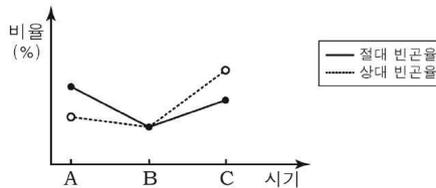
② B시기에 비해 C시기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작다.



2014. 4. 12번

<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 >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다.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③ C시점은 B시점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많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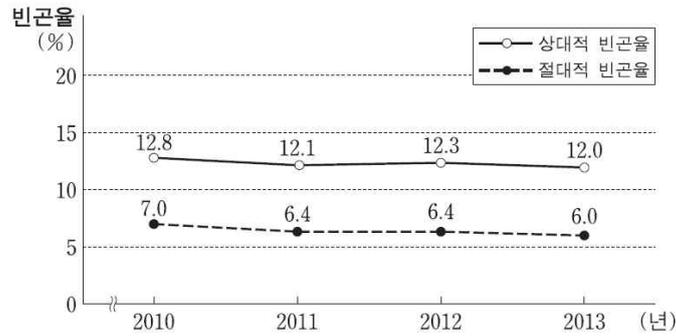
ebs
봄봄의
사회문화

- ✓ 2014. 10. 18번
- ② 시기별 전체 가구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C시기의 빈곤율이 낮다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X]
- ✓ 2014. 4. 12번
- ③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만 나왔을 뿐 전체 가구 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다. [X]



2015. 6. 15번

< 갑국의 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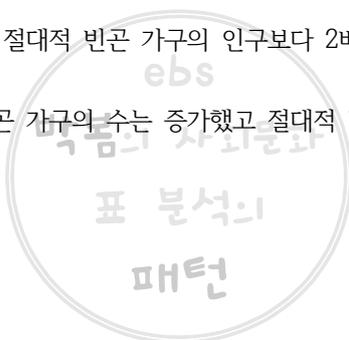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②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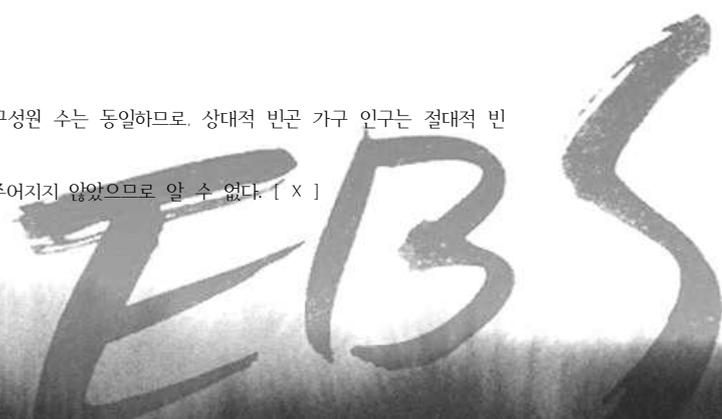
③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 2015. 6. 15번

② 상대적 빈곤율은 12.1%이고 절대적 빈곤율은 6.4%이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 인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 [X]

③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만 나왔을 뿐 전체 가구 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다. [X]





고2 2015. 11. 15번

〈 갑국의 빈곤율 〉

구 분		2010년	2014년
절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3	2
	여성 가구주 가구	10	13
상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6	6
	여성 가구주 가구	2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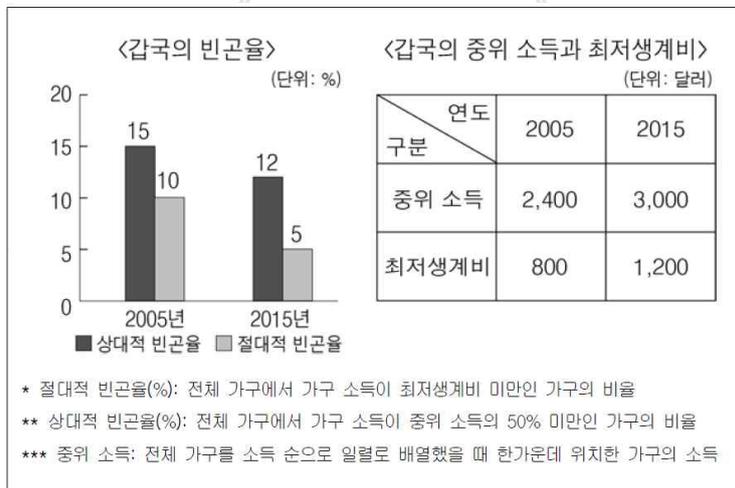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 ㄷ. 2014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크다. X



고2 2015. 9. 10번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ㄹ. 2015년 대비 2005년의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갑국의 인구는 2배이다. X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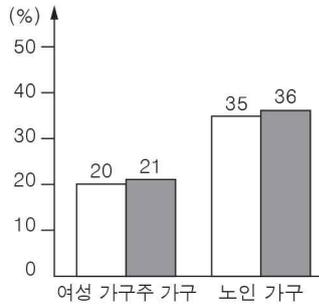
ebs
 박봄의
 사회문화

- ✓ 고2 2015. 11. 15번
 ㄷ. 2014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여성 가구주 가구는 13/26, 남성 가구주 가구는 2/60이다. [O]
 ✓ 고2 2015. 9. 10번
 ㄹ.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2005년 10%, 2015년 5%이다. 갑국 전체의 가구 수는 변화가 없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므로, 2배라고 할 수 있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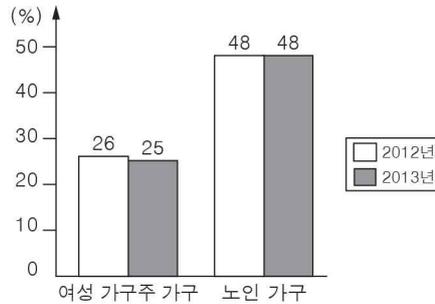


2015. 4. 14번

< 가구 유형별 절대적 빈곤율 >



< 가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



-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당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각 가구 유형별 전체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ㄷ. 2012년 대비 2013년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X

ㄹ. 2012년, 2013년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노인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많다. X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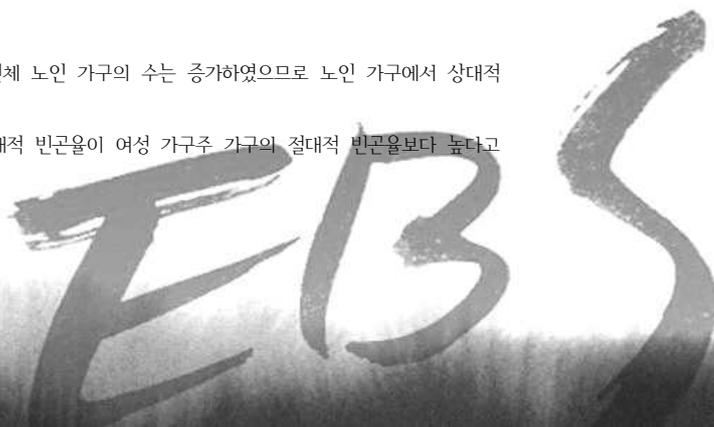
정답
ANSWER

✓ 2015. 4. 14번

ㄷ. 2012년 대비 2013년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는 없고, 전체 노인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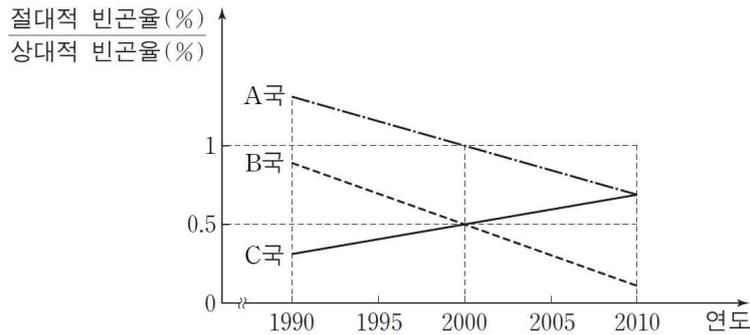
ㄹ. 각 유형별 전체 가구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인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UP 증가율과 감소율

2016. 9. 11번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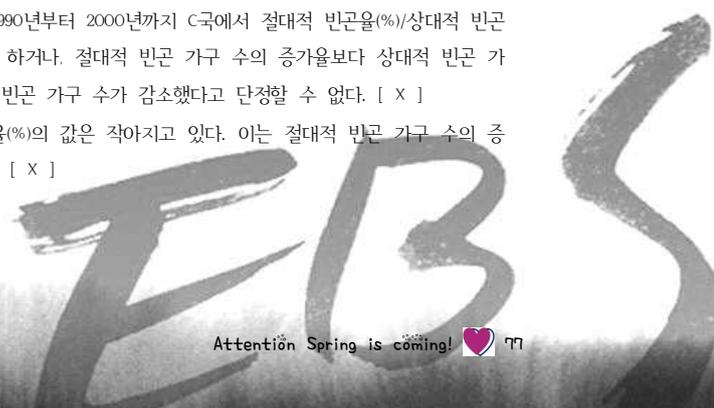
-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 X
-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 X



2016. 9. 11번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에서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클 때 나타나므로,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단서에 의해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국에서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커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거나,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작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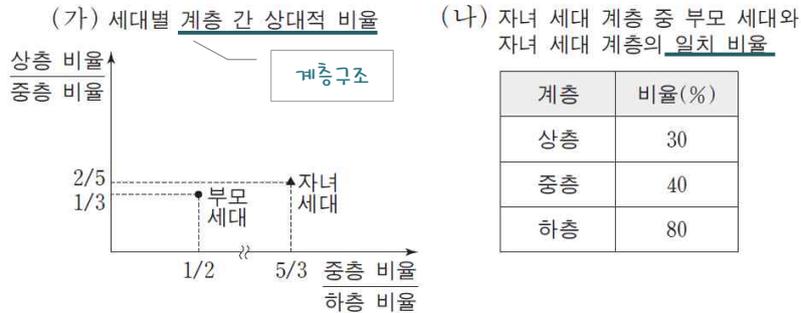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율(%) / 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클 때 나타난다. [X]



03 계층 표 분석의 패턴

2014. 수능 20번

(가), (나)는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3점]



- ㄱ.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이다.
- ㄴ.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낮다.
- ㄷ.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며 개방적이다.
- ㄹ.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더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014. 수능 20번

(가)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는 1 : 3 : 6이고, 자녀 세대의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는 2 : 5 : 30이다.

- ㄱ.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일치 비율이 50%이므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이다.
- ㄴ.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도 상층인 경우는 전체의 6%이다. 부모 세대 상층은 전체의 10%이므로, 부모 세대 상층의 계층 대물림 비율은 60%(6/10)이다. 부모가 중층이고 자녀도 중층인 경우는 전체의 20%이다. 부모 세대 중층은 전체의 30%이므로, 부모 세대 중층의 계층 대물림 비율은 약 67%(20/30)이다. 부모가 하층이고 자녀도 하층인 경우는 전체의 24%이다. 부모 세대 하층은 전체의 60%이므로, 부모 세대 하층의 계층 대물림 비율은 40%(24/60)이다. 부모 세대 하층의 대물림 비율이 가장 낮다.
- ㄷ.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더 개방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 ㄹ. 부모 세대 상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4%이다. 부모 세대 하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36%이다. 부모 세대 중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10%이다. 이들 10%가 모두 하강 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는 전체의 86%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는 전체의 14%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더 많다. ①

1 Pattern — 표 분석 기본형

- 기본형에서 ⇨
- 계층 구조
 - 수직 이동의 비율
 - 일치 비율

2012. 9. 8번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5	12	5	22
중층	16	30	18	64
하층	4	8	2	14
계	25	50	25	100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계
상층	15	1	3	19
중층	2	28	28	58
하층	1	2	20	23
계	18	31	51	100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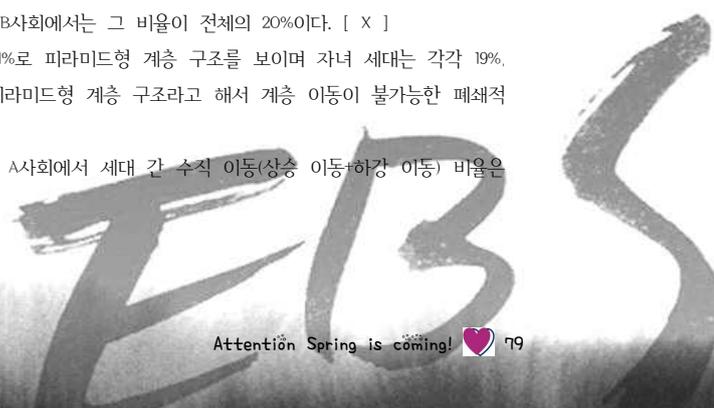
- ㄴ. B 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된 사람은 전체의 23%이다. O X
- ㄷ. B 사회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바뀌었다. O X
- ㄹ. A 사회는 B 사회에 비해 세대 간 수직 이동이 활발하다. O X



✓ 2012. 9. 8번

- ㄴ. 빈곤이 대물림된 사람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사람으로 B사회에서는 그 비율이 전체의 20%이다. [X]
- ㄷ. B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상, 중, 하의 비율이 각각 18%, 31%, 51%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이며 자녀 세대는 각각 19%, 58%, 23%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해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폐쇄적 계층 구조인 것은 아니다. [X]
- ㄹ. 계층 대물림의 비율이 A사회는 37%, B사회는 63%이다. 따라서 A사회에서 세대 간 수직 이동(상층 이동+하강 이동) 비율은 63%이며, B사회에서는 37%이다. [O]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3. 수능 20번

(가) 사회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계
		A	B	C	
자녀의 계층	A	18	27	5	100
	B	3	28	2	
	C	4	5	8	
계		100			

(나) 사회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계
		A	B	C	
자녀의 계층	A	8	3	3	100
	B	46	17	2	
	C	6	5	10	
계		100			

		(가)				(나)					
자	부	상	중	하	계	자	부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A, B,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 ② (나) 사회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 ③ (가) 사회가 (나) 사회보다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이 크다.
- ④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크다.
- ①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상층이 가장 심하다.
- ⑤ 자녀 세대에서는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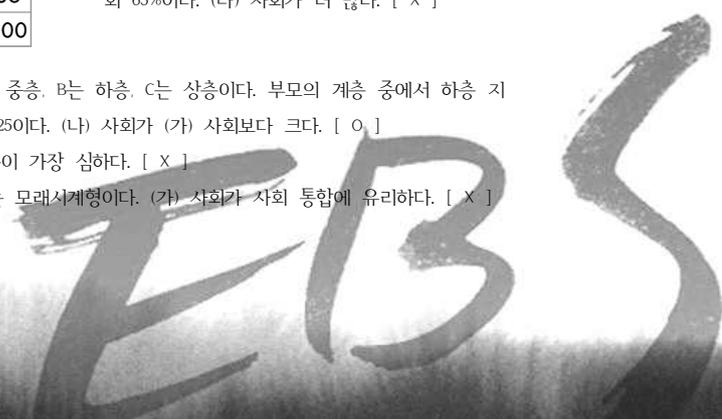


✓ 2013 수능 20번 - (가) 사회에서 계층 지위의 대물림 비율은 상층 8/15, 중층 18/25, 하층 28/60이다.

		(가)				(나)					
자	부	상	중	하	계	자	부	상	중	하	계
	상		8	4	5		17		10	6	5
중		5	18	27	50		3	8	3	14	
하		2	3	28	33		2	46	17	65	
계		15	25	60	100		15	60	25	100	

- ② (나) 사회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의 비율은 14%, 세대 간 하강 이동의 비율은 51%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더 많다. [X]
- ③ 수직 이동의 비율은 (가) 사회 46%, (나) 사회 65%이다. (나) 사회가 더 많다. [X]

- ④ (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따라서 A는 중층, B는 하층, C는 상층이다. 부모의 계층 중에서 하층 지위의 대물림 비율은 (가) 사회에서는 28/60, (나) 사회에서는 17/25이다. (나) 사회가 (가) 사회보다 크다. [O]
- ① 따라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중층이 가장 심하다. [X]
- 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가) 사회는 다이아몬드형, (나) 사회는 모래시계형이다. (가) 사회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X]





2013. 3. 15번

[아버지의 계층과 장남의 계층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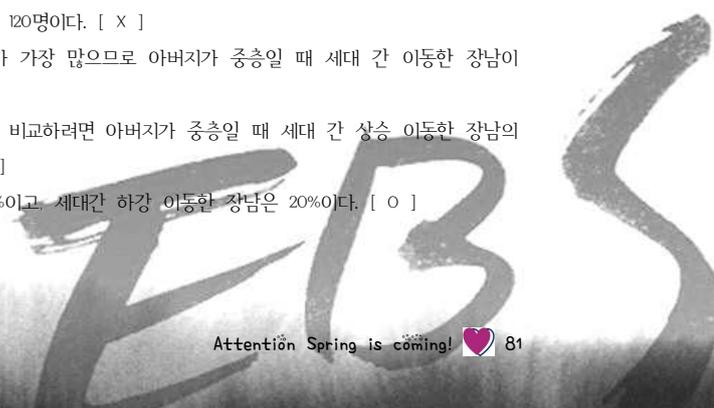
구분		장남의 계층			계
		상층	중층	하층	
아버지의 계층	상층(100명)	70	20	10	100
	중층(200명)	10	70	20	100
	하층(100명)	10	20	70	100

- ㄱ. 아버지의 계층을 세습한 장남보다 그렇지 않은 장남이 많다.
- ㄴ. 세대 간 이동한 장남은 아버지의 계층이 중층일 때 가장 많다.
- ㄷ.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장남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장남이 많다.
- ㄹ. 아버지의 계층이 중층일 때,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장남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장남이 많다.



✓ 2013. 3. 15번

- ㄱ. 아버지의 계층을 세습한 장남은 280명 세습하지 않은 장남은 120명이다. [X]
- ㄴ. 세대 간 이동한 장남의 비율은 모두 같으나 중층인 아버지가 가장 많으므로 아버지가 중층일 때 세대 간 이동한 장남이 가장 많다. [O]
- ㄷ.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장남과 하강 이동한 장남 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아버지가 중층일 때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장남의 수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장남의 수만 비교하면 된다. [X]
- ㄹ. 아버지의 계층이 중층일 때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장남은 10%이고,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장남은 20%이다. [O]





2012. 6. 15번

<부모의 계층별 자녀 계층의 구성비>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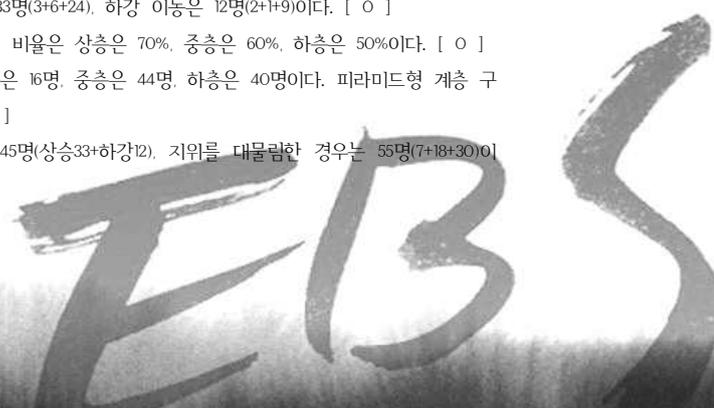
- ㄱ.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 ㄴ. 세대 간 지위를 대물림한 비율은 상층에서 가장 높다.
- ㄷ. 자녀 세대만 집계하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이룬다.
- ㄹ. 세대 간 수직 이동이 지위를 대물림한 경우보다 더 많다.



✓ 2012. 6. 15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7	3	6	16
중	2	18	24	44
하	1	9	30	40
계	10	3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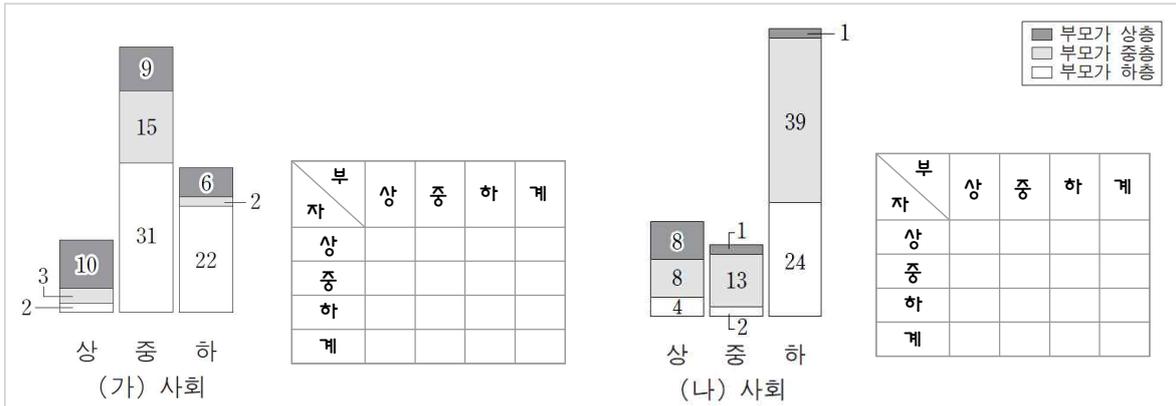
- ㄱ. 세대 간 상승 이동은 33명(3+6+24), 하강 이동은 12명(2+9)이다. [O]
- ㄴ. 세대 간 지위의 대물림 비율은 상층은 70%, 중층은 60%, 하층은 50%이다. [O]
- ㄷ. 자녀 세대의 경우 상층은 16명, 중층은 44명, 하층은 40명이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볼 수 없다. [X]
- ㄹ. 세대 간 수직 이동은 45명(상층33+하강12), 지위를 대물림한 경우는 55명(7+18+30)이다. [X]





2010. 9. 20번

<각 계층별 그들의 출신 계층>



* (가), (나) 사회의 인구는 동일함.

- ㄱ. (가) 사회에서 계층 지위가 대물림된 사람은 하층이 가장 많다.
- ㄴ. (나) 사회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 ㄷ. (가) 사회보다 (나) 사회가 세대 간 이동이 더 많이 일어났다.
- ㄹ. 계층 구조로 보면 (가) 사회보다 (나) 사회가 안정된 사회 모습을 나타낸다.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 2010. 9. 20번

부	상	중	하	계
자				
상	10	3	2	15
중	9	15	31	55
하	6	2	22	30
계	25	20	55	100

부	상	중	하	계
자				
상	8	8	4	20
중	1	13	2	16
하	1	39	24	64
계	10	60	30	100

- ㄱ. 상층은 10%, 중층은 15%, 하층은 22%이므로 계층적 지위가 대물림된 사람은 하층이 가장 많다. [O]
- ㄴ. 세대 간 상승 이동은 14%(8%+4%+2%)이고, 하강 이동은 41%(1%+1%+39%)이므로 틀린 분석이다. [X]

- ㄷ. 두 사회의 인구가 동일한 상태에서 (가)사회는 세대 간 이동은 53%이고 (나) 사회는 55%이므로 옳은 분석이다. [O]
- ㄹ. 중간 계층의 비율이 높은 (가)사회가 안정된 사회 모습에 해당한다. [X]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5. 7. 20번

○○신문

자녀 상층 비율, 부모 세대보다 많아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계층 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 부모 세대의 상층 비율보다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층 비율은 부모 세대의 경우 36%로 상층의 3배였고, 자녀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더 증가하였다. 한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상층 8%, 중층 20%, 하층 22%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이동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옛말이 되었다.

*%p: %의 차이를 측정하는 단위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며,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 ①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50% 이상이다. X
- ②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높다. X
- ③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 이상이다. X
- ④ 부모 세대의 하층에서 수직 이동을 한 자녀의 비율은 전체 계층의 30%이다. X
- 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의 수와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의 수는 같다. X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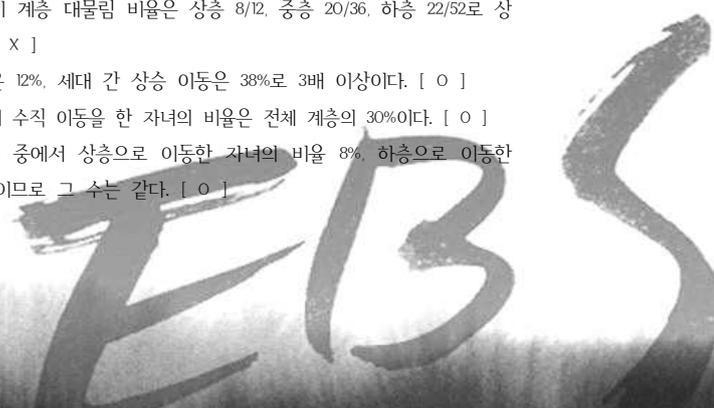
정답
ANSWER

✓ 2015. 7. 20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8	8	0	16
중	a	20	30	50+a
하	b	8	22	30+b
계	12	36	52	100

- ①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50% 이상이다. [O]
- ②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 8/12, 중층 20/36, 하층 22/52로 상층에서 가장 높다. [X]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은 12%, 세대 간 상승 이동은 38%로 3배 이상이다. [O]
- ④ 부모 세대의 하층에서 수직 이동을 한 자녀의 비율은 전체 계층의 30%이다. [O]
- 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의 비율 8%,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의 비율이 8% 이므로 그 수는 같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2. 11. 10번

<A지역의 계층 구성비와 세대 내 계층 이동 현황> (단위: %)

구분	2010년 계층 구성 비율	2000년 대비 각 계층별 이동 비율			
		이전보다 상승	이전보다 하강	이전과 동일	계
상층	20	60	0	40	100
중층	30	30	20	50	100
하층	50	0	60	40	100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단, A지역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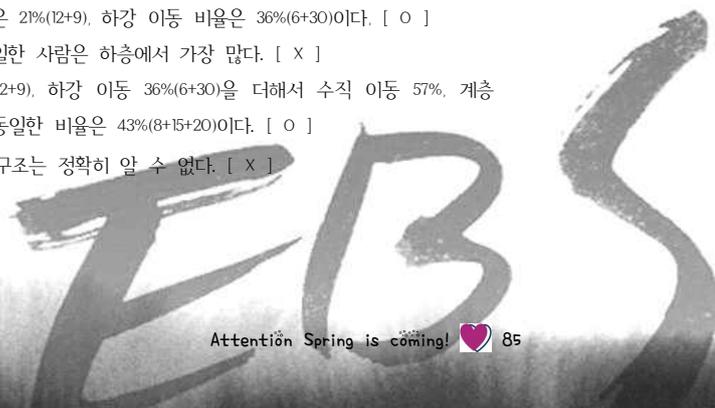
- ㄱ. 상승 이동한 사람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적다.
- ㄴ. 계층 지위가 이전과 동일한 사람은 중층에서 가장 많다.
- ㄷ. 계층 지위가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 수직 이동한 사람보다 적다.
- ㄹ.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 고2, 2012. 11. 10번

2000 \ 2010	상	중	하	계
상	8	12	20	
중	6	15	9	30
하	30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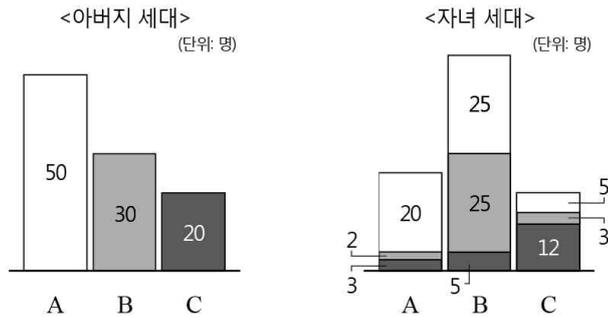
- ㄱ. 상승 이동 비율은 21%(12+9), 하강 이동 비율은 36%(6+30)이다. [O]
- ㄴ. 계층 지위가 동일한 사람은 하층에서 가장 많다. [X]
- ㄷ. 상승 이동 21%(12+9), 하강 이동 36%(6+30)을 더해서 수직 이동 57%, 계층 지위가 이전과 동일한 비율은 43%(8+15+20)이다. [O]
- ㄹ. 2000년의 계층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X]





고2 2013. 9. 20번

< 갑국의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구성 >



부	상	중	하	계
자				
상				
중				
하				
계				

* 아버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A, B,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단, 갑국의 아버지는 1명의 성인 자녀만을 두었다.)

- ①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 ②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상층 비율이 가장 높다.
- ③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계층 양극화가 심해졌다.
- ④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 ⑤ 세대 간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하층보다 중층이 더 높다.

패턴



정답
ANSWER

✓ 고2 2013. 9. 20번

부	상	중	하	계
자				
상	12	3	5	20
중	5	25	25	55
하	3	2	20	25
계	20	30	50	100

아버지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므로 A는 하층, B는 중층, C는 상층이다.

①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은 43명, 그렇지 않은 사람은 57명이다. [X]

② 아버지 세대는 하층, 자녀 세대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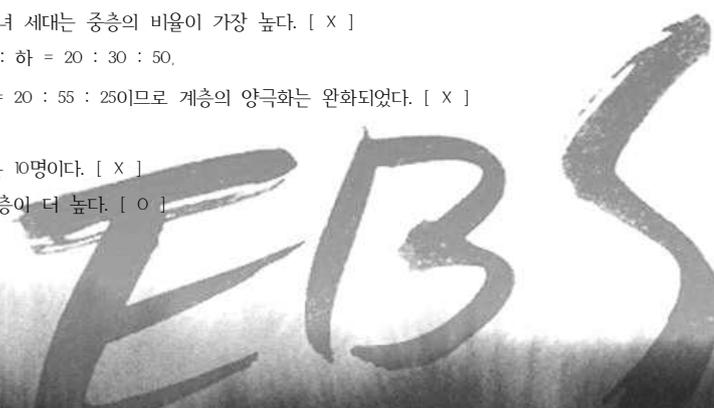
③ 아버지 세대의 상 : 중 : 하 = 20 : 30 : 50,

자녀 세대의 상 : 중 : 하 = 20 : 55 : 25이므로 계층의 양극화는 완화되었다. [X]

④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33명,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10명이다. [X]

⑤ 세대 간 대물림된 비율은 중층이 25/30, 하층이 20/50이므로 중층이 더 높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6. 3. 10번

< 자녀세대 계층 >

A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80%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없다. B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없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30%이다. C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60%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10%이다. 단, 자녀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단, A ~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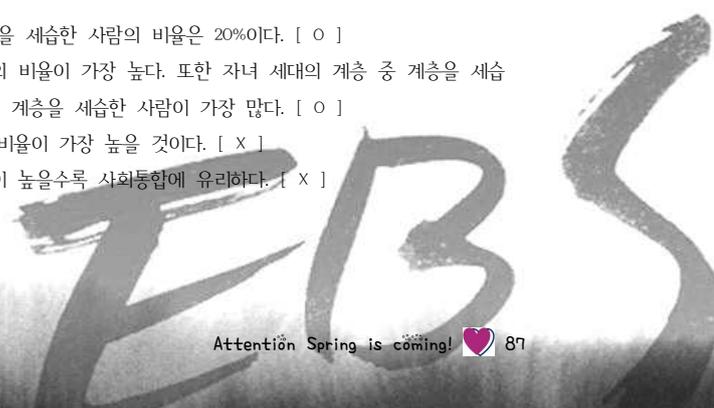
- ㄱ. A에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의 비율은 20%이다. X
- ㄴ. 계층을 세습한 사람은 B에서 가장 많다. X
- ㄷ. 신분제 사회에서는 C의 비율이 가장 높다. X
- ㄹ. C보다 B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X



✓ 2016. 3. 10번

A는 상층, B는 하층, C는 중층에 해당한다.

- ㄱ. 상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80%이므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의 비율은 20%이다. [O]
- 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므로 자녀 세대는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자녀 세대의 계층 중 계층을 세습한 사람의 비율은 하층에서 70%로 가장 높다. 따라서 하층에서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가장 많다. [O]
- ㄷ. 신분제 사회는 일반적으로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B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X]
- ㄹ.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C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X]



2 Pattern 계층 간 상대적 비율 → 계층 구조

고2 2014. 11. 20번

< A국과 B국의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 >

구분	A국		B국	
	부모 세대	상층/중층	2	상층/중층
중층/하층		1/2	중층/하층	1/2
자녀 세대	상층/중층	1/2	상층/중층	1/3
	중층/하층	2	중층/하층	3

구분	A국	B국
	상 : 중 : 하	상 : 중 : 하
부모 세대		
자녀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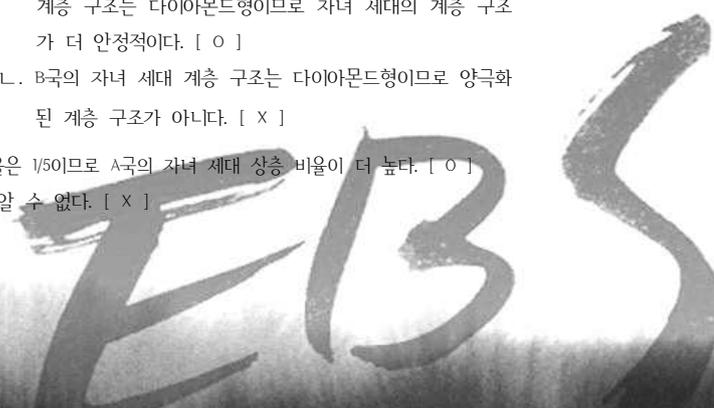
- ㉠. A국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X
- ㉡. B국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양극화된 계층 구조를 보인다. X
- ㉢. A국이 B국보다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이 높다. X
- ㉣. A국과 B국 모두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X

정답 ANSWFR 고2 2014. 11. 20번

구분	A국	B국
	상 : 중 : 하	상 : 중 : 하
부모 세대	2 : 1 : 2	1 : 3 : 6
자녀 세대	1 : 2 : 1	1 : 3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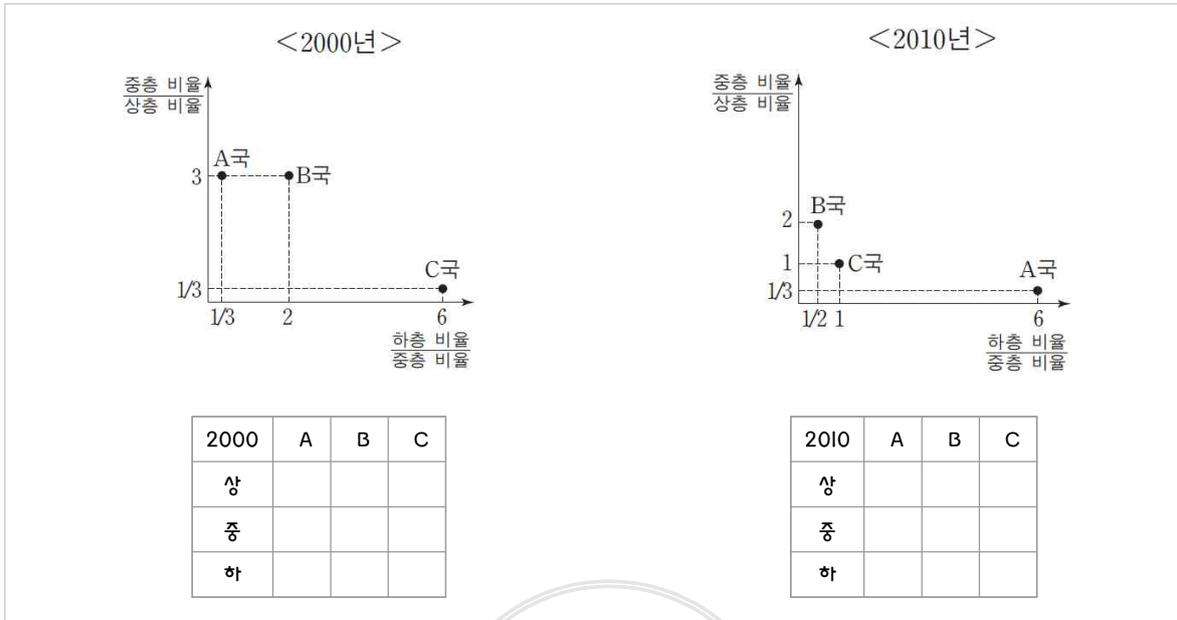
- ㉠. A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고,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O]
- ㉡. B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양극화된 계층 구조가 아니다. [X]

- ㉢. A국의 자녀 세대 상층 비율은 1/4이고, B국의 자녀 세대 상층 비율은 1/5이므로 A국의 자녀 세대 상층 비율이 더 높다. [O]
- ㉣. A국과 B국 모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폐쇄적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X]





2013. 9.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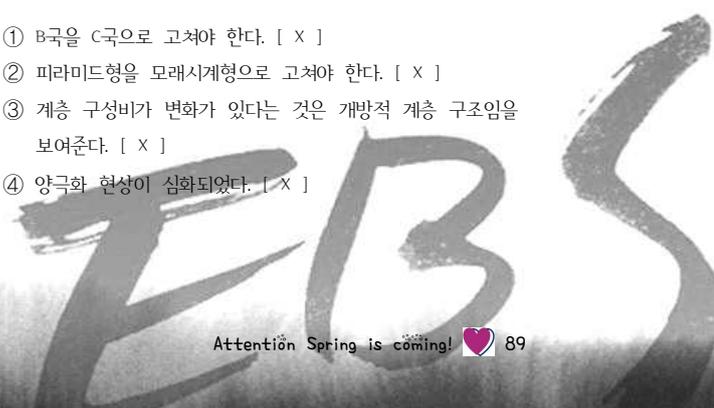
- ① 2000년 상층의 구성 비율은 B국이 가장 높다.
- ② 2010년 A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 ③ 2010년 C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로 변화했다.
- ④ 2000년에 비해 2010년 A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



✓ 2013. 9.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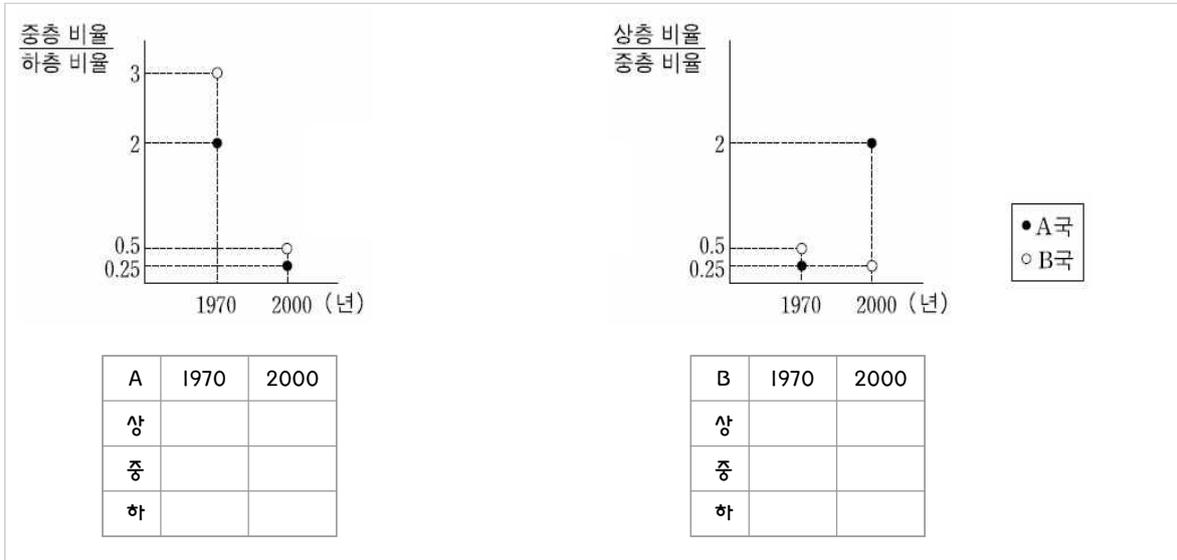
2000	A	B	C	2010	A	B	C
상	1	1	3	상	3	1	1
중	3	3	1	중	1	2	1
하	1	6	6	하	6	1	1

- ① B국을 C국으로 고쳐야 한다. [X]
- ② 피라미드형을 모래시계형으로 고쳐야 한다. [X]
- ③ 계층 구성비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개방적 계층 구조임을 보여준다. [X]
- ④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X]





2011. 6. 20번



- ㄱ. A국의 계층 구조는 1970년에 비해 2000년이 더 안정적이다.
- ㄴ. B국에서는 다이아몬드 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화하였다.
- ㄷ. 2000년의 하층 비율은 A국이 B국에 비해 더 낮다.
- ㄹ. A, B국 모두 중층의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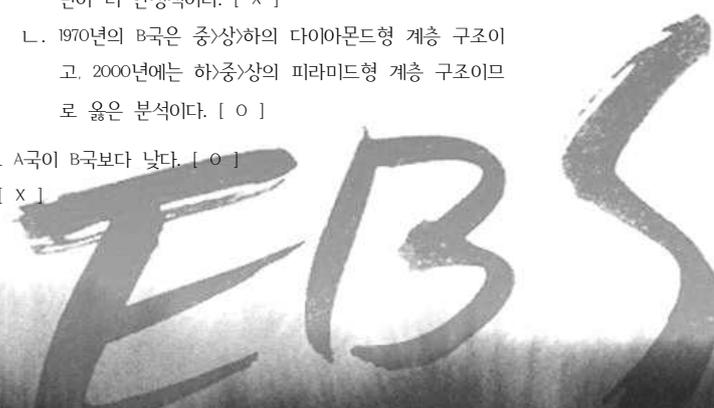
✓ 2011. 6. 20번

A	1970	2000	B	1970	2000
상	1	2	상	3	1
중	4	1	중	6	4
하	2	4	하	2	8

- ㄱ. 1970년의 A국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 비해, 2000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1970년이 더 안정적이다. [X]
- ㄴ. 1970년의 B국은 중>상>하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2000년에는 하>중>상의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므로 옳은 분석이다. [O]

- ㄷ. 2000년 A국의 하층 비율은 4/7이고, 2000년의 B국은 8/13이므로 A국이 B국보다 낮다. [O]
- ㄹ. 자료를 통해서만 중층의 하강 이동과 상승을 파악할 수 없다. [X]

ebs
박봄의
사회문화





고2 2016. 3. 20번

< 갑국의 계층 구조 관련 자료 >

(단위 :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부모 세대	20	30	50
자녀 세대	20	50	30
계층 일치 비율	50	40	60

* 계층 일치 비율: 자녀 세대의 각 계층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 ① 부모 세대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 ② 자녀 세대의 중층에서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다.
- ③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 ④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계층은 하층이다.
- ⑤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의 계층 구조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더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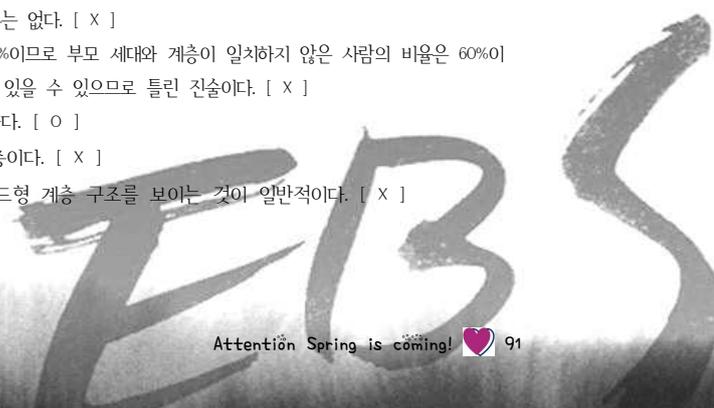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 고2 2016. 3. 20번

- 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지만, 폐쇄적 계층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X]
- ② 자녀 세대 중층에서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이 40%이므로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60%이다. 그런데 이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모가 모두 하층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X]
- ③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O]
- ④ 자녀 세대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많은 계층은 중층이다. [X]
- ⑤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의 계층 구조는 하층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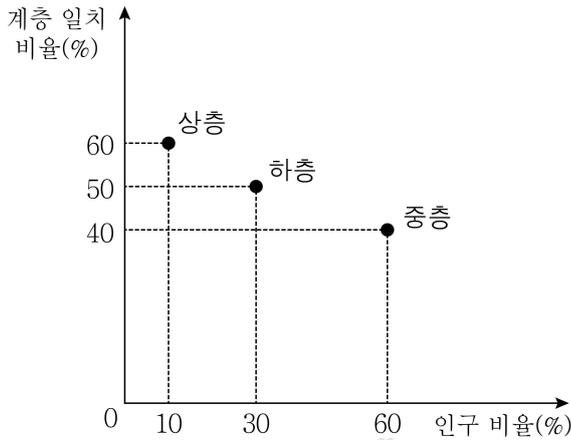
ebs
봄봄의
사회문화



3 Pattern 계층 구조 + 일치 비율

2015. 3. 13번

< 갑국의 계층별 인구 비율과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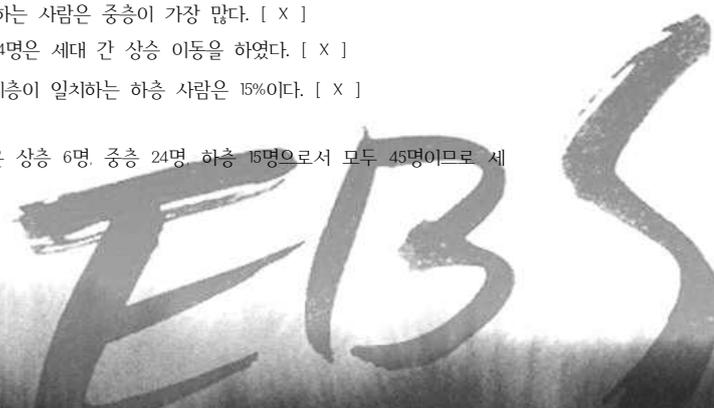
- ①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하층이 가장 많다.
- ③ 상층 인구 10명 중 4명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 ④ 총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 사람은 30%이다.
- ⑤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보다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이 많다.

정답 ANSWER 2015. 3. 13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6	4		10
중		24		60
하	15	15	30	

- ① 계층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X]
-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중층이 가장 많다. [X]
- ③ 상층 인구 10명 중 4명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였다. [X]
- ④ 총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 사람은 15%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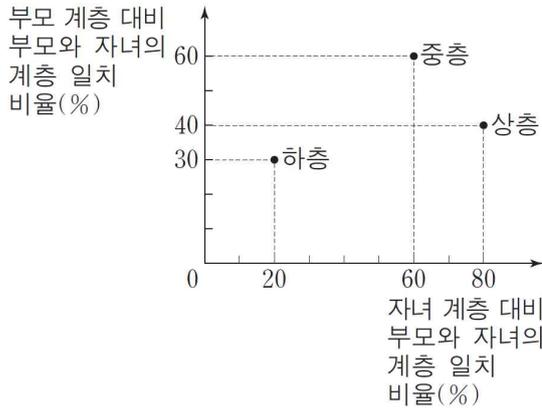
⑤ 총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상층 6명, 중층 24명, 하층 15명으로서 모두 45명이므로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이 많다. [O]





2016. 9. 20번

<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단, 자녀 계층의 구성비는 상층:중층:하층=1:6:3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다.)

- ①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다.
- ②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인다.
- ③ 상층의 하강 이동이 하층의 상승 이동보다 많다.
- ④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층은 각각 60%로 동일하다.
- ⑤ 세대 간 계층 이동 비율과 유지 비율은 각각 50%로 동일하다.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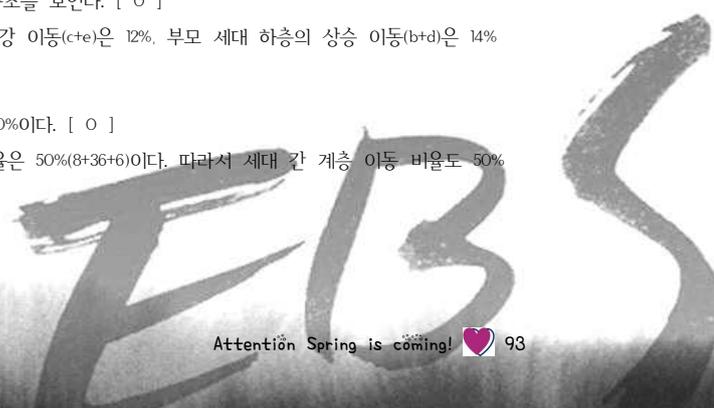
2016. 9. 20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8	a	b	10
중	c	36	d	60
하	e	f	6	30
계	20	60	20	100

- ① 세대 간 상승 이동($a+b+d$)은 최대 16%가 나온다. ($a+b$ 는 2%이고 d 는 최대 14%이다.)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c+e+f$) 최소 24% ($e+f$ 는 24%이다.)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더 많다. [O]
- ②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세대의 상층, 중층, 하층은 각각 20%, 60%, 20%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인다. [O]
- ③ 부모 세대 상층의 하강 이동($c+e$)은 12%, 부모 세대 하층의 상승 이동($b+d$)은 14%이다. [X]

- ④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층은 각각 60%이다. [O]
- 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유지 비율은 $50\%(8+36+6)$ 이다. 따라서 세대 간 계층 이동 비율도 50%가 된다. [O]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6. 6. 20번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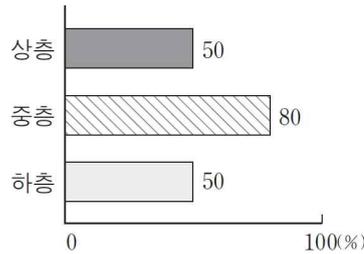
<갑국의 1970년 계층 구조 현황>

(단위: %)

구분	자녀 세대 계층			계	
	상층	중층	하층		
부모 세대 계층	상층	6	2	2	10
	중층	24	17	19	60
	하층	4	1	25	30
계	34	20	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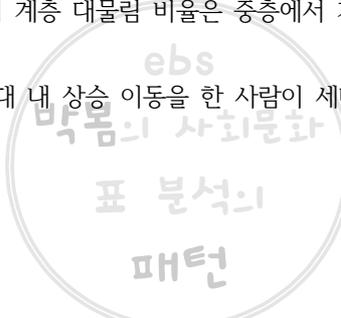
(나)

<갑국의 1970년 자녀 세대 중 2000년에도 계층을 유지한 비율>



	상	중	하
상			
중			
하			
계			

- ㉠. (가)에 따르면,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 ㉡. (가)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 ㉢. (가)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중층에서 가장 낮고 상층에서 가장 높다.
- ㉣. (가), (나)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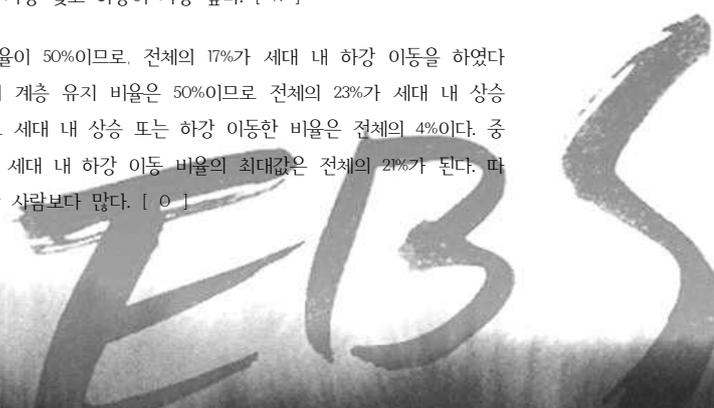


2016. 6. 20번

1970 \ 2000	상	중	하
상	17		23
중		16	
하	17		23
계	34	20	46

- ㉠. 세대 간 상승 이동은 29%, 세대 간 하강 이동은 23%이다. [O]
- ㉡.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상층의 경우 28/34, 중층의 경우 3/20, 하층의 경우 21/46로, 중층이 가장 낮다. [O]
- ㉢.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의 경우 6/10, 중층의 경우 17/60, 하층의 경우 25/30이다. 중층이 가장 낮고 하층이 가장 높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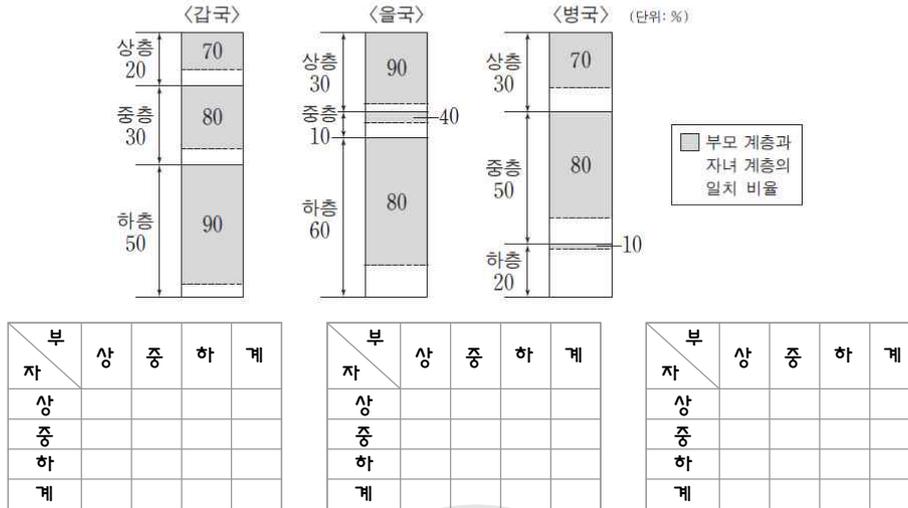
㉣. 197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 자녀 세대 상층의 계층 유지 비율이 50%이므로, 전체의 17%가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 (1970년대 자녀 세대 상층은 전체의 34%임). 자녀 세대 하층의 계층 유지 비율은 50%이므로 전체의 23%가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하였다. 자녀 세대 중층의 계층 유지 비율은 80%이므로 세대 내 상승 또는 하강 이동한 비율은 전체의 4%이다. 중층의 4%가 모두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세대 내 하강 이동 비율의 최대값은 전체의 2%가 된다. 따라서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 [O]





2013. 6. 20번

〈각국의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 및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



- ㉠. 갑국에서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상층과 중층의 합이 하층보다 많다.
- ㉡.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많다.
- ㉢. 병국에서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 ㉣. 자녀 세대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을 보면, 갑국은 하층에서 가장 낮고, 병국은 하층에서 가장 높다.



✓ 2013. 6. 20번

자	상	중	하	계
부				
상	14			20
중		24		30
하			45	50

자	상	중	하	계
부				
상	27	3		30
중		4		10
하		12	4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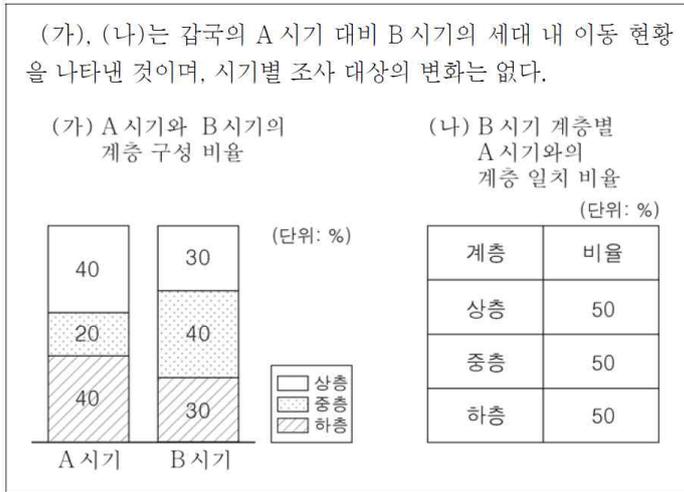
자	상	중	하	계
부				
상	21	9		30
중		40		50
하		18	2	20

㉠. 갑국에서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이 모두 상층인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 모두 중층인 사람은 24%.

- 모두 하층인 사람은 45%이다. 따라서 갑국에서는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상층과 중층의 합은 하층보다 적다. [X]
- ㉡. 을국에서는 자녀 세대 하층 중 계층 대물림된 48% 외에 12%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자녀 세대 상층 중 계층 대물림된 27% 외에 3%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였다. 자녀 세대 중층 중 계층 대물림된 4% 외에 6%가 모두 상승 이동을 하였다면, 을국의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은 최대 9%로 하강 이동한 경우보다 적다. [O]
- ㉢. 병국에서 중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80%, 즉, 전체 인구의 40%는 부모 세대의 계층의 중층이었다. 그리고 상층으로 이동한 전체 인구의 9%와 하층으로 이동한 전체 인구의 18%가 중층에서 이동하였을 경우, 부모 세대의 중층은 최대 67%가 된다. 그리고 부모 세대 중 상층인 인구는 최소 전체 인구의 21%이고, 하층인 인구는 최소 전체 인구의 2%이다. 따라서 상층과 하층의 비중 모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즉,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X]
- ㉣. 갑국에서는 상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30%, 중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20%, 하층에 해당하는 10%가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병국에서는 상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30%, 중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20%, 하층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 중 90%가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O]



고2 2015. 11. 20번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① B 시기보다 A 시기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O X
- ② 세대 내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O X
- ③ A 시기 상층에서 B 시기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을 한 비율은 5%이다. O X
- ④ A 시기 중층에서 B 시기 상층으로 세대 내 상승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O X
- ⑤ A 시기 대비 B 시기에 계층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한 사람의 수는 중층과 하층이 같다. O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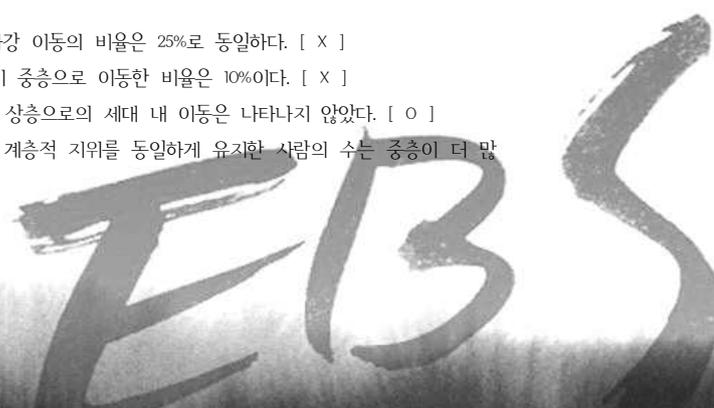
패턴



고2 2015. 11. 20번

A \ B	상	중	하	계
상	15	0	15	30
중	10	20	10	40
하	15	0	15	30
계	40	2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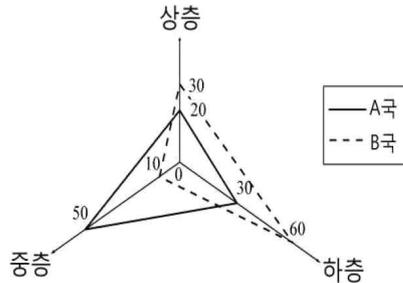
- ① A 시기는 모래시계형, B 시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B 시기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X]
- ② 세대 내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의 비율은 25%로 동일하다. [X]
- ③ A 시기 상층에서 B 시기 중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10%이다. [X]
- ④ A 시기 중층에서 B 시기 상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O]
- ⑤ A 시기 대비 B 시기에 계층적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한 사람의 수는 중층이 더 많다. [X]





2014. 7. 20번

(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



(나)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구분	A국	B국
상층	40	80
중층	90	70
하층	80	70

(단, 자녀 세대의 구성원 수는 A국이 B국의 2배이며,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A국]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B국]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ㄱ. A국은 B국보다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이 더 높다.
- ㄴ. A국에서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B국에서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많다.
- ㄷ.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A국은 중층에서, B국은 하층에서 가장 많다.
- ㄹ. A, B국 모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개방적이다.



✓ 2014. 7. 20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8	12	20	
중		45	50	
하	6	24	30	

부 자	상	중	하	계
상	24	6	30	
중		7	10	
하	18	4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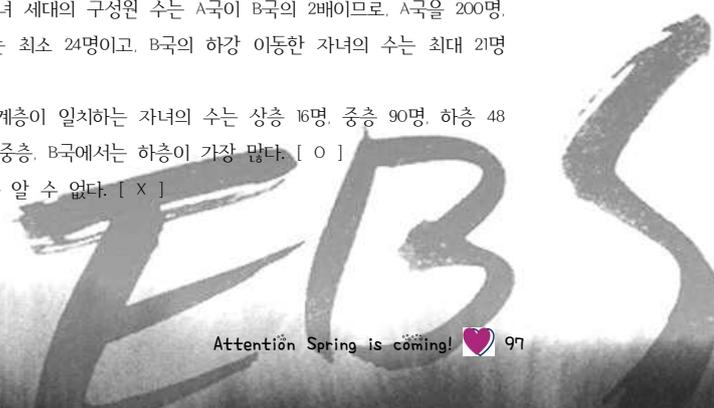
ㄱ. A국의 대물림이 77%이므로 수직 이동 비율은 23%, B국의 대물림이 73%이므로 수직 이동 비율은 27%이다. [X]

ㄴ. A국의 상승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최소 12% 최대 17%이며, B국의 하강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최소 18% 최대 21%이다. 자녀 세대의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자녀 세대의 구성원 수는 A국이 B국의 2배이므로, A국을 200명, B국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A국의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최소 24명이고, B국의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 최대 21명이다. [O]

ㄷ. A국을 200명, B국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A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 16명, 중층 90명, 하층 48명이며 B국은 상층 24명, 중층 7명, 하층 42명으로, A국에서는 중층, B국에서는 하층이 가장 많다. [O]

ㄹ. A, B국 모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X]





2015. 수능 20번

(가), (나)는 갑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25%, 중층 50%, 하층 25%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부모 계층	비율(%)
상층	75
중층	50
하층	40

(나)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자녀 계층	비율(%)
상층	60
중층	30
하층	80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 세대 간 이동 비율은 50%이다.
- ㉡.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 ㉢.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
- ㉣.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표 분석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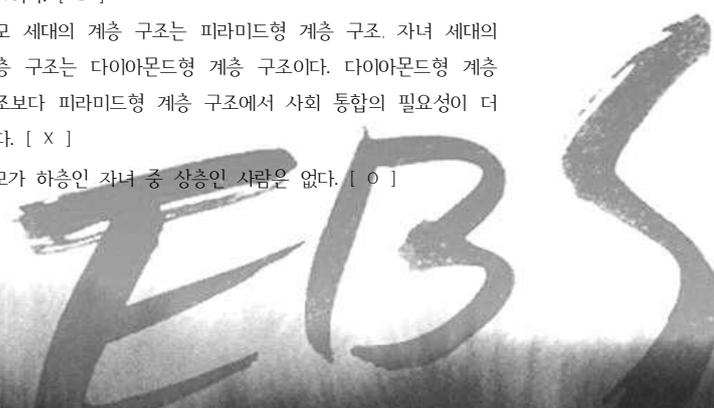


✓ 2015. 수능 20번

구분		부모 세대			계
		상층	중층	하층	
자녀 세대	상층	15	10	0	25
	중층	5	15	30	50
	하층	0	5	20	25
계		20	30	50	100

- ㉠. 일치 비율이 50%이므로 세대 간 이동 비율은 50%이다. [O]
- ㉡.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10%,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40%이다. [O]
- ㉢.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 [X]
- ㉣. 부모가 하층인 자녀 중 상층인 사람은 없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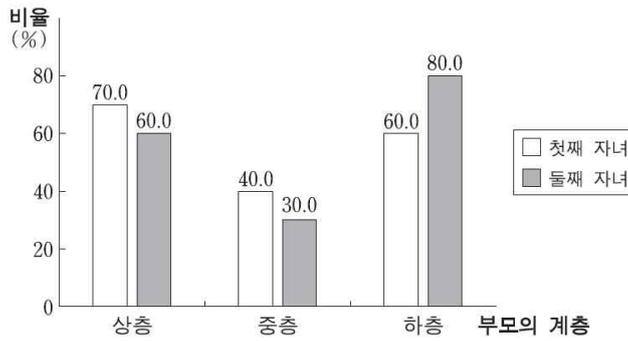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5. 6. 20번

<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일치 비율 >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2명이며, 부모의 계층 구성은 상층 : 중층 : 하층 = 1 : 3 : 1 이다.)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ㄱ. 첫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50% 이상이다.
- ㄴ. 둘째 자녀 중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은 50% 이하이다.
- ㄷ.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둘째 자녀보다 첫째 자녀에서 더 높다.
- ㄹ.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와 하층 부모의 첫째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같다.



✓ 2015. 6. 20번

부 자	상	중	하
상	14		8
중		24	
하			12
계	20	60	20

부 자	상	중	하
상	12		
중	8	18	
하			16
계	20	60	20

- ㄱ. 첫째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50%이다. 이는 첫째 자녀에게서 세대 간 이동을 한 비율이 50%임을 의미하며, 이들 모두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더라도 50%를 넘지 못한다. 즉, 첫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50% 이하이다. [X]
- ㄴ.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46%이므로, 둘째 자녀 중 세대 간 수직 이동 비율은 54%(50% 이상임)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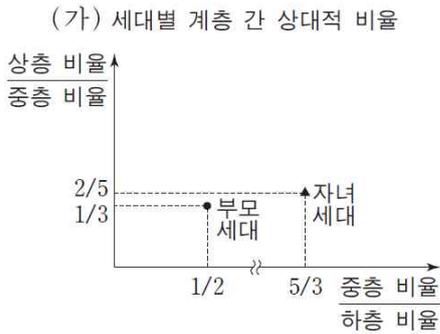
- ㄷ.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첫째 자녀의 경우는 50%(14+24+12)이고 둘째 자녀의 경우는 46%(12+18+16)이다.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둘째 자녀보다 첫째 자녀에서 더 높다. [O]
- ㄹ.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난 비율은 8%(20-12)이고, 하층 부모의 첫째 자녀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난 비율은 8%(20-12)이다. 즉,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와 하층 부모의 첫째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같다. [O]





2014. 수능 20번

<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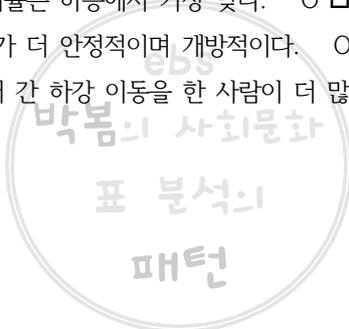


(나)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계층	비율(%)
상층	30
중층	40
하층	80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ㄱ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이다. X
- ㄴ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낮다. X
- ㄷ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며 개방적이다. X
- ㄹ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더 많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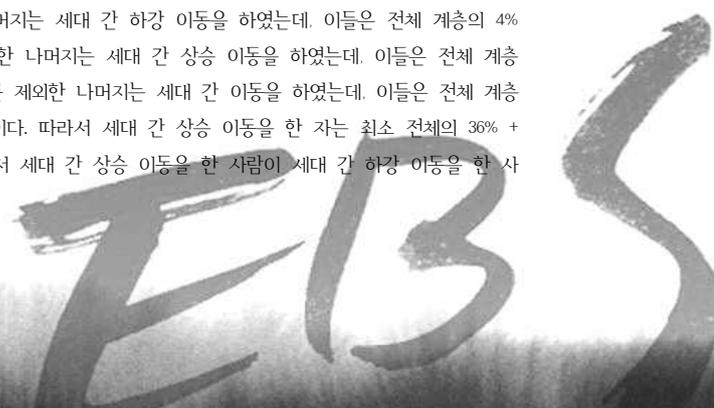


✓ 2014. 수능 20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6	a		20
중		20		50
하		b	24	30
계	10	30	60	100

- ㄱ.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일치 비율이 50%이므로, 세대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이다. [O]
- ㄴ. 부모 세대 하층의 계층 대물림 비율은 40%(24/60)이다. 부모 세대 하층의 대물림 비율이 가장 낮다. [O]
- ㄷ.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더 개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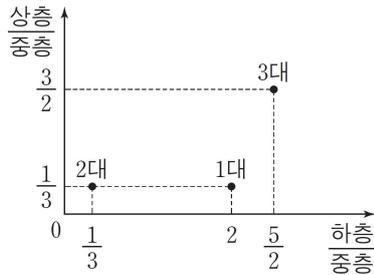
ㄹ. 부모 세대 상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4%이다. 부모 세대 하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36%이다. 부모 세대 중층의 자녀들 중 계층 대물림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대 간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전체 계층의 10%이다. 이들 10% 중 b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은 6%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는 최소 전체의 36% + a(4%)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는 최대 10%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더 많다. [X]





2016. 수능 20번

(가)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나) 계층 이동 결과

(단위: %)

구분		1대 → 2대	2대 → 3대
계층 대물림	상층	8	18
	중층	14	16
	하층	12	18
세대 간 이동		66	48
계		100	100

* 1대는 조부모 세대, 2대는 부모 세대, 3대는 자녀 세대이며, 각 세대의 구성원 수는 모든 가계에서 동일함.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① 2대의 계층 구조보다 3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O X
- ② 1대에서 2대로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 O X
- ③ 2대에서 3대로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O X
- ④ 2대에서 3대로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O X
- ⑤ 상층 부모를 둔 사람 중 하강 이동을 한 비율은 1대에서 2대로의 이동에서와 2대에서 3대로의 이동에서가 동일하다. O X



✓ 2016. 수능 20번

<1대에서 2대로의 이동>

단위 : %

구분	1대			계	
	상층	중층	하층		
2대	상층	8	ⓐ	ⓑ	20
	중층	⒑	14	ⓓ	60
	하층	⒒	ⓔ	12	20
계		10	3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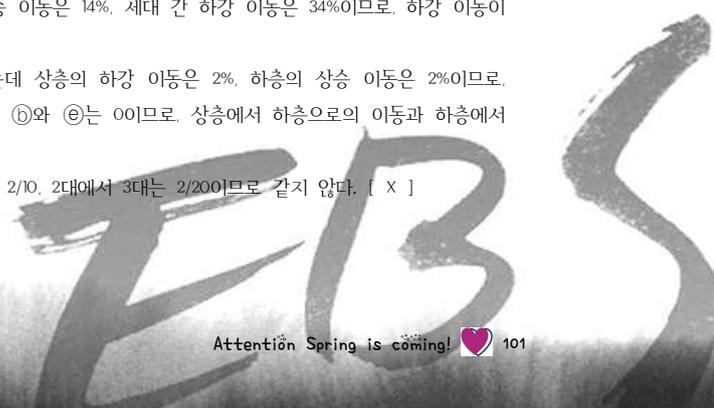
<2대에서 3대로의 계층 이동>

단위 : %

구분	2대			계	
	상층	중층	하층		
3대	상층	18	ⓒ	ⓔ	30
	중층	ⓖ	16	ⓑ	20
	하층	ⓓ	ⓓ	18	50
계		20	60	20	100

2대의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은 각각 10%, 30%, 60%이다. 2대의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은 각각 20%, 60%, 20%이다. 3대의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은 각각 30%, 20%, 50%이다.

- ① 2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 형, 3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 형에 가깝다. 2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X]
- ② 1대에서 2대로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하층의 상승 이동(⒑+ⓓ)이 48%이다. 상층의 하강 이동은 2%, 중층의 하강 이동의 최대값은 8%이므로 하강 이동의 최대값은 18%, 따라서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X]
- ③ a, f는 각각 2%이므로, c+e는 12%, b+d는 32%이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은 14%, 세대 간 하강 이동은 34%이므로,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 [X]
- ④ 2대에서 3대로의 계층 이동에서 ⓖ+ⓑ+ⓑ는 20이 되어야 하는데 상층의 하강 이동은 2%, 하층의 상승 이동은 2%이므로, ⓖ와 ⓑ에 모두 2가 들어가야만 20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와 ⓔ는 0이므로,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O]
- ⑤ 상층 부모를 둔 사람 중 하강 이동을 한 비율은 1대에서 2대는 2/10, 2대에서 3대는 2/20이므로 같지 않다. [X]





고2 2015. 9. 20번

A, B국 부모 세대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은 (가)와 같고,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나)와 같다. 사회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가) 부모 세대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나)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단위: %)

구분	국가	
	A국	B국
중층 대비 하층	1/1	2/1
중층 대비 상층	1/2	1/3

부모 세대 계층	국가	
	A국	B국
상층	40	60
중층	50	50
하층	60	40

[A국]

부 자	계층			계
	상	중	하	
상				
중				
하				
계				

[B국]

부 자	계층			계
	상	중	하	
상				
중				
하				
계				

- ㄱ. A국은 세대 간 이동 비율이 대물림 비율보다 높다.
- ㄴ. A국은 B국보다 세대 간 계층의 대물림 비율이 높다.
- ㄷ. A국은 B국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 ㄹ. B국은 A국보다 부모 세대가 중층이면서 자녀 세대도 중층인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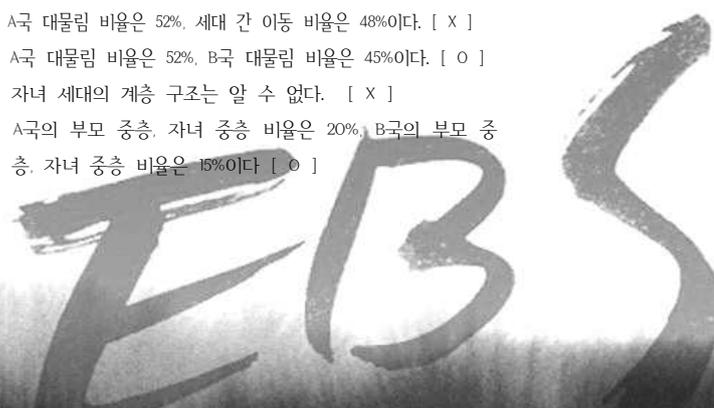


✓ 고2 2015. 11. 20번

부 자	계층			계
	상	중	하	
상	8			
중		20		
하			24	
계	20	40	40	

부 자	계층			계
	상	중	하	
상	6			
중		15		
하			24	
계	10	30	60	

- ㄱ. A국 대물림 비율은 52%, 세대 간 이동 비율은 48%이다. [X]
- ㄴ. A국 대물림 비율은 52%, B국 대물림 비율은 45%이다. [O]
- ㄷ.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알 수 없다. [X]
- ㄹ. A국의 부모 중층, 자녀 중층 비율은 20%, B국의 부모 중층, 자녀 중층 비율은 15%이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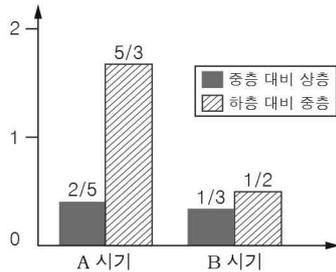




2015. 4. 20번

(가), (나)는 ○○지역의 계층 이동을 조사한 결과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A, B의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의 변동은 없었으며, 부모 세대의 세대 내 이동도 없었다.

(가) 시기별 자녀 세대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나)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단위: %)

계층 \ 시기	A	B
상층	100	100
중층	100	50
하층	100	25

[A기]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B기]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ㄱ. B 시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안정적이다.
- ㄴ.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는 모두 세대 간 이동도 경험하였다.
- ㄷ. A 시기와 B 시기의 계층만을 고려할 때, 자녀 세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45%이다.
- ㄹ. A 시기와 B 시기의 계층만을 고려할 때,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의 2배이다.



2015. 4.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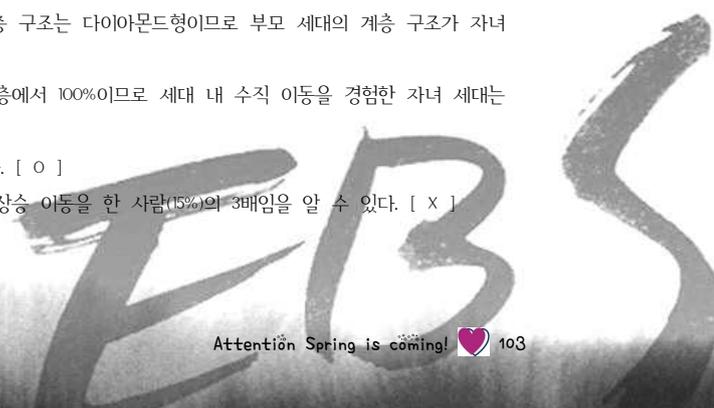
	상	중	하	계
상	20			20
중		50		50
하			30	30
계	20	50	30	100

	상	중	하	계
상	10	0	0	10
중	0	15	15	30
하	10	35	15	60
계	20	50	30	100

(가)를 통해 시기별 자녀 세대 계층 구성비가 A 시기에 상층:중층:하층=2:5:3, B 시기에 상층:중층:하층=1:3:6임을 파악할 수 있다. (나)를 통해 A 시기 자녀 세대 계층 구성비와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가 같으므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비가 상층:중층:하층=2:5:3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세대 내 이동이 없었으므로 A, B 시기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는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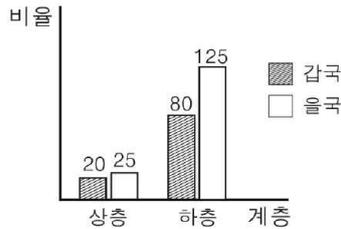
- ㄱ. B 시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므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에 비해 안정적이다. [X]
- ㄴ. A 시기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100%이므로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는 모두 세대 간 이동도 경험하게 된다. [O]
- ㄷ. 자녀 세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45%이다. [O]
- ㄹ.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45%)이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5%)의 9배임을 알 수 있다. [X]





2014. 4. 20번

(가) 자녀 세대의 중층 대비 상대적 계층 비율(%)



(나) 자녀 세대의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구분	갑국	을국
상층	15	10
중층	80	20
하층	20	30

* 전수 조사 결과이며, 갑국과 을국의 조사 대상자 수는 동일함.

[갑국]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을국]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①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 갑국보다 을국이 더 높다.
- ② 자녀 세대의 경우 갑국은 을국에 비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 구조이다.
- ③ 을국의 자녀 세대 중에서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25% 이상이다.
- ④ 갑국의 자녀 세대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수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수보다 많다.
- ⑤ 자녀 세대 중층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계층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인구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2014. 4.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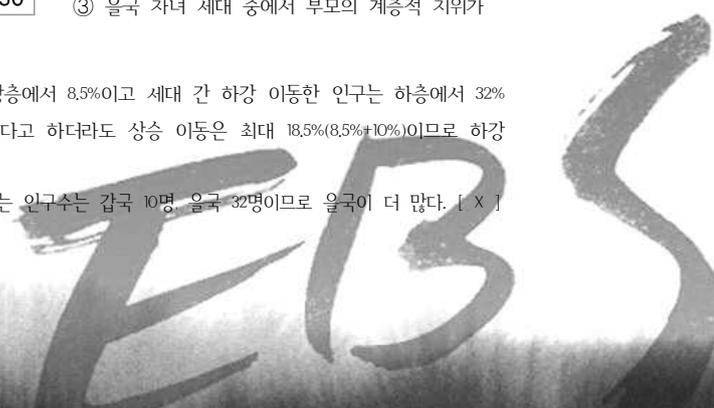
부 자	상	중	하	계
상	1.5	8.5	10	
중		40	50	
하		32	8	40

부 자	상	중	하	계
상	1			10
중		8		40
하			15	50

- ① 상층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X]
- ② 갑국은 다이아몬드형 을국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므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는 을국이다. [X]
- ③ 을국 자녀 세대 중에서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24%이다. [X]

- ④ 갑국의 자녀 세대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는 자녀 상층에서 8.5%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인구는 하층에서 32%이다. 자녀 중층에서 대물림 40% 외에 10%가 모두 상승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상승 이동은 최대 18.5%(8.5%+10%)이므로 하강 이동한 인구수가 더 많다. [O]
- ⑤ 자녀 세대 중층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인구수는 갑국 10명, 을국 32명이므로 을국이 더 많다. [X]



Pattern 계층 구조 + 이동 비율

2014. 6. 20번



부 자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ㄱ. 부모 세대의 계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45%이다.
- ㄴ. 자녀 세대 중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가 하층인 비율은 5%이다.
- ㄷ.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의 3배 이상이다.
- ㄹ. 세대 간 이동으로 다른 계층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계층은 하층이다.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2014. 6. 20번

구분		부모 세대 계층			계
		상	중	하	
자녀 세대 계층	상	5	5	10	20
	중	5	30	25	60
	하	5	5	10	20
		15	40	45	100

- ㄱ. <세대 간 이동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간 상승 또는 하강 이동한 비율이 55%이므로, 부모 세대의 계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45%이다. [O]
- ㄴ. 자녀 세대 중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가 하층인 비율은 5%이다. [O]
- ㄷ. 세대 간 상승 이동의 비율은 40%, 하강 이동의 비율은 15%이다. 3배가 되지 않는다. [X]

ㄹ. 세대 간 이동으로 다른 계층에서 유입된 비율은 상승 15%(5+10), 중층 30%(5+25), 하층 10%(5+5)이다. 중층이 가장 많다. [X]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4. 9. 20번

(가) <각국의 세대 간 이동 현황>

(나) <자녀 세대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단위: %)

부모 세대 계층	국가 이동 결과	A국			B국			구분	국가	A국	B국
		일치	하강	상승	일치	하강	상승				
상층		8	2	0	20	10	0	중층 대비 하층	1/1	1/2	
중층		14	6	10	0	5	5				
하층		34	0	26	20	0	40				
								중층 대비 상층	1/2	1/2	

[A국]

부	상	중	하	계
자				
상				
중				
하				
계				

[B국]

부	상	중	하	계
자				
상				
중				
하				
계				

- ㄱ. 자녀 세대에서 중층의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 ㄴ. 부모 세대에서는 B국이 A국에 비해 양극화된 계층 구조를 보인다.
- ㄷ. 자녀 세대의 계층 대비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A국은 상층, B국은 중층이 가장 낮다.
- ㄹ. A국의 상층은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았으며, B국의 하층은 중층으로만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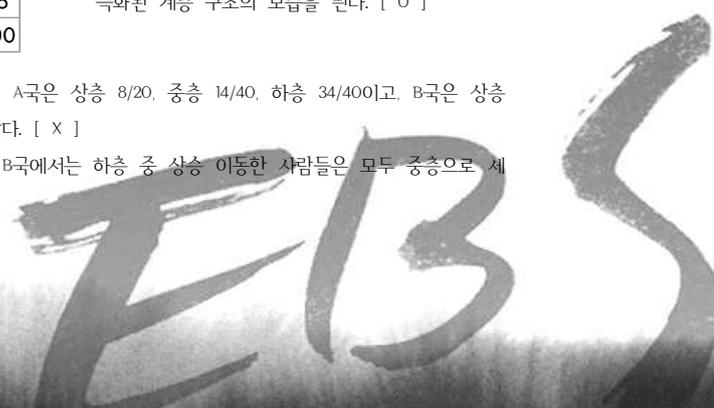


✓ 2014. 9. 20번

부	상	중	하	계	부	상	중	하	계
자					자				
상	8	10	2	20	상	20	5	0	25
중	2	14	24	40	중	10	0	40	50
하	0	6	34	40	하	0	5	20	25
계	10	30	60	100	계	30	10	60	100

- ㄱ. 자녀 세대에서 중층의 비율은 A국은 40%, B국은 50%이다. [X]
- 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를 보면, A국은 피라미드형이고 B국은 모래 시계형이다. 모래 시계형은 양극화된 계층 구조의 모습을 띤다. [O]

- ㄷ. 자녀 세대의 계층 대비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보면, A국은 상층 8/20, 중층 14/40, 하층 34/40이고, B국은 상층 20/25, 중층 0/50, 하층 20/250이다. A, B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 [X]
- ㄹ. A국에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경우는 없으며, B국에서는 하층 중 상승 이동한 사람들은 모두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O]





2015. 9. 10번

표는 갑국의 1980년 대비 2010년 세대 내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며, 2010년의 계층 구성비는 A : B : C = 2 : 1 : 1이다.

<1980년 대비 2010년의 세대 내 이동 유형별 비율>

(단위: %)

1980년의 계층	A			B			C			계
세대 내 이동 유형	상승	하강	동일	상승	하강	동일	상승	하강	동일	
비율	5	5	20	20	0	20	0	20	10	100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① 2010년의 중층 중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해당 계층의 50% 미만이다.
- ② 1980년보다 2010년의 계층 구조가 더 개방적이며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 ③ 1980년 계층 대비 2010년에 각 계층별로 계층적 지위가 유지된 비율은 중층과 하층이 동일하다.
- ④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가 하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 ⑤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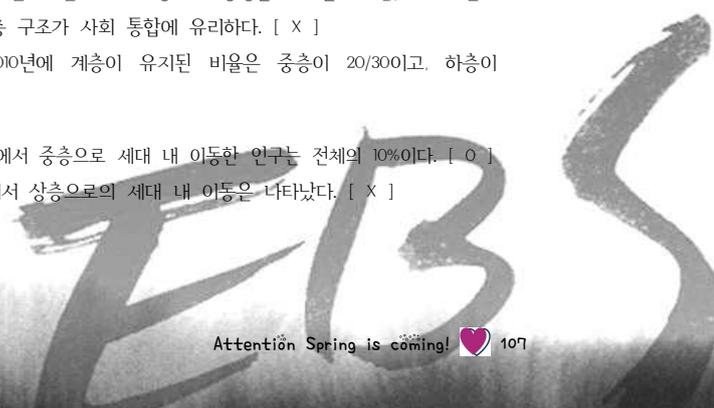
✓ 2015. 9. 20번

1980 \ 2010	상	중	하	계
상	10	5	10	25
중	20	20	10	50
하	0	5	20	25
계	30	30	40	100

- ① 2010년 중층 중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0/50이므로 해당 계층의 60%를 넘는다. [X]
- ② 계층 구조의 형태만으로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을 비교할 수 없다. 1980년보다 201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X]
- ③ 1980년 대비 2010년에 계층이 유지된 비율은 중층이 20/30이고, 하층이 20/40이다. [X]

- ④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20%이고, 하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10%이다. [O]
- ⑤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났다. [X]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3. 11. 10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 및 계층 이동 현황>

(단위: %)

구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		부모 계층과 비교한 계층 이동 현황		
	하층+중층	중층+상층	상승	동일	하강
A국	70	80	12	70	18
B국	80	50	15	75	10

	A	B
상		
중		
하		

* 표는 전수 조사 결과이며, A국의 자녀 세대 인구 수는 B국의 2배임.

- ㄱ.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A국이 B국보다 높다.
- ㄴ. 자녀 세대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수는 A국이 B국보다 많다.
- ㄷ.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로 보면, A국은 B국에 비해 사회의 안정도가 낮다.
- ㄹ. B국 자녀 세대의 하층 중에서 세대 간 이동으로 다른 계층에서 유입된 비율은 최대 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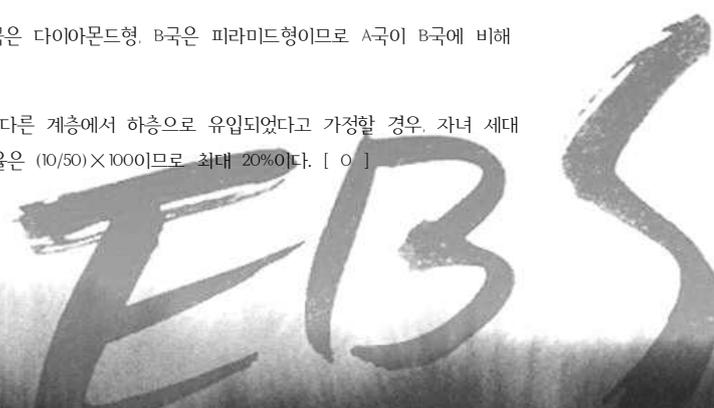


✓ 고2 2013. 11. 10번

	A	B
상	30	20
중	50	30
하	20	50

- ㄱ.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은 A국 50%, B국 30% 이다. [O]
- ㄴ. A국의 자녀 세대 인구 수가 B국의 2배이므로 A국이 B국에 비해 상승 이동한 사람의 수가 많다. [O]
- ㄷ.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보면 A국은 다이아몬드형, B국은 피라미드형이므로 A국이 B국에 비해 사회의 안정도가 높다. [X]

ㄹ. B국 자녀 세대의 하강 이동 비율이 10%이므로 이들이 모두 다른 계층에서 하층으로 유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세대의 하층 중에서 세대 간 이동으로 다른 계층에서 유입된 비율은 $(10/50) \times 100$ 이므로 최대 20%이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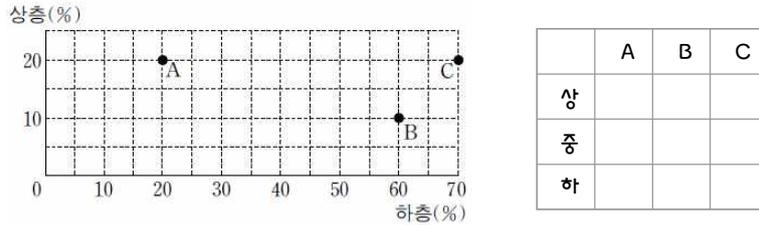




2012. 수능 20번

A ~ C 사회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에서 (가),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는 A ~ C 사회의 자녀 세대 계층별 구성원 비율을, (나)는 (가)에 나타난 각 계층 구성원 중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A ~ C 사회의 자녀 세대 구성원 수는 동일하며,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된다.)

(가)



(나)

(단위: %)

구분	A	B	C
상층	15	15	20
중층	25	10	20
하층	35	20	30

	A	B	C
상			
중			
하			

- ㉠. B 사회에서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 ㉡. 세대 간 계층 이동은 C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 계층 구조로 보면 C 사회가 A 사회보다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다.
- ㉣. A ~ C 사회 모두 세대 간 계층 이동으로 새롭게 유입된 사람은 하층에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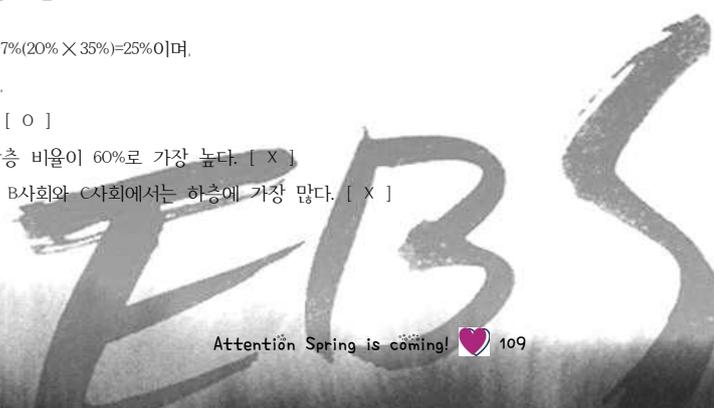
✓ 2012. 수능 20번

	A	B	C
상	20	10	20
중	60	30	10
하	20	60	70

	A	B	C
상	3	1.5	4
중	15	3	2
하	7	12	21

㉠. B 사회의 자녀 세대에서 하층의 비율은 60%이다. 상층이나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12%(60%×20%)로 상층으로의 이동 1.5%에 중층의 수직이동 3%를 모두 더해도 하강 이동 비율이 더 크다. [O]

- ㉡. A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은 $3\%(20\% \times 15\%) + 15\%(60\% \times 25\%) + 7\%(20\% \times 35\%) = 25\%$ 이며, B 사회는 $1.5\%(10\% \times 15\%) + 3\%(30\% \times 10\%) + 12\%(60\% \times 20\%) = 16.5\%$ 이며, C 사회는 $4\%(20\% \times 20\%) + 2\%(10\% \times 20\%) + 21\%(70\% \times 30\%) = 27\%$ 이다. [O]
- ㉢. 중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된 계층 구조이다. A 사회의 중간층 비율이 60%로 가장 높다. [X]
- ㉣.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새롭게 유입된 사람이 A 사회에서는 중층, B 사회와 C 사회에서는 하층에 가장 많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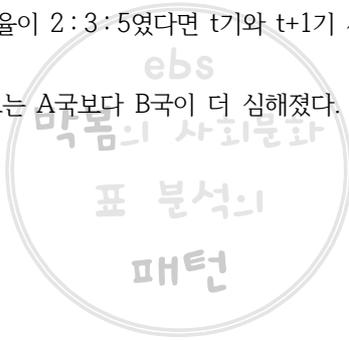
2014. 10. 17번

표의 숫자는 A국과 B국에서 직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의 변동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t-1기의 상층 중 80%, 중층 중 70%, 하층 중 70%는 t기에 계층 변동이 없다.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며, 조사 대상자는 변동이 없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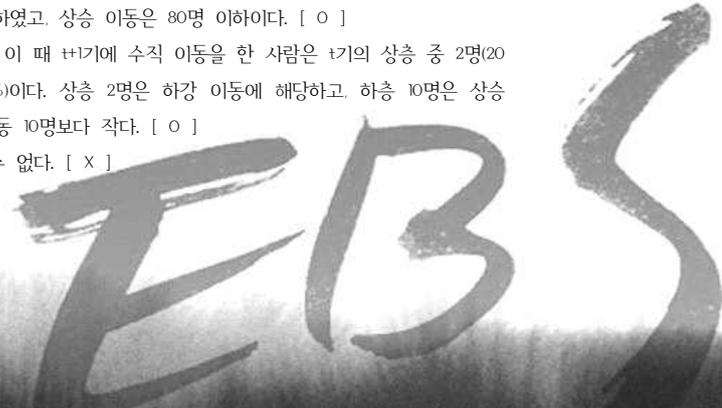
소득 계층	t기		t+1기	
	A국	B국	A국	B국
상층	80	80	60	90
중층	70	50	60	80
하층	70	60	60	80

- ㄱ. A국에서 t기에 상층이었던 사람들 중 80%는 t+1기에 계층 변동이 없었다.
- ㄴ. A국에서 t기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200명이라면 그들 중 t+1기에 상층이 된 사람은 80명 이하이다.
- ㄷ. B국에서 t기에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율이 2 : 3 : 5였다면 t기와 t+1기 사이에 상승 이동한 사람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 ㄹ. t기와 t+1기 사이에 계층 세습의 정도는 A국보다 B국이 더 심해졌다.



정답 ANSWER

- ✓ 2014. 10. 17번
- ㄱ. A국에서 t기에 상층이었던 사람들 중 60%는 t+1기에 계층 변동이 없었다. [X]
- ㄴ. t+1기에 200명의 60%를 제외한 인원 즉, 80명이 수직 이동을 하였고, 상승 이동은 80명 이하이다. [O]
- ㄷ. t기의 상층, 중층, 하층 인구가 20명, 30명, 50명이라 가정하자. 이 때 t+1기에 수직 이동을 한 사람은 t기의 상층 중 2명(20명×10%), 중층 중 6명(30명×20%), 하층 중 10명(50명×20%)이다. 상승 2명은 하강 이동에 해당하고, 하층 10명은 상승 이동에 해당한다. 중층 6명이 모두 하강 이동했다더라도 상승 이동 10명보다 작다. [O]
- ㄹ. 표는 세대 내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층 세습 여부는 알 수 없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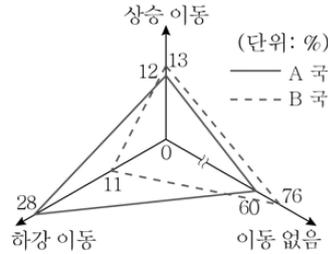




2015. 10. 20일

(단위 : %)

구분	A 국	B 국
상층 비율 + 하층 비율	50	70
중층 비율 + 하층 비율	70	80



* 자녀 세대 인구수는 A 국이 B 국의 2배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 ① A국 상층 중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40% 이하이다.
- ② B국 중층 중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80% 이하이다.
- ③ 하층 인구수는 B국이 A국보다 많다.
- ④ 계층 구조는 A국이 B국보다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 ⑤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A국이 B국보다 많다.



✓ 2014. 6.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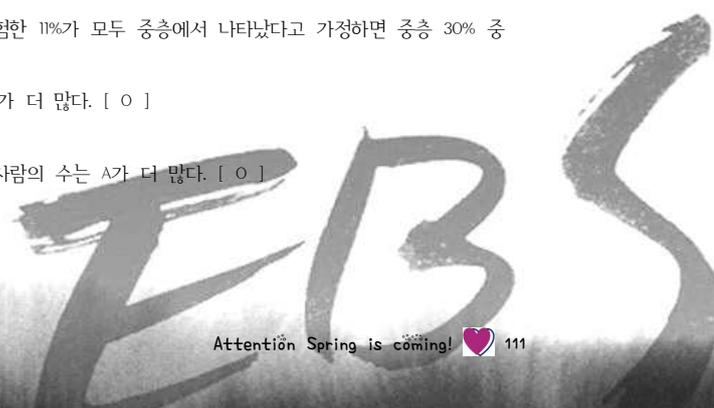
A					B				
부자	상	중	하	계	부자	상	중	하	계
상			12	30	상			13	20
중				50	중				30
하	28			20	하	11			50

중층 : 하층 비율은 A 국이 30 : 50 : 20, B 국이 20 : 30 : 50이다.

① A국 자녀 세대 중 상승 이동을 경험한 12%가 모두 상승으로의 이동이라고 가정할 경우 A국 상층(30%) 중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0%가 되며, 이 비율이 최댓값이다.

A국 자녀 세대 상층 중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의 최솟값은 60%가 된다. 그러므로 '40% 이하'가 아니라 '60% 이상'이 맞다. [X]

- ② B국 자녀 세대 중 상승 이동을 경험한 13%와 하강 이동을 경험한 11%가 모두 중층에서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중층 30% 중 24%(13%+11%)이므로 최대 80%가 된다. [O]
- ③ 자녀세대 인구 수는 A국이 B국의 2배이므로, 하층 인구 수는 B가 더 많다. [O]
- ④ A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O]
- ⑤ 자녀세대 인구 수는 A국이 B국의 2배이므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A가 더 많다. [O]





01. 일반 표 기출 완전체 113

02. 빈곤 표 기출 완전체 141



01 일반 표 기출 완전체



고2 2012. 6. 19학

001. 표는 갑국의 20~50대 인구 중에서 5가지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010년 갑국의 20~50대 인구는 2005년보다 증가하였다.) [3점]

(단위 : %)

구분	친목 단체	시민 단체	직장 내 동호회	정당	이익 집단
2005년	63.5	10.2	23.6	9.9	7.2
2010년	78.7	21.7	27.9	13.1	8.7
남자	81.0	15.7	33.1	8.3	11.1
여자	76.2	28.1	22.3	11.0	6.1

* 복수 응답 결과임

* 친목 단체 중에서 '직장 내 동호회'는 제외됨

- ㄱ. 2005년 친목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다.
 ㄴ. 2010년 1개 이상의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최소 78.7%이다.
 ㄷ. 2010년 비공식 조직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낮다.
 ㄹ. 2005년 대비 2010년 가입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친목 단체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해설 ③ ㄴ. 친목 단체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78.7%로 가장 높고 이것이 최솟값이 된다.

ㄷ. 직장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친목을 중시하는 집단은 친목 단체, 직장 내 동호회이고, 공익을 중시하는 단체는 시민 단체와 정당이다.

ㄹ. 시민 단체 가입 비율이 10.2%에서 21.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0. 9. 2번

002.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다문화 가구 현황 및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다문화 가구 비율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	한글 교육	편견 없애기	기타	
2006년	도시	0.3	17.7	20.8	25.5	29.5	6.5
	농촌	0.7	9.1	17.7	26.2	33.0	14.0
	전국	0.4	15.1	19.9	25.7	30.6	8.7
2008년	도시	1.6	18.1	15.0	31.1	29.0	6.8
	농촌	2.1	13.0	26.8	39.1	17.3	3.8
	전국	1.7	17.0	17.6	32.8	26.4	6.2

* 전수 조사 결과임.

** 다문화 가구 비율은 다문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전체 가구 수는 도시, 농촌 모두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하였음.

- ㄱ. 다문화 가구 수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많다.
- ㄴ. 2008년에는 한글 교육이 다문화 가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ㄷ.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한 다문화 가구의 수는 농촌과 도시 모두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 ㄹ. 취업 알선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대답한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시가 농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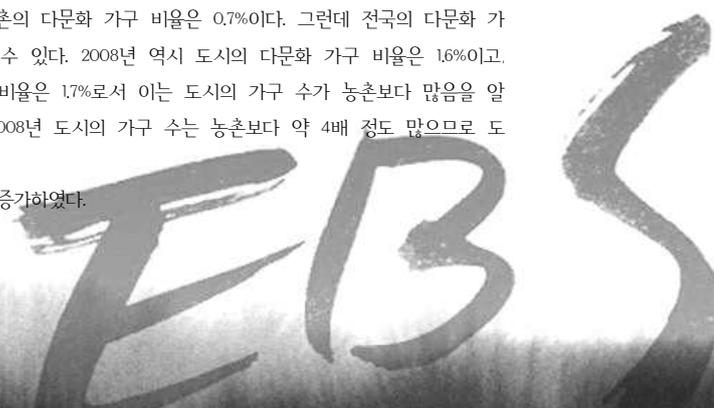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③ ㄴ. 2008년에는 한글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 비율이 전국적으로 32.8%이므로 옳은 분석이다.

ㄷ. 전체 가구 수는 농촌과 도시 모두 증가했고 농촌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17.7%에서 26.8%로 변화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그리고 도시의 경우 20.8%에서 15.0%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가구 수에서 도시의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0.3%에서 1.6%로 5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오답피하기 ㄱ. 2006년 도시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3%이고, 농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7%이다. 그런데 전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0.4%로서 이는 도시의 가구 수가 농촌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역시 도시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6%이고, 농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2.1%이다. 그런데 전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7%로서 이는 도시의 가구 수가 농촌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도시의 가구 수는 농촌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2008년 도시의 가구 수는 농촌보다 약 4배 정도 많으므로 도시의 다문화 가구 수가 농촌보다 더 많다.

ㄹ. 도시는 17.7에서 18.1로 0.4만큼, 농촌은 9.1에서 13.0으로 3.9만큼 증가하였다.





고2, 2013. 11. 20년

003. 표는 '결혼 이민자의 교육수준별 배우자 교육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구분		배우자 교육 수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여성 결혼이민자	초졸 이하	26.6	22.4	39.1	11.9	100
	중졸	6.2	28.3	50.2	15.3	100
	고졸	4.9	13.5	62.4	19.2	100
	대졸 이상	3.9	8.4	39.8	47.9	100
남성 결혼이민자	초졸 이하	49.8	15.1	30.0	5.1	100
	중졸	7.5	49.5	37.7	5.3	100
	고졸	3.6	17.4	64.4	14.6	100
	대졸 이상	1.9	4.2	21.9	72.0	100

- ① 배우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결혼이민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 ②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결혼이민자의 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 ③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학력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다.
- ④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인 사람보다 중졸인 사람 수가 많다.
- ⑤ 중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⑤ 중졸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보다 자신의 학력이 낮은 사람(50.2%+15.3%)이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6.2%)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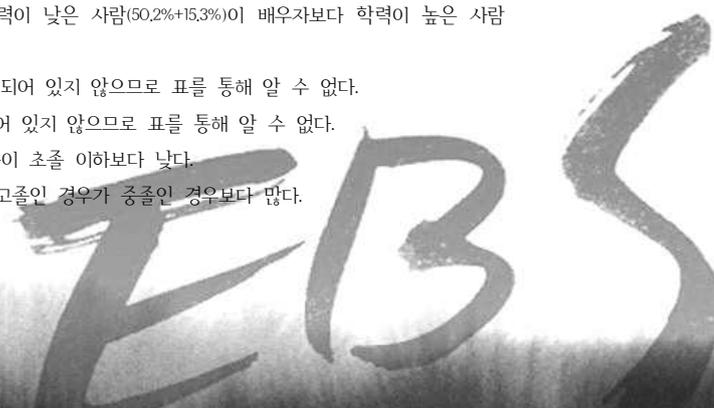
오답 피하기 ①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성 결혼이민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를 통해 알 수 없다.

②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학력별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를 통해 알 수 없다.

③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학력이 일치하는 비율은 중졸이 초졸 이하보다 낮다.

④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든 학력 수준에서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중졸인 경우보다 많다.

ebs
박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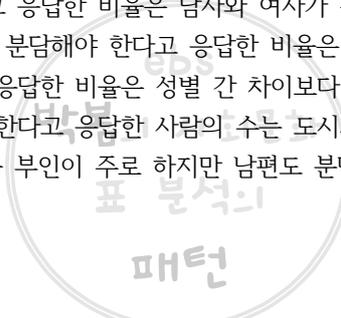
고2 2014. 9. 10학

004. 표는 가사 분담에 대한 갑국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구분	부인 주도	부인의 전적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 분담	남편 주도	남편의 전적 책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지역	도시	52.0	5.3	46.7	45.0	3.0	0.5	2.5
	농·어촌	61.3	6.4	54.9	37.2	1.5	0.3	1.2
성별	남자	57.0	7.0	50.0	40.5	2.5	0.3	2.2
	여자	47.2	6.9	40.3	50.3	2.5	0.4	2.1
연령	20대	34.0	2.3	31.7	63.3	2.7	0.4	2.3
	30대	51.7	3.3	48.4	46.9	1.4	0.2	1.2
	40대	61.0	4.8	56.2	36.5	2.5	0.3	2.2
	50대 이상	61.4	6.0	55.4	34.8	3.8	0.8	3.0

- ①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
- ②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 ③ 가사 분담을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차이보다 지역 간 차이가 더 크다.
- ④ 가사 분담이 남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도시가 농·어촌보다 2배 더 많다.
- ⑤ 20대 여자는 40대 남자에 비해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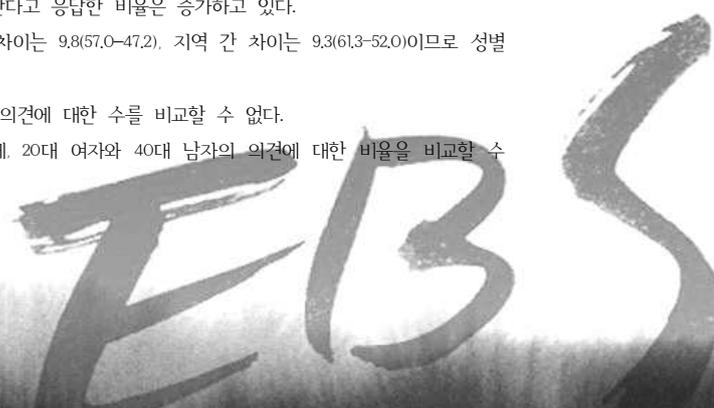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①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부인의 전적 책임과 남편의 전적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50.0+40.5+2.2)와 여자(40.3+50.3+2.1) 모두 92.7이다.

오답피하기 ②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③ 가사 분담을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별 간 차이는 9.8(57.0-47.2), 지역 간 차이는 9.3(61.3-52.0)이므로 성별 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도시와 농·어촌의 응답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의견에 대한 수를 비교할 수 없다.

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여자와 40대 남자의 의견에 대한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





고2, 2013. 9.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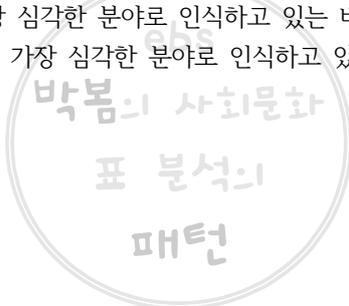
005.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직장 내 성차별 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업무 배분	승진 기회	연봉	호칭 문제	직장 복지	기타	계	
전 체	47.4	35.9	2.7	12.2	1.6	0.2	100	
성 별	남자	49.5	34.4	3.3	11.4	1.1	0.3	100
	여자	47.1	36.1	2.6	12.3	1.7	0.2	100
연 령	20대	50.4	34.2	2.2	11.8	1.2	0.2	100
	30대	45.8	37.0	3.1	12.5	1.4	0.2	100
	40대	47.0	37.0	2.3	12.1	1.3	0.3	100
	50대 이상	46.2	38.6	2.2	11.8	1.0	0.2	100

- ①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람의 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 ② 20대 남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업무 배분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30대와 40대에서 승진 기회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같다.
- ④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호칭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⑤ 50대 이상에서 직장 복지 대비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2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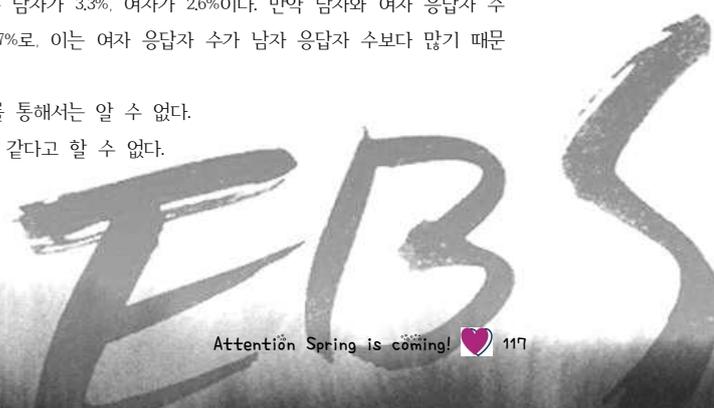
정답해설 ⑤ 50대 이상에서 직장복지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이고 연봉은 22%이다. 동일한 응답자 집단에서 비율이 2배 이상이므로 사람의 수도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연봉을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3.3%, 여자가 2.6%이다. 만약 남자와 여자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면 전체 평균은 2.95%일 것이다. 그런데 전체 평균은 2.7%로, 이는 여자 응답자 수가 남자 응답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②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률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③ 30대와 40대 응답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비율이 같다고 수가 같다고 할 수 없다.

④ 호칭 문제를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인식하는 연령대는 30대이다.





고2 2012. 11.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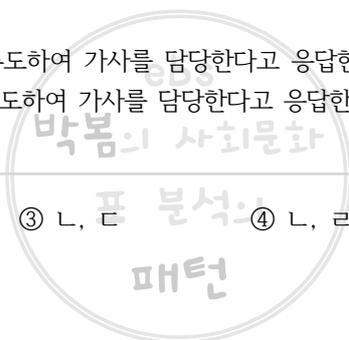
006. 표는 A지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단위: %)

구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부인 주도	공평 분담	남편 주도	부인 주도	공평 분담	남편 주도
2000년	전체	73.6	24.9	1.5	90.1	8.5	1.4
	워킹맘**	67.3	31.5	1.2	88.7	10.2	1.1
	전업맘***	77.8	20.5	1.7	91.0	7.4	1.6
2010년	전체	65.9	32.5	1.6	87.9	10.8	1.3
	워킹맘	62.3	36.4	1.3	86.5	12.4	1.1
	전업맘	71.3	26.7	2.0	89.9	8.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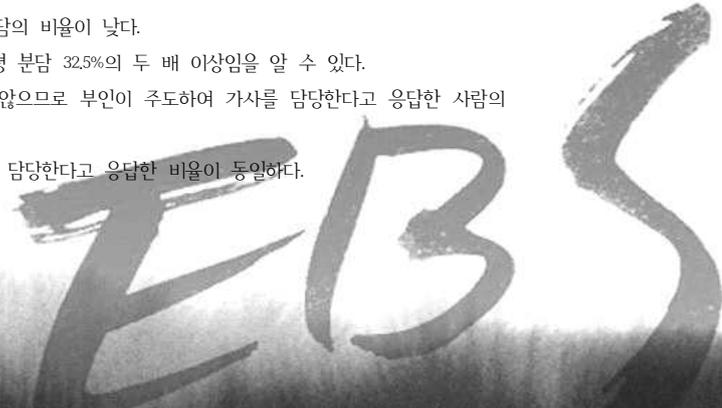
- ㄱ. 2000년과 2010년 모두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보다 실태에서 성 불평등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 ㄴ. 2010년에 가사를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다.
- ㄷ.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부인이 주도하여 가사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줄었다.
- ㄹ.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남편이 주도하여 가사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워킹맘과 전업맘 모두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SWER

- 정답 해설** ① ㄱ.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보다 실태에서 공평 분담의 비율이 낮다.
 ㄴ.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에서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 65.9%로 공평 분담 32.5%의 두 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2000년과 2010년의 응답자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인이 주도하여 가사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다.
 ㄹ. 워킹맘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10년에 남편이 주도하여 가사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다.





2016. 수능 15번

007.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와 ○○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시는 A,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지역 \ 제도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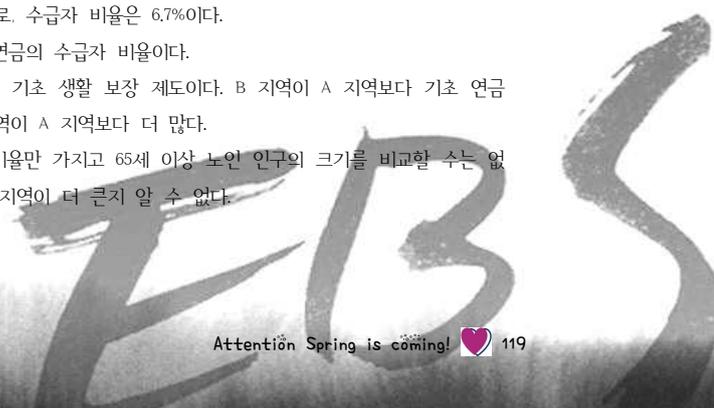
(단, ○○시는 A,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① A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이다.
- ② B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 ③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 ④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 ⑤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정답 해설 ④ (가)는 국민 연금, (나)는 기초 연금, (다)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국민 연금은 사회 보험, 기초 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가입자 간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A 지역과 B 지역의 국민 연금 수급자 비율은 같다. 그러나 A 지역보다 B 지역의 인구 수가 더 많으므로(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의 경우 A 지역은 5.5%이고 B 지역은 7.6%인데 전체는 6.9%이다. 5.5%와 7.6%의 평균값은 6.55%이고 전체 비율인 6.9%는 6.55%보다 크므로, A 지역보다 B 지역의 인구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연금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국민 연금이므로,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 ②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6.7%는 국민 연금의 수급자 비율이다.
 - ③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기초 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B 지역이 A 지역보다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 수도 더 많으므로, B 지역이 A 지역보다 더 많다.
 - ⑤ 지역별 총인구의 크기는 비교할 수 있으나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만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어느 지역이 더 큰지 알 수 없다.





2014. 9. 10번

00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의 가족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갑국의 가구 수는 을국의 두 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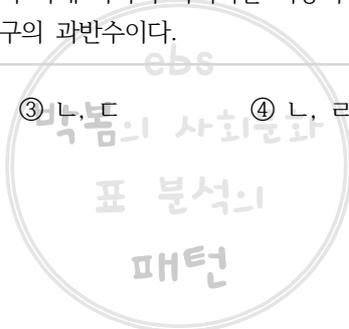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부부	2세대	3세대 이상		
갑국	8.0	69.0 (9.0)	12.0	9.5	1.5
을국	16.0	49.0 (14.0)	7.0	25.0	3.0

* ()는 전체 가구 대비 기혼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의 비율임.
 ** 기타 가구는 조손 가구 및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등을 포함함.

- ㄱ.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의 합은 을국이 갑국의 두 배이다.
- ㄴ. 갑국의 부부 가구 인구는 을국의 1인 가구 인구보다 더 많다.
- ㄷ. 갑국은 을국에 비해 친족 가구 중에서 확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ㄹ. 갑국과 을국 모두 핵가족은 전체 가구의 과반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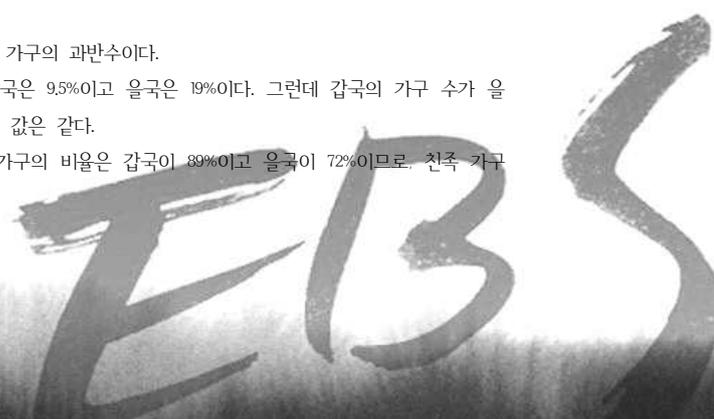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④ ㄴ. 갑국의 가구 수가 을국의 두 배가 되고 부부 가구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갑국의 부부 가구 인구는 을국의 1인 가구 인구보다 더 많다.

ㄷ. 갑국의 핵가족은 68%(8+60), 을국의 핵가족은 51%(16+35)로 전체 가구의 과반수이다.

오답피하기 ㄱ.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를 합한 비율은 갑국은 9.5%이고 을국은 19%이다. 그런데 갑국의 가구 수가 을국의 두 배이므로, 두 국가의 부부 가구 수와 기타 가구 수를 합한 값은 같다.

ㄷ. 확대 가족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 모두 2%이다. 그런데 친족 가구의 비율은 갑국이 89%이고 을국이 72%이므로, 친족 가구 중에서 확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을국이 크다.





2013. 9. 10번

009. 표는 갑국의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전체 고령자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점]

(단위: %)

가구 유형 \ 연도	2005년	2010년
부부 가구	28.5	32.7
2세대 가구	23.7	24.6
3세대 이상 가구	30.1	23.2
1인 가구	16.1	17.9
기타 가구*	1.6	1.6
계	100.0	100.0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 ① 2세대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 ② 1세대 핵가족 형태의 고령자 가구 수가 감소하였다.
- ③ 2005년과 2010년 모두 혼자 사는 고령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많다.
- ④ 2005년 대비 2010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보다 크다.
- ⑤ 2005년 대비 2010년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아닌 형태로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 비율은 변화가 없다.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④ 2005년과 비교하여 2010년 1인 가구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의 증가율보다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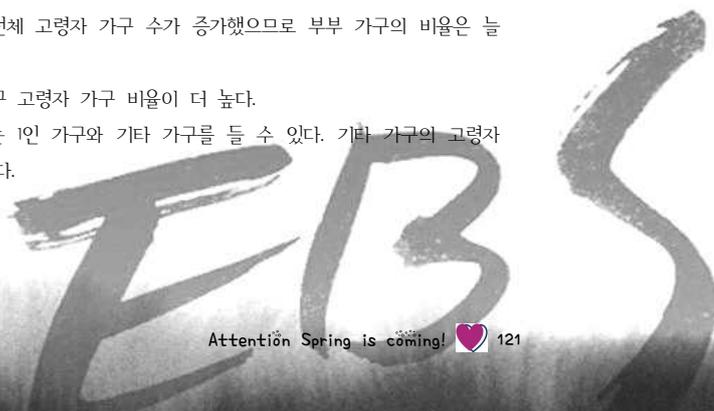
오답피하기 ① 2세대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0.9%p 증가하였지만, 3세대 이상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6.9%p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2세대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6%p 감소하였다.

② 1세대 핵가족 형태의 고령자 가구에는 부부 가구가 해당한다. 전체 고령자 가구 수가 증가했으므로 부부 가구의 비율은 늘었다.

③ 2005년과 2010년 모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 비율보다 부부 가구 고령자 가구 비율이 더 높다.

⑤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아닌 형태의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로는 1인 가구와 기타 가구를 들 수 있다. 기타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1인 가구의 고령자 가구 비율은 늘어났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2013. 6. 16번

010. 표는 갑국의 혼인 형태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990년 (단위: %)				2010년 (단위: %)			
구분	남편			구분	남편		
	초혼	재혼			초혼	재혼	
아내	초혼	84	2	아내	초혼	68	9
	재혼	6	8		재혼	14	9

* 갑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혼인 형태는 초혼과 재혼으로만 구분됨.

- ① 1990년 부부 모두 재혼인 혼인 건수는 아내만 재혼인 혼인 건수의 4배이다.
- ② 2010년 아내만 초혼인 혼인 건수는 남편만 초혼인 혼인 건수보다 많다.
- ③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는 2010년보다 1990년에 더 많다.
-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높다.
- ⑤ 부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이혼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더 높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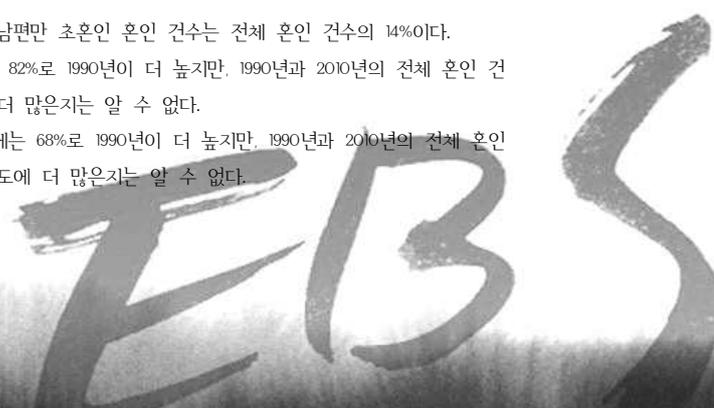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에는 20%이고, 2010년에는 50%이다.

오답피하기 ① 1990년 부부 모두 재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8%이고 아내만 재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6%이다.

② 2010년 아내만 초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9%이고, 남편만 초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14%이다.

③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에는 90%, 2010년에는 82%로 1990년이 더 높지만, 1990년과 2010년의 전체 혼인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초혼인 혼인 건수가 어떤 연도에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⑤ 부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1990년에는 84%, 2010년에는 68%로 1990년이 더 높지만, 1990년과 2010년의 전체 혼인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가 어떤 연도에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2012 수능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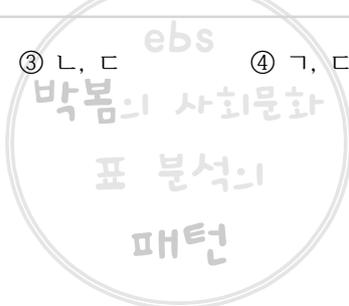
011.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 가구 수(천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친족 가구 (%)	부부 가구	10.7	12.8	14.2	16.2	17.4
	2세대 가구	66.3	63.2	60.8	55.4	49.3
	3세대 이상 가구	12.5	10.0	8.4	7.0	6.6
1인 가구(%)		9.0	12.7	15.5	20.0	25.1
기타 가구(%)		1.5	1.3	1.1	1.4	1.6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 ㄱ. 1995년에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 ㄴ. 1995년 이후 확대 가족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이다.
- ㄷ.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는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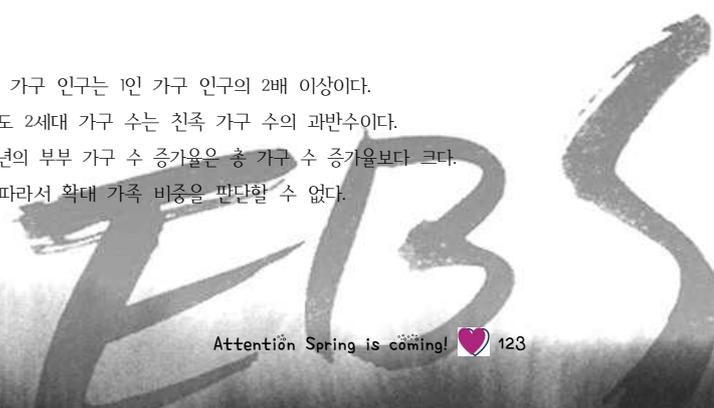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④

- ㄱ. 1995년 부부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므로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이다.
 - ㄷ. 2세대 가구 비중이 가장 작은 2010년에는 49.3%인데 이 경우에도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이다.
 - ㄹ. 2010년의 부부 가구 비율이 1990년보다 높으므로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는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더 크다.
- 오답피하기 ㄴ. 2세대 가구에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혼재한다. 따라서 확대 가족 비중을 판단할 수 없다.





2012. 6. 18일

012. 표는 갑국 A, B 지역의 가구 구성 현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전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단위: %)

구분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
A	88.7	6.5	4.8	100.0	95.5	4.5	100.0
B	83.4	11.3	5.3	100.0	98.5	1.5	100.0
전국	87.7	7.4	4.9	100.0	96.1	3.9	100.0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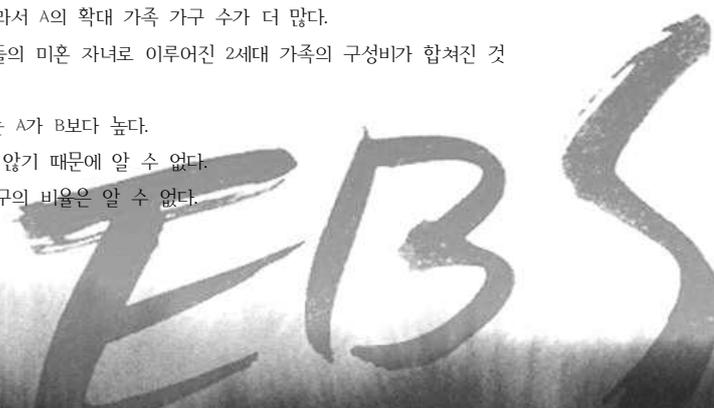
- ① A에서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비는 88.7%이다.
- ② A는 B보다 확대 가족 가구 수가 더 많다.
- ③ A는 B보다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의 구성비가 더 낮다.
- ④ B는 A보다 비친족 가구 비율이 더 낮다.
- ⑤ B는 A보다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정답 해설 ② 전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A의 확대 가족과 B의 확대 가족을 합하면 전국적으로는 확대 가족의 비율은 7.4%가 된다. 그런데 A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은 6.5%, B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이 11.3%이다. 만약 A, B의 가구 수가 같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가족의 비율은 6.5%와 11.3%의 평균 값인 8.9%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A보다 B의 가구 수가 많으면 전국적인 확대 가족의 비율은 B의 확대 가족의 비율에 가까운 값, 즉 8.9%와 11.3% 사이 값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인 확대 가족의 비율이 7.4%라는 점에서 A는 B보다 약 4배 정도 가구 수 많으며, 따라서 A의 확대 가족 가구 수가 더 많다.

오답피하기 ① 핵가족 비율에는 부부 1세대 핵가족과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의 구성비가 합쳐진 것이다.

- ③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다. 핵가족의 구성비는 A가 B보다 높다.
- ④ A와 B의 친족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절대 수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 ⑤ 1인 가구가 독거 노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독거 노인 가구의 비율은 알 수 없다.





2011. 수능 12번

013. 표는 갑국의 A ~ C 지역 가구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가구 구성 지역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기타 가구*	소계
		(한)부모+ 미혼 자녀	(한)부모+ 기혼 자녀			
A	5	65	16	2	12	100
B	16	55	10	6	13	100
C	12	40	25	20	3	100

- * 기타 가구: 1인 가구,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
- **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이상의 가족

- ①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A이다.
- ②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B이다.
- ③ 확대 가족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C이다.
- ④ A는 C보다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다.
- ⑤ A, B, C 모두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 가족 가구 수보다 많다.



정답 해설 ⑤ 핵가족은 '부부 가구와 (한)부모 + 미혼 자녀'이므로 핵가족 비율은 A가 70%, B는 71%, C는 52%에 해당하고, 확대 가족은 '(한)부모+기혼 자녀와 3세대 이상 가구'이므로 확대 가족의 비율은 A가 18%, B가 16%, C가 45%이므로 모두 핵가족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이 비율은 각각의 지역을 기준으로 핵가족과 확대 가족 비율에 해당함으로 각 비율의 크기를 통해 절대 가구 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분석이다.

- 오답피하기** ① 핵가족의 비율은 B지역이 가장 높다.
 ② 기타 가구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도 포함되므로 알 수 없다.
 ③ 전체 가구 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지역별 확대 가족 수는 파악할 수 없다.
 ④ A가 83%, C가 85%이므로 C의 2세대 이상 가구 비중이 더 높다.





2011. 6. 18번

014. 표는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전체는 A, B지역으로만 구성됨) [3점]

(단위: %)

연도 및 지역 가구 형태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1인 가구	2.6	2.5	3.0	6.9	6.5	8.8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 핵가족 :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확대 가족 :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 기타 가구 :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 ① 1995년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낮다.
- ② 2005년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높다.
- ③ 1995년 대비 2005년 전체에서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 ④ 1995년과 2005년 모두 A지역의 가구 수가 B지역의 가구 수 보다 적다.
- ⑤ 1995년 대비 2005년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⑤ A지역에서는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 가구 비율이 1995년에는 16.2%에서 2005년에는 11.0%로 감소한데 비해, B지역에서는 26.3%에서 15.0%로 변화했으므로 A지역보다 B지역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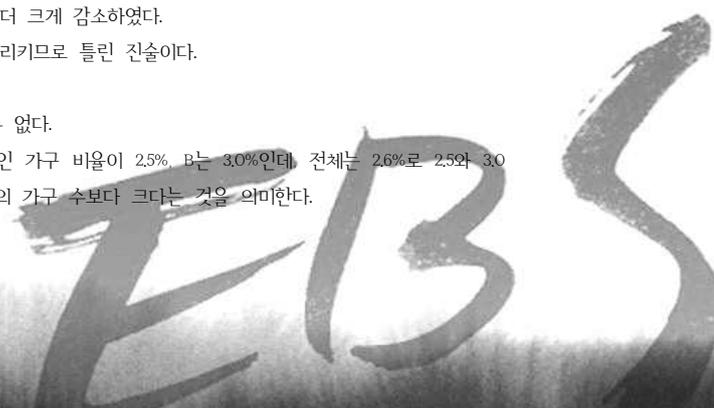
오답피하기 ①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부부 가구를 가리키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표를 통해서는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을 알 수 없다.

③ 2세대 가구에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 수 없다.

④ 1인 가구를 통해 A와 B 지역의 가구 수를 추론해 보면, A의 1인 가구 비율이 2.5%, B는 3.0%인데, 전체는 2.6%로 2.5와 3.0의 평균값이 2.75보다 A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A의 가구 수가 B의 가구 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0. 9. 13번

015.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한부모 가구 현황〉

구분 \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한부모 가구 수 (천 가구)	사별	443	498	526	502	501
	이혼	50	79	124	246	399
	미혼	101	85	94	123	142
	합계	594	662	744	871	1,042
한부모 가구 비율(%)		6.2	5.8	5.7	6.1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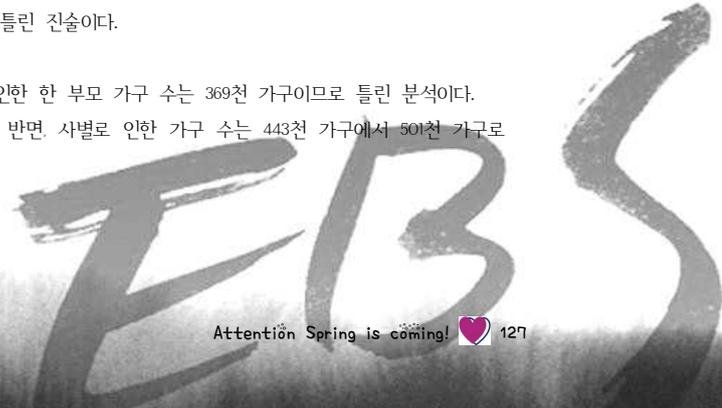
* 한부모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①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로 한부모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 ② 한부모 가구 중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③ 2000년부터는 이혼과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수가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수보다 많아졌다.
- ④ 1985년 대비 2005년에 전체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크다.
- ⑤ 1985년 대비 200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보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정답 해설 ④ 1985년의 전체 가구 수는, $100 : 6.2 = X : 594$ 이므로 9,580천 가구이고, 2005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15,552천 가구가 된다. 그러므로 전체 가구 수 증가율은 $(15,552 - 9,580) / 9,580 \times 100 = 62.3\%$ 가 된다. 한 부모 증가율은 $(1,042 - 594) / 594 \times 100 = 75.4\%$ 이므로, 전체 가구 수 증가율보다 한 부모 가구 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피하기** ① 한 부모 가구 비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2005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
 ③ 2000년의 경우 사별은 502천 가구인데 비해, 이혼과 미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구 수는 369천 가구이므로 틀린 분석이다.
 ⑤ 이혼으로 인한 가구 수는 50천 가구에서 399천 가구로 증가한 반면, 사별로 인한 가구 수는 443천 가구에서 501천 가구로 증가했으므로 틀린 분석이다.





고2 2015. 3. 20학

016. 표는 갑국의 구성 형태별 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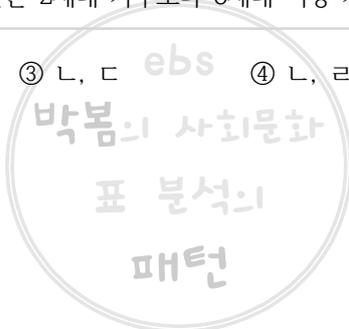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구분	부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1990년	2,665	6,670	133	1,537	250
2000년	3,703	5,863	95	2,788	331
2010년	4,756	5,065	65	4,025	378

* 기타 가구: 형제 가구, 기타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 ㄱ. 핵가족 가구 수는 2000년이 1990년보다 많다.
- ㄴ. 1990년 3세대 이상 가구 인구는 2010년의 2배 이상이다.
- ㄷ. 1990년 대비 2010년의 가구 증가율은 1인 가구가 가장 크다.
-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가구 감소율은 2세대 가구보다 3세대 이상 가구가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정답 해설 ⑤ ㄷ. 1인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3세대 이상 가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2세대 가구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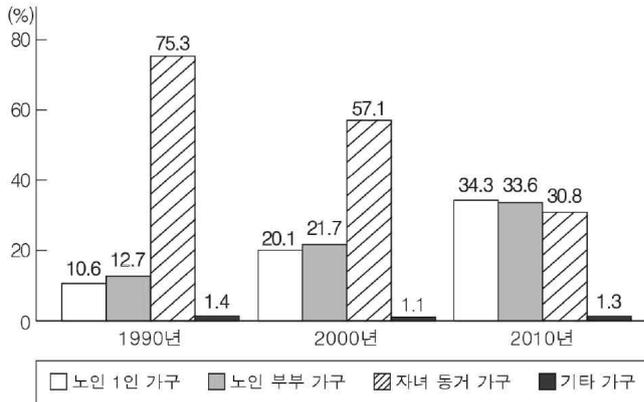
ㄴ. 3세대 이상 가구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고 2014. 11. 15번

017. 그래프는 노인 가구 형태별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 ㄱ. 1990년의 노인 부부 가구 인구는 노인 1인 가구 인구의 2배보다 적다.
- ㄴ. 1990년 대비 2000년의 노인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노인 가구 수 증가율보다 크다.
- ㄷ.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기타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 ㄹ. 2010년은 2000년에 비해 노인 가구 중 확대 가족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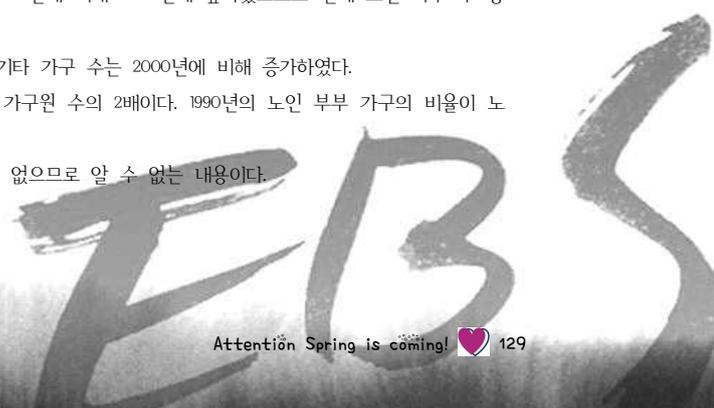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③ ㄴ. 전체 노인 가구에서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높아졌으므로 전체 노인 가구 수 증가율보다 노인 1인 가구 수 증가율이 더 크다.

ㄷ. 1990년 이후 노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2010년의 기타 가구 수는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노인 부부 가구의 가구원 수는 노인 1인 가구의 가구원 수의 2배이다. 1990년의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노인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더 높으므로 인구도 2배보다 많다.

ㄹ.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모두 확대 가족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2013. 3. 19번

018.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소득 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76,000 (7.8)	79,000 (7.8)	89,000 (8.2)	85,000 (7.9)	86,000 (7.4)
5분위	382,000 (12.9)	404,000 (12.6)	468,000 (14.1)	535,000 (15.8)	643,000 (16.3)

*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계층, 5분위는 소득 상위 20% 계층임.

* ()는 각 소득 계층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 ① 2009년 월평균 교육비는 5분위가 1분위의 두 배 수준이다.
- ② 2006년 대비 2007년 1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 ③ 1분위와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는 2009년보다 2008년이 크다.
- ④ 2006년 대비 2010년 월평균 교육비 증가율은 5분위보다 1분위가 크다.
- ⑤ 2009년 대비 2010년 1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보다 교육비 증가율이 크다.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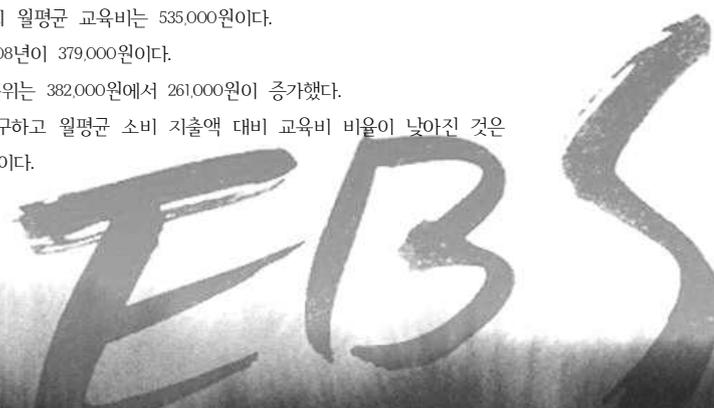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② 2006년 대비 2007년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7.8%)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1분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2009년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85,000원,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535,000원이다.

③ 1분위와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는 2009년이 450,000원, 2008년이 379,000원이다.

④ 교육비 증가율은 1분위는 76,000원에서 10,000원 증가했지만, 5분위는 382,000원에서 261,000원이 증가했다.

⑤ 2009년 대비 2010년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비 지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이 낮아진 것은 월평균 교육비 증가율보다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2014. 4. 10일

019. 표는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구분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		
		일반 신문	인터넷 신문	
2011년	전체	75.6	67.8	77.9
2013년*	남자	79.5	61.9	80.6
	여자	65.8	50.0	82.5

* 2013년 조사 대상 남녀의 수는 동일함.

- ㄱ. 2011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중에서 일반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모두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소 67.8%이다.
- ㄴ. 2013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2011년에 비해 적다.
- ㄷ. 2013년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 ㄹ. 2011년과 2013년 모두에서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가 일반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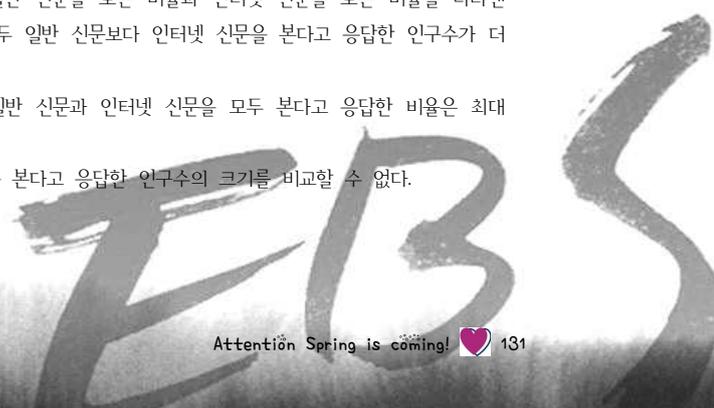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⑤ ㄷ. 2013년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는 남자의 경우 79.5% 중 80.6%이고, 여자의 경우는 65.8% 중 82.5%이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ㄱ.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중에서 일반 신문을 보는 비율과 인터넷 신문을 보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비율이 높으면 인구수도 많다. 따라서 2011년과 2013년 모두 일반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가 더 많다.

오답피하기 ㄱ. 2011년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 중에서 일반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모두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대 67.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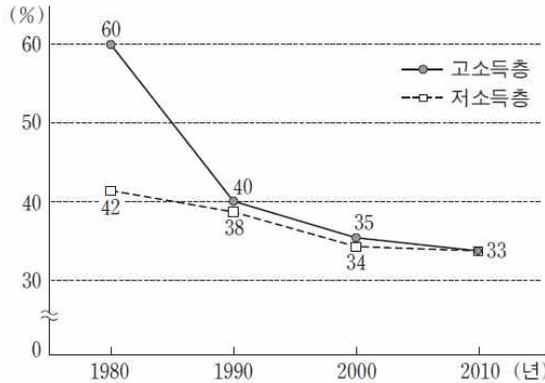
ㄴ. 2011년과 2013년의 조사 대상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본다고 응답한 인구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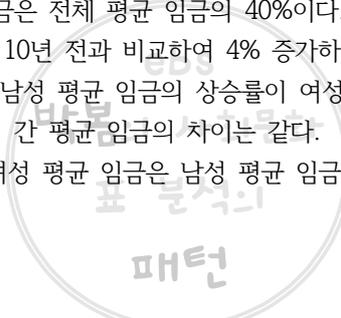
2014. 수능 17년

020. 그림은 갑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3점]



*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 $\frac{(\text{남성 평균 임금} - \text{여성 평균 임금})}{\text{남성 평균 임금}} \times 100$

- ① 1980년에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이다.
- ② 1990년에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보다 크다.
-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같다.
- ⑤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⑤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를 구하는 공식에서 분모는 남성 평균 임금. 분자는 '남성 평균 임금-여성 평균 임금'이다.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으면 남녀간 평균임금 격차는 50% 미만의 값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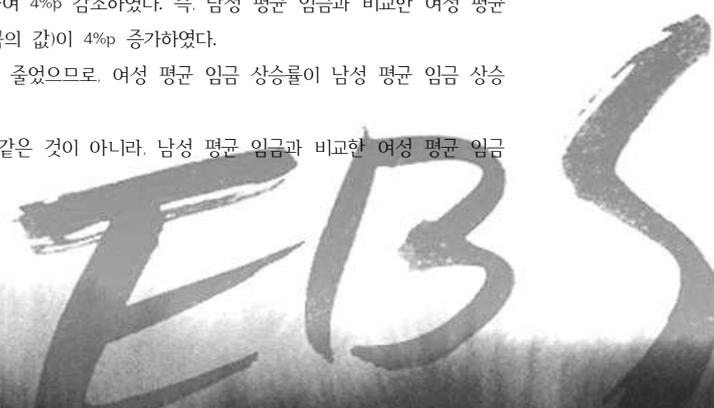
1980년과 2010년의 남녀간 평균임금 격차는 각각 42%와 33%로, 50% 미만이다.

오답피하기 ① 1980년 고소득층의 남녀 간 비율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② 1990년에 저소득층 남녀 평균 간 임금 격차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4%p 감소하였다. 즉, 남성 평균 임금과 비교한 여성 평균 임금의 상대값(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의 값)이 4%p 증가하였다.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가 줄었으므로, 여성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남성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더 컸다.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남성 평균 임금과 비교한 여성 평균 임금의 상대값이 같은 뿐이다.





2014. 6. 16번

021. 표는 어느 해의 성별·교육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교육 수준별 \ 성별	여성	남성
초졸 이하	67.7	63.8
중졸	50.4	51.7
고졸	44.9	32.5
대졸 이상	32.2	16.8

- ㄱ. 초졸 이하인 남성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 ㄴ.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77.1%이다.
- ㄷ.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 ㄹ.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가 더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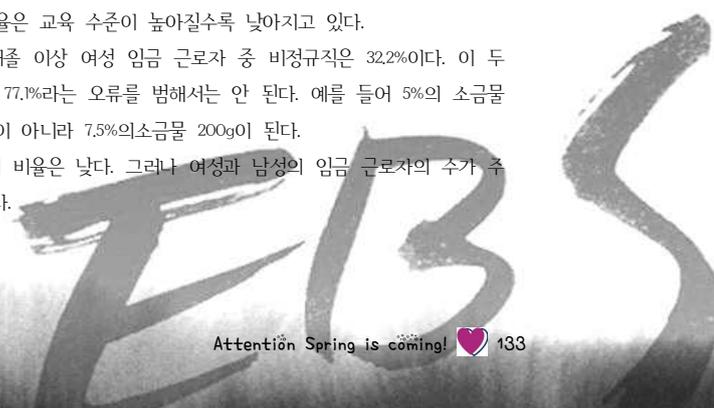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② ㄱ.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63.8%가 비정규직이므로 과반수가 된다.

ㄷ. 여성과 남성 모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오답피하기 ㄴ. 고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4.9%, 대졸 이상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2%이다. 이 두 수치를 더하여 고졸 이상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77.1%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5%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합하면 15%의 소금물 200g이 되는 것이 아니라 7.5%의 소금물 200g이 된다.

ㄹ.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낮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임금 근로자의 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수는 비교할 수 없다.





2014. 7. 15번

022. 표는 갑국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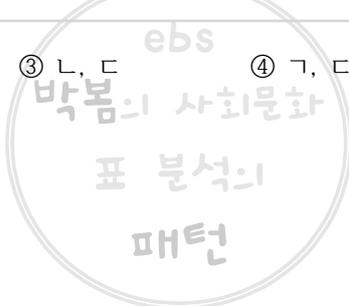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성 대비 비율	62.4	62.3	62.6	63.3	64.4

* 남성 대비 비율이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5%씩 증가함.

- ㄱ.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2008년 대비 2012년에 2% 증가하였다.
 ㄷ. 2009년 대비 2010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5%이상이다.
 ㄹ. 2008년 대비 2009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보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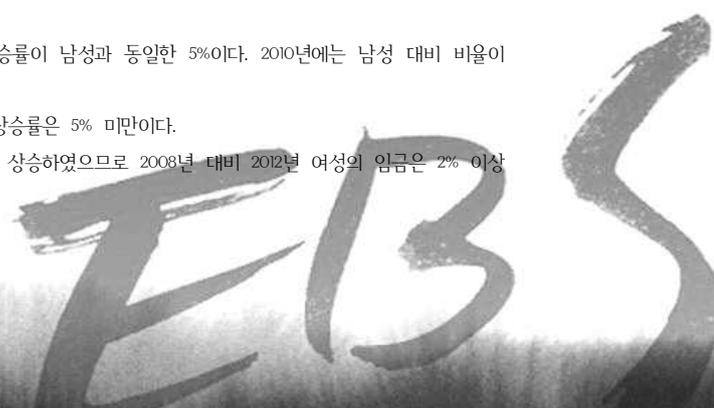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④ ㄱ.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남성의 임금은 5% 상승하였고, 남성 대비 비율은 하락하였어도 5% 미만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은 증가하였다.

ㄷ. 남성 대비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만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과 동일한 5%이다. 2010년에는 남성 대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므로 여성의 임금은 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ㄹ. 2009년 남성 대비 비율이 62.3%로 감소했으므로 여성의 임금 상승률은 5% 미만이다.

오답피하기 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남성의 임금은 5%씩 상승하였으므로 2008년 대비 2012년 여성의 임금은 2%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13. 4. 20일

023. 표는 A지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학생 범죄자 범행 동기> (단위: %)

구분		사행심	우발적	호기심	현실불만	기타	계
2000년	여자	6.2	33.4	27.1	25.2	8.1	100
	남자	2.2	51.7	15.0	21.0	10.1	100
2010년	여자	12.4	33.3	23.6	23.8	6.9	100
	남자	6.6	58.3	14.7	10.5	9.9	100

※A지역에서 2000년과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A지역에서 2000년 대비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남·여 학생 수는 각각 2배임

- ① 현실불만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2000년이 2010년의 2배이다.
- ②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감소하였다.
- ③ 2000년 대비 2010년에 사행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증가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
- ④ 2000년과 2010년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 학생 범죄자의 과반이다.
- ⑤ 2000년에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수는 2010년에 현실불만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수보다 적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⑤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남학생의 수가 2배이므로 2010년 비율은 적어도 학생 수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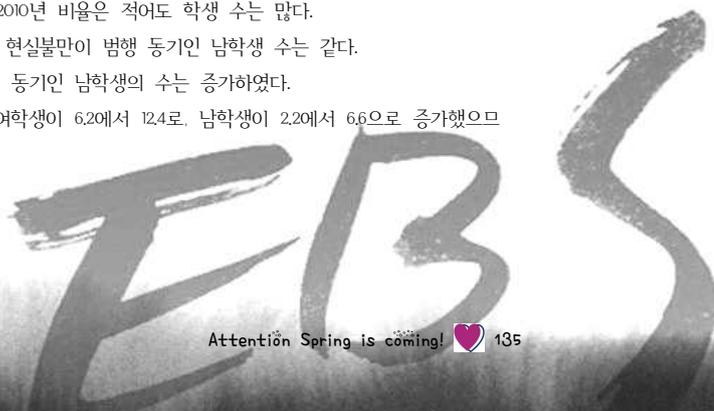
오답피하기 ①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남학생의 수가 2배이므로 현실불만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 수는 같다.

②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남학생의 수가 2배이므로 호기심이 범행 동기인 남학생의 수는 증가하였다.

③ 2000년 대비 2010년에 사행심이 범행 동기인 학생의 증가율은 여학생이 6.2에서 12.4로, 남학생이 2.2에서 6.6으로 증가했으므로 남학생이 높다.

④ 유죄 판결을 받은 남학생의 과반이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고2 2012. 9. 20일

024.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단위 : 명, %)

구분		응답 인원	외모	가계경제 어려움	공부	직업	이성 교제	기타
지역	도시	12,000	13.0	6.1	49.1	12.1	1.6	18.1
	농촌	3,000	11.0	7.0	35.3	24.0	1.8	20.9
성별	남자	8,000	9.1	5.8	40.7	23.4	1.5	19.5
	여자	7,000	16.3	6.8	36.4	22.4	1.8	16.3
연령	13~14세	4,000	16.9	2.2	60.6	5.8	0.2	14.3
	15~16세	6,000	11.0	2.4	65.2	6.6	0.3	14.5
	17~18세	5,000	12.3	9.7	59.9	9.1	1.6	7.4

- ① 지역 간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다.
- ②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 ③ 연령이 높을수록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④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의 2배 이상이다.
- ⑤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경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패턴



정답 ANSWER

ebs
박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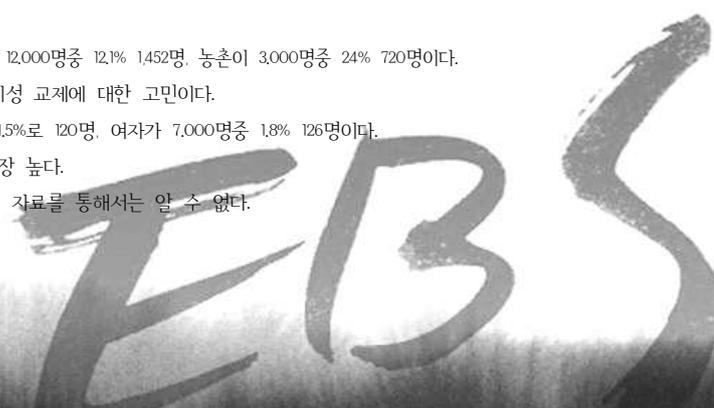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④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도시가 12,000명중 12.1% 1,452명, 농촌이 3,000명중 24% 720명이다.

오답피하기 ① 지역 간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이다.

② 이성 교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남자가 8,000명중 1.5%로 120명, 여자가 7,000명중 1.8% 126명이다.

③ 15~16세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율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2012. 9. 15번

025. 다음 자료는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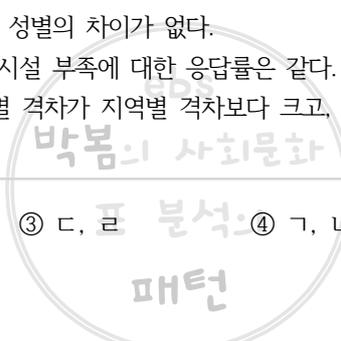
○ 설문 내용 :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고르시오.'

○ 응답 결과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건강 문제	실업	경로 의식 약화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계
지역	도시	40.2	16.5	22.6	15.0	1.4	4.3	100.0
	농촌	45.2	4.5	30.7	7.3	7.8	4.5	100.0
성별	남	46.9	8.0	23.0	4.8	1.3	16.0	100.0
	여	40.7	12.5	30.4	7.3	1.3	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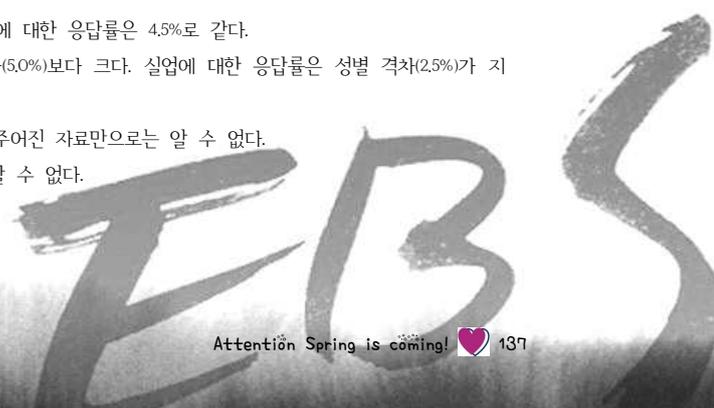
- ㄱ. 도시 거주 노인의 15%는 직업이 없다.
- ㄴ. 경로 의식 약화에 답한 응답자 수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
- ㄷ. 농촌 지역에서 소외감과 노인 복지 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같다.
- ㄹ.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가 지역별 격차보다 크고, 실업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가 지역별 격차보다 작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ANSWER

정답 해설 ③ ㄷ. 농촌 지역에서 소외감과 노인 복지 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률은 4.5%로 같다.
 ㄹ.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6.2%)가 지역별 격차(5.0%)보다 크다. 실업에 대한 응답률은 성별 격차(2.5%)가 지역별 격차(7.7%)보다 작다.
오답피하기 ㄱ. 도시 거주 노인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ㄴ. 남녀 노인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 수는 성별로 비교할 수 없다.





2011. 수능 20년

026. 표는 갑국의 인구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단, 전국은 A지역과 B지역으로만 구성됨.)

(단위: %)

구분	연도	1960	1980	2000
총 부양비*	A	77.9	53.8	37.0
	B	89.5	70.4	50.0
	전국	85.9	60.5	39.4
유소년 부양비**	A	74.0	49.9	29.5
	B	82.4	60.8	28.0
	전국	79.9	54.3	29.2
노년 부양비***	A	3.9	3.9	7.5
	B	7.1	9.6	22.0
	전국	6.0	6.2	10.2

* 총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1960년 유소년 인구는 A가 B보다 적다.
- ② 1980년 A에서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부양 인구 보다 크다.
- ③ 2000년 B에서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 ④ 1960년 대비 2000년에 A에서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 ⑤ 1980년 대비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A가 B보다 크다.

패턴



정답 해설 ① 1960년 A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74%이고, B지역 유소년 부양비는 82.4%이다. 그런데 A, B로 구성된 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79.9%로서 이는 A지역과 B지역의 평균값 78.2%보다는 높고 B지역보다는 낮기 때문에 A지역의 부양인구보다 B지역의 부양인구가 약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유소년 인구는 A가 B지역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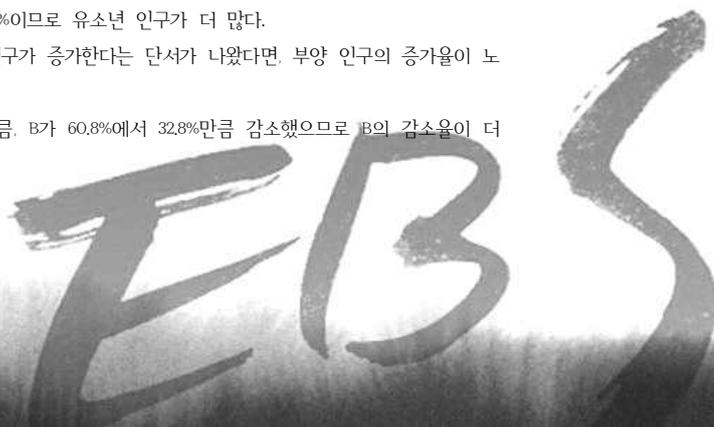
오답피하기 ②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49.9\% + 3.9\% = 53.8\%$ 이므로 부양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부양 인구보다 적다.

③ 2000년 B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22.0%이고 유소년 부양비는 28.0%이므로 유소년 인구가 더 많다.

④ 총인구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파악할 수 없다. 만약 부양 인구가 증가한다는 단서가 나왔다면, 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작다.

⑤ 1980년 대비 20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A가 49.9%에서 20.4%만큼, B가 60.8%에서 32.8%만큼 감소했으므로 B의 감소율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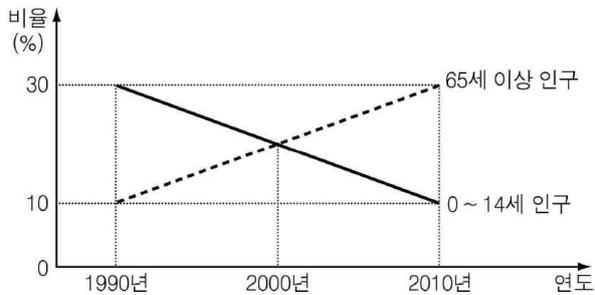
ebs
박봄의
사회문화





2014. 3. 16번

027.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15 ~ 64세 인구의 비율은 1990년이 가장 높다.
- ②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이 2000년의 2배이다.
- ③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에 비해 3배가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 ④ 0 ~ 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1990년이 가장 많다.
- ⑤ 15 ~ 6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0년이 가장 많다.



정답 해설 ⑤ 제시된 기간 동안 15 ~ 64세 인구의 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므로 15 ~ 6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0년이 가장 많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기간 동안 15 ~ 64세 인구의 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다.

② 2010년이 30%, 2000년이 20%이다.

③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10%이고 2010년에 30%이다. 각 시기의 전체 인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010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의 3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0 ~ 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1990년이 가장 적다.





고2 2014. 3. 19번

028. 표는 A국과 B국의 인구 변동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A국		B국	
	1990년	2010년	1990년	2010년
노년층 비율(%)	10	10	10	20
노령화 지수	100	200	100	200

*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 ㄱ. A국에서 15 ~ 64세 인구의 비중은 커졌다.
- ㄴ. A국의 출산율은 1990년보다 2010년에 높다.
- ㄷ. B국에서 0 ~ 14세 인구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ㄹ. 2010년의 노년층 인구는 A국보다 B국이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ebs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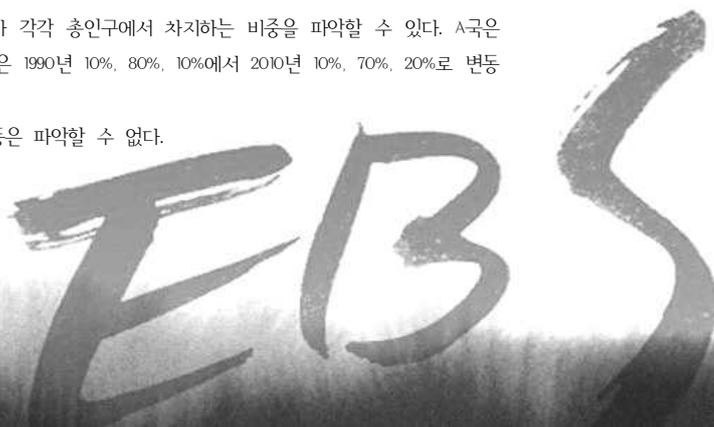
봄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정답 해설 ② 표를 통해 0 ~ 14세, 15 ~ 64세,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A국은 1990년 10%, 80%, 10%에서 2010년 5%, 85%, 10%로 변동하였다. B국은 1990년 10%, 80%, 10%에서 2010년 10%, 70%, 20%로 변동하였다.

오답피하기 ㄴ. 0 ~ 14세 인구의 비중이 감소했을 뿐 출산율 변동은 파악할 수 없다.
ㄹ. 총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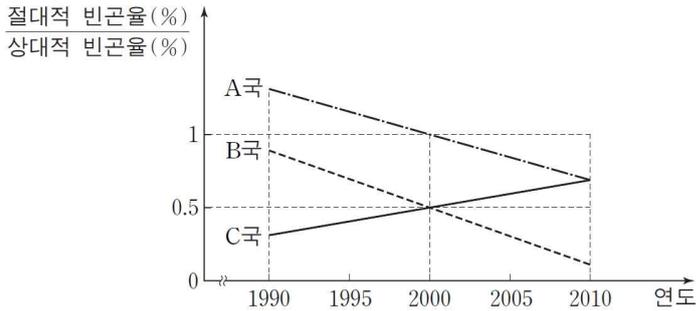


02 빈곤 표 기출 완전체



2016. 9. 11번

001.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중위 소득의 1/2이 최저생계비보다 크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해설 ③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1 미만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보다 작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위소득의 1/2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1 미만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작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오답피하기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에서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클 때 나타나므로,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단서에 의해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C국에서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커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거나,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작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의 값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클 때 나타난다.



2016. 6. 10번

00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A) 대비 상대적 빈곤 가구 수(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 모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갑국과 을국 각각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갑국(B/A)	0.25	1	1.5
을국(B/A)	2	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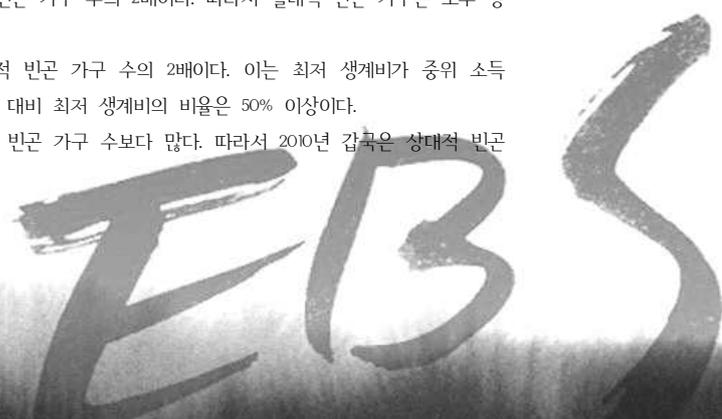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① 2000년에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의 4배이다.
- ② 2000년에 을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③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모두 높아졌다.
- ④ 2010년에 을국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 ⑤ 2010년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낮다.



정답 해설 ③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이며,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다. 제시문의 조건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같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함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갑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보다 더 많다. 이는 2010년에 중위 소득 50% 미만이 최저 생계비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5년 대비 2010년에 갑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모두 높아졌다.

- 오답피하기** ① B/A가 0.25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4배라는 것을 의미할 뿐,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의 4배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2000년 을국의 B/A가 2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④ 2010년 을국의 B/A가 0.5이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 50%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0년에 을국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 ⑤ 2010년 갑국의 B/A가 1.5이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보다 많다. 따라서 2010년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높다.





2015. 수능 9번

003.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ㄱ.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ㄷ. 2010년 대비 2011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ㄹ.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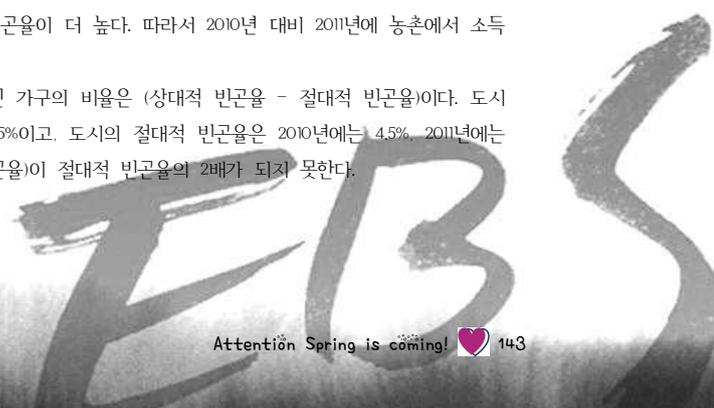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①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농촌 가구	절대적 빈곤율(%)	10.5	12.0
	상대적 빈곤율(%)	12.0	15.0

- ㄱ. 2010년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7.5%이다. 따라서 2010년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7.5%가 되지 않는다.
- ㄴ.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오답피하기 ㄷ. 도시와 농촌 모두 2010년보다 2011년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따라서 2010년 대비 2011년에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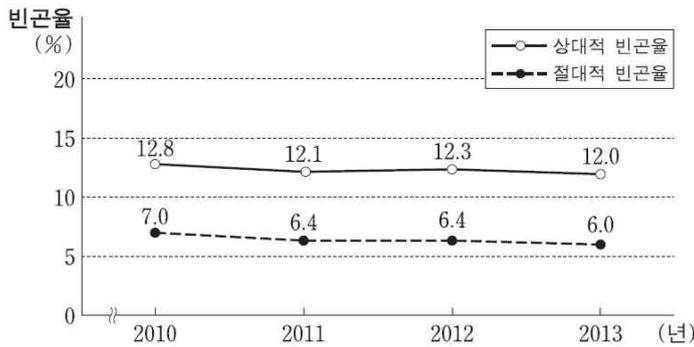
ㄹ.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다. 도시의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3.5%, 2011년에는 5%이고, 도시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0년에는 4.5%, 2011년에는 4%이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모두 (상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의 2배가 되지 못한다.





2015. 6. 15번

004. 자료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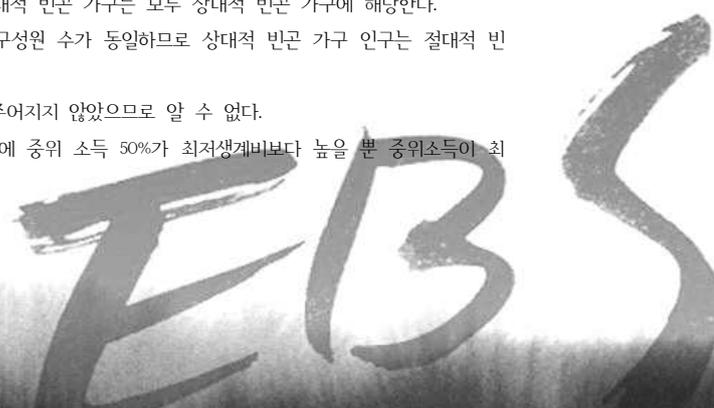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①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 ②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 ③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 ④ 2013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이다.
-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정답 해설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이 절대적 빈곤층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고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이므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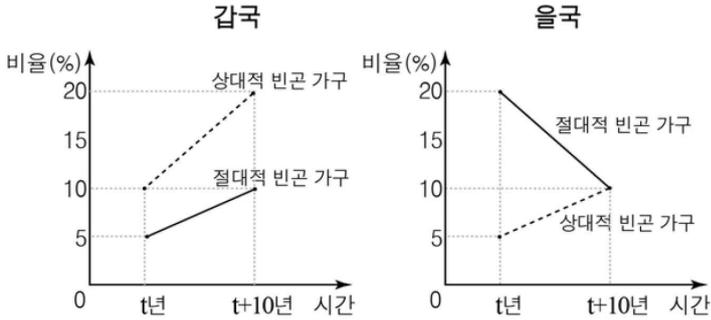
- 오답피하기**
- ①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② 상대적 빈곤율은 12.1%이고 절대적 빈곤율은 6.4%이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므로 상대적 빈곤 가구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 인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
 - ③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만 나왔을 뿐 전체 가구 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다.
 - ④ 2013년에 상대적 빈곤 비율이 절대적 빈곤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중위 소득 50%가 최저생계비보다 높을 뿐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라고 할 수 없다.





2015. 7. 10일

005. 그래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 *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ㄱ.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ㄴ. 갑국에서 t+10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ㄷ. 을국에서 t년에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 ㄹ. 을국에서 t+1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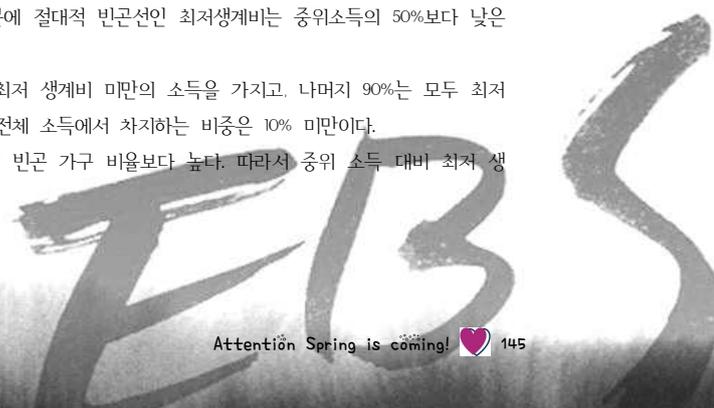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④ ㄱ.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ㄴ. t+10년에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수준이 되므로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ㄷ. 을국에서 t+10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10%이다. 전체 중 10%가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나머지 90%는 모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오답피하기 ㄷ. 을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는 50%를 초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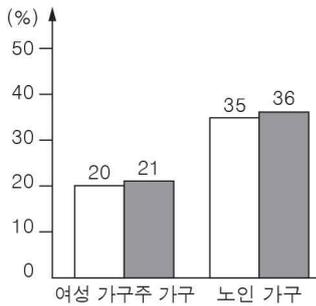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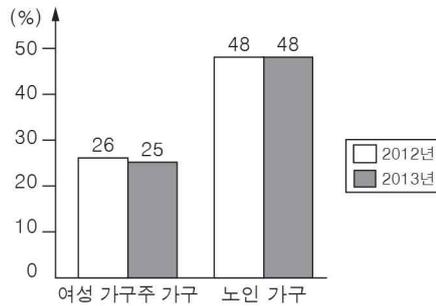
2015. 4. 14번

006. 그림은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당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각 가구 유형별 전체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3점]

< 가구 유형별 절대적 빈곤율 >



< 가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



-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ㄱ. 2012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ㄴ. 2013년 중위 소득 미만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0%이다.
 ㄷ. 2012년 대비 2013년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ㄹ. 2012년, 2013년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노인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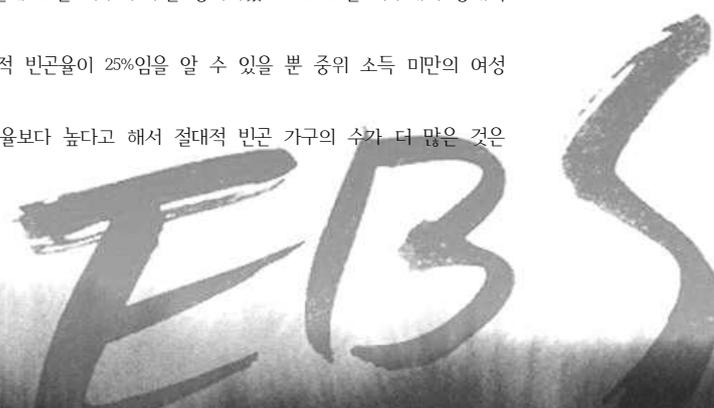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해설 ② ㄱ. 2012년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ㄷ. 2012년 대비 2013년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는 없고, 전체 노인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오답피하기 ㄴ. 자료를 통해 2013년 중위 소득의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이 25%임을 알 수 있을 뿐 중위 소득 미만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알 수 없다.

ㄹ. 노인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2015. 3. 12번

007.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빈곤 탈출률과 진입률

(단위 : %)

가구주의 연령대	빈곤 탈출률 (2012년 빈곤층 → 2013년 비빈곤층)	빈곤 진입률 (2012년 비빈곤층 → 2013년 빈곤층)
40세 미만	40	10
40세 이상 60세 미만	25	20
60세 이상	10	50
전체	25	25

* 2012년 빈곤층 가구는 총가구의 20%이다.

- ㄱ.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 ㄴ.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빈곤을 탈출한 가구가 많다.
- ㄷ.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률은 낮고, 진입률은 높다.
- ㄹ.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비빈곤층의 빈곤 진입률은 30%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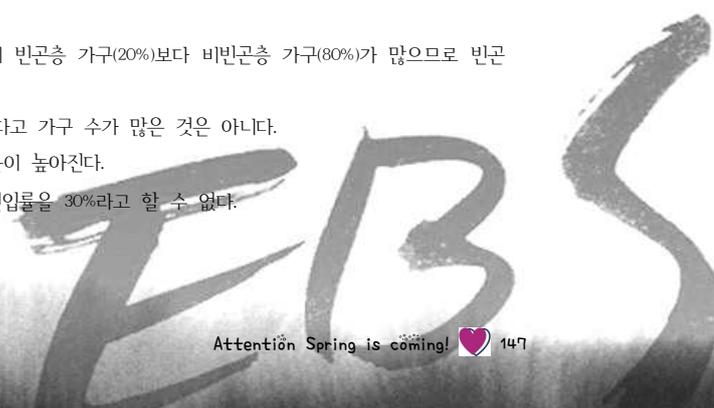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② ㄱ.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이 같지만 2012년에 빈곤층 가구(20%)보다 비빈곤층 가구(80%)가 많으므로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오답 피하기 ㄴ. 연령대별 가구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비율이 높다고 가구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ㄷ.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 비율이 낮아지고, 빈곤 진입 비율이 높아진다.

ㄹ. 연령대별 가구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비율을 더해서 진입률을 30%라고 할 수 없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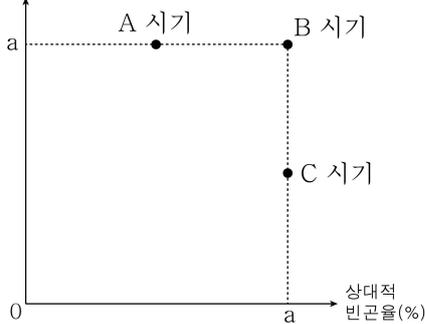




2014. 10. 18번

008. 그림은 갑국의 시기별 빈곤율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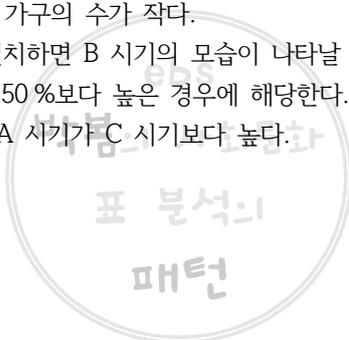
절대적 빈곤율(%)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① A 시기와 B 시기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같다.
- ② B 시기에 비해 C 시기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가 작다.
- ③ 중위 소득의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B 시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C 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A 시기가 C 시기보다 높다.



정답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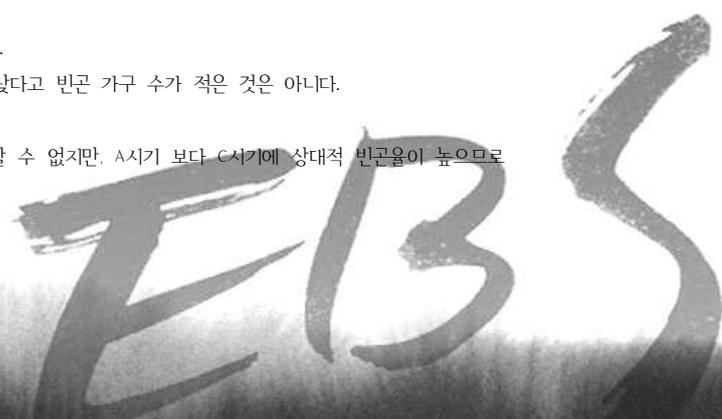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③ 중위 소득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하면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와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가 동일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빈곤율이 같다고 최저 생계비가 같은 것은 아니다.

② 시기별 전체 가구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C 시기의 빈곤율이 낮다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④ C 시기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 50%보다 낮다.

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비교할 수 없지만, A 시기 보다 C 시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므로 C 시기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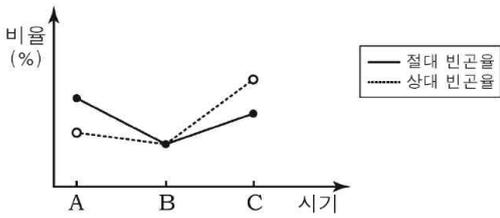




2014. 4. 12번

009. 자료는 갑국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서 절대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다.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함.

- ① A시점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보다 높다.
- ② B시점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일치한다.
- ③ C시점은 B시점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많다.
-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되는 가구 비율은 A시점이 가장 높다.
- ⑤ C시점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표 분석의
패턴



정답 해설 ⑤ 갑국에서는 소득 점유 비중이 해당 가구 비율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C시점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보다 낮다.

오답피하기 ① A시점은 절대 빈곤율이 상대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는 높지만, 중위 소득보다 높은지는 알 수 없다.

② B시점에서는 중위 소득의 50%와 최저 생계비가 일치한다.

③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알 수 없다.

④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은 C시점에서 가장 높다.

ebs
봄봄의
사회문화





고2, 2015. 11. 15번

010.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 갑국의 빈곤율 >

구 분		2010년	2014년
절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3	2
	여성 가구주 가구	10	13
상대적 빈곤율(%)	남성 가구주 가구	6	6
	여성 가구주 가구	21	26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단, 전체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성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

- ㄱ. 2010년에 남성 가구주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ㄴ. 2010년에 여성 가구주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수는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보다 많다.
- ㄷ. 2014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크다.
- ㄹ.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남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 비중은 2010년과 2014년이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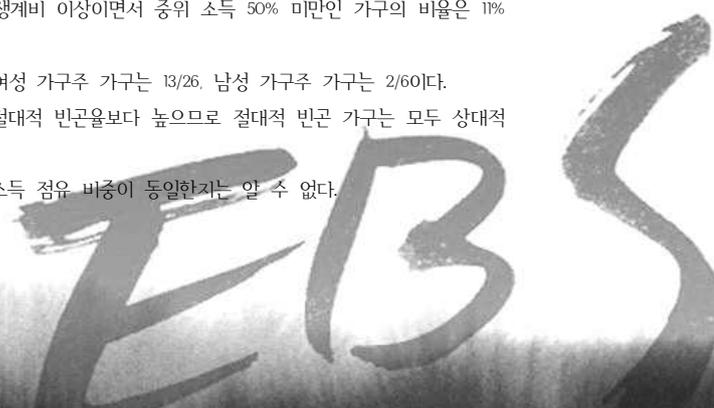


정답 해설 ③ ㄴ. 2010년의 여성 가구주 가구 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1% 이므로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10%보다 크다.

ㄷ. 2014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여성 가구주 가구는 13/26, 남성 가구주 가구는 2/6이다.

오답피하기 ㄱ. 2010년에 남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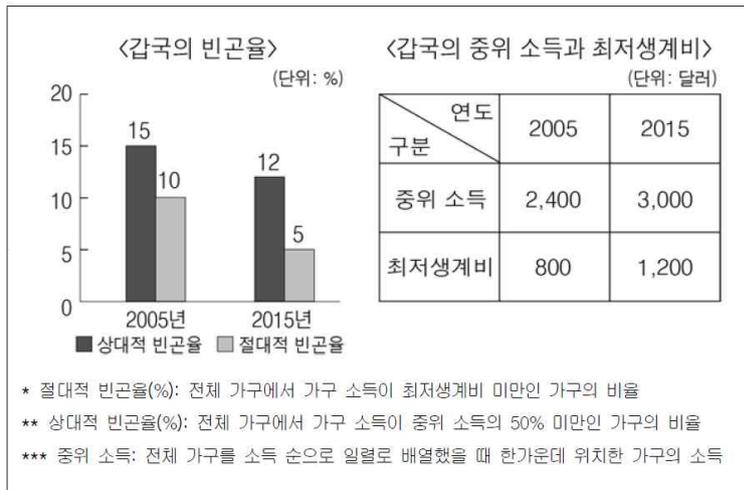
ㄹ.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6%로 동일한 것이지, 소득 점유 비중이 동일하지는 알 수 없다.





고 2015. 9. 10번

011.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ㄱ. 2015년 전체 가구 중 소득 1,200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5% 미만이다.
- ㄴ. 2005년의 상대적 빈곤선과 2015년의 절대적 빈곤선은 일치한다.
- ㄷ. 2005년보다 2015년의 최상위 소득과 최저생계비 간의 격차가 더 크다.
- ㄹ. 2015년 대비 2005년의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갑국의 인구는 2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ANSWER

ebs
봄봄의
사회문화

정답 해설 ④ ㄴ. 2005년의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2015년의 절대적 빈곤선 1,200달러와 동일하다.
 ㄹ.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2005년 10%, 2015년 5%이다. 갑국 전체의 가구 수는 변화가 없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므로, 2배라고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ㄱ. 주어진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ㄷ. 각 시기 최상위 소득은 파악할 수 없다.

